차 례

머 리 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학생소년들이 혁명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는 높은 혁명정신과 고상한 도덕품성을 갖춘 혁명인재로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높은 혁명정신과 고상한 도덕품성을 갖춘 혁명인재로 자라나자면 《사회주의도덕과 법》과목학습을 잘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도덕과 법》과목에서는 우리들이 갖추어야 할 혁명정신과 도덕품성, 사회주의헌법의 내용들을 배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배우는 학생들은 사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완성된 훌륭한 품성을 지닌 혁명인재로 자라나야 한다.

훌륭한 도덕품성을 지닌 혁명인재가 되여야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게 참답게 복무할수 있다.

이런데로부터 중학교 4학년에서는 례절, 량심, 도덕, 품성, 동지애와 의리, 집단주의, 가정의 화목과 생활문화, 계급적립장, 사회주의헌법에 대한 지식들을 배운다.

모든 학생들은《사회주의도덕과 법》과목학습을 잘함으로써 높은 혁명정신과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닌 훌륭한 혁명인재로 자라나야 한다.

제1장. 례절과 생활

제1절. 례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상생활에서 공중도덕과 례의범절을 잘 지키는것이 중요합니다.》

례절은 례의에 대한 범절이다.

《례》라는 말은 상대방에 대한 친근한 감정과 존경을 의미하는 말이며 《례의》라는것은 상대방을 친근하게 대하고 존경하는 차림새이다.

례절은 사람들이 서로 접촉하고 사귀는 과정에 이루어진다. 사람들은 서로 접촉하여 자기 의사와 요구를 전달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의사와 요구를 듣기도 하면서 그에 대하여 이러저러한 태도를 가진다.

가정에서는 부모형제들과 접촉하고 밖에 나가서는 이웃과 접촉하며 학교에 나가서는 동무들, 선생님들과 접촉하게 된다. 이때 상대방에 대한 친근한 감정과 존경심이 표시되도록 말과 행동을 하는것이 례절이다.

례절을 바로 지키려면 무엇보다도 말과 행동을 친근감이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실례로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반갑게 맞아들이며 정답게 인사를 나누고 자리도 권하면서 사소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정성을 다하는것이 친근감의 표현이다.

또 동무들을 만나면 반갑게 대하고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는것도 친근감의 표시로 된다.

우리는 누가 길을 물으면 차근차근 알려주고 때로는 길을 안내해주는 학생을 보게 된다. 또 뛰놀던 어린이들이 넘어지면 달려가 일으켜 세워주고 옷에 묻은 먼지도 털어주며 다정히 타일러주는 학생을 보게 된다. 이런 학생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학생을 례절이 밝은 학생이라고 칭찬한다.

사람들이 례절을 지키는데서 친근한 감정은 부드러운 말과 성의있고 겸손한 행동에서 나타난다.

례절에서 친근한 감정이 나타나도록 하자면 상대방에 대한 친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례절은 말과 행동으로 표시되지만 그 말과 행동에는 상대방에 대한 친근한 마음이 담겨져있으며 그 마음이 례절에서 나타난다.

상대방을 가깝게 생각하지 않거나 반가운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친절을 베풀어도 그것은 어색하고 상대방에게 진실한감을 주지 못한다. 마음이 없는 말이나 행동은 겉치레에 불과하기때문에 례절로 되지 못한다.

친근한 마음을 가지고 례절을 표시할 때 사람들은 그 마음을 느끼고 반갑고 고맙게 생각한다.

또 사람들은 친근한 마음을 가지고 례절을 지키는 사람을 진실한 사람으로 보고 그런 사람과 가깝게 지내려고 한다.

례절을 바로 지키려면 다음으로 말과 행동을 존경심이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말과 행동을 존경심이 나타나도록 하자면 우선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부터 가져야 한다.

학생들이 부모님들과 선생님들, 나이많은 어른들을 혁명사업도 오래하고 아는것도 많고 경험도 풍부한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우러러 보는것이 웃사람에 대한 존경심이다.

말과 행동을 존경심이 나타나도록 하자면 또한 말을 존대하여 해주어야 한다.

말을 존대하여 하자면 높이는 말을 문화적으로 써야 한다.

높이는 말이란 존경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 우리 나라 말에는 존경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 매우 풍부하다.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상대방을 높이는 말이 있는가 하면 이야기에 오르는 사람을 높이는 말도 있으며 자기를 낮추어 상대방을 높이는 말이 있는가 하면 에둘러 말하여 상대방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는 말도 있다.

존경의 뜻을 나타내는 우리 말을 대상과 정황에 맞게 하여야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이 잘 표시된다.

웃사람과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존경어를 쓰며 자기를 낮추어 상대방을 존대하는 말을 잘 쓰는 학생들이 웃사람을 존대할줄 아는 례절밝은 학생이다.

례하면 부모님들과 선생님들, 웃사람앞에서 《나》, 《우리》와 같은 말대신 《저》, 《저희들》이라는 말을 써서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상대방을 존대하는것은 존경의 뜻을 잘 나타내는 례절이다.

또 웃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여도 《그 책을 나도 보자요.》 한다든가 《아버지, 빨리 식사를 하라요.》라고 하는 대신 《저도 그 책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밥상을 다 차렸습니다.》라고 말하는것이 존경의 뜻을 나타내는 례절로 된다.

그리고 말을 너무 빨리 하여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거나 건방진 말투로 말하는 현상이 없어야 한다. 이런 말투는 다 상대방을 존경하지 않는 표현이다.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수 없게 말을 빨리 하면 상대방에게 불편을 주며 웃사람과 이야기할 때 《뭐라구?》, 《누가 찾는다구요?》, 《…달라요.》, 《…가라요.》, 《…하라요.》 등의 건방진 말투를 쓰면 불쾌한 인상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말은 다른 사람이 알아듣도록 속도와 억양을 조절해야 하며 존대해서 하여야 한다.

례절을 바로 지키려면 다음으로 몸가짐을 바로하여야 한다.

웃사람이 방에 들어올 때는 일어서서 맞으며 웃사람에게 좋은 자리를 권하는것은 다 상대방에 대한 존경의 표시이다.

만일 집에서 부모가 퇴근하여 돌아올 때 일어서서 맞이하지 않거나 손님이 왔을 때 일어서서 례의를 표시하지 않고 제할 일을 그냥 하면 그것은 버릇없는 행동이다.

학생들이 교실에 선생님이 들어오면 일어서서 맞이하는것도 다 선생님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된다.

또 학생들이 웃사람들과 함께 걸을 때 약간 뒤에 서고 계단이나 둔덕진 곳에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 웃계단이나 높은 곳에 서지 않고 아래 계단이나 낮은 곳에 서는것도 다 웃사람에 대한 존경심의 표시이다.

상대방에 대한 존경은 상대방이 말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서도 나타난다.

상대방이 말할 때 자세를 바로가지고 공손하게 들어야 한다.

만일 웃사람이 말할 때 삐뚤서한 자세를 취하거나 헛눈을 팔고 마뜩지 않은 표정으로 대한다면 그것은 웃사람의 말이 시끄럽다는 것으로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겸손치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

례절은 상대방에 대한 존경의 표시인 동시에 친절성의 표시이다. 그러므로 언제나 상대방에 대한 친절한 감정과 존경심을 가지고 례절을 지킬 때 례절이 바른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수 있다.

학생들은 사람들을 대할 때 언제나 상대방에 대한 친근한 감정과 존경심을 가지고 례절을 지켜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명언

《꽃은 향기가 있어야 벌과 나비가 찾아들고 일군은 인정미가 있어야 사람들이 찾아온다.》

복습문제

1. 례절이란 무엇인가.
2. 례절은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가.
3. 높임과 낮춤을 대상과 정황에 맞게 표시하는 인사례절을 실례를 들어보시오.

제2절. 언어례절과 행동례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늙은이나 웃사람앞에서는 인사말이나 몸가짐도 례절바르게 하여야 합니다.》

례절은 언제나 이러저러한 사람들과의 접촉과정에 이루어진다.

사람들이 접촉하는 대상은 자기보다 웃사람일수도 있고 아래사람일수도 있으며 자기또래의 사람일수도 있다. 이에 따라 례절에는 웃사람에 대한 례절, 아래사람에 대한 례절, 동무호상간 례절이 있게 된다.

이 모든 례절은 주로 말과 행동으로 표시된다. 이로부터 례절에는 언어례절과 행동례절의 두가지형태가 있게 된다.

언어례절과 행동례절을 잘 지키는것은 사람들사이에서 매우 중요하다.

《말 한마디에 천금이 오간다.》는 말이 있다.

이 말에는 례절이 바르게 말하고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고 많은것을 얻게 되지만 례절이 없으면 사람들로부터 믿음을 잃게 되고 비난을 받게 되며 많은것을 잃게 된다는 뜻이 담겨져있다. 사람들은 말과 행동에서 례절이 밝아야 친근감을 가지고 가까와지려고 하며 서로 도우려는 마음도 가지게 된다.

버릇이 없이 말하고 되는대로 행동하는 사람과 가까이하려는 사람은 없다.

언어례절은 사람들이 서로 말하는데서 지켜야 할 례절이다.

언어례절에는 《높임》, 《같음》, 《낮춤》 등의 말차림이 있다.

높임말차림은 존경의 뜻을 나타내는 말차림이다.

높임말을 잘 살려써야 례절을 바로 지킬수 있다.

높임말은 우선 《습니다, ㅂ니다》, 《습니까, ㅂ니까》 등으로 표현된다.

또한 웃사람을 대하는데서 《시》를 붙여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높임말차림이 있다.

례하면 《먹다》를 《잡수시다》, 《있다》를 《계시다》, 《간다》를 《가신다》, 《보다》를 《보시다》, 《자다》를 《 주무시다》 등으로 표현하는것은 높임말차림의 례절이다.

언어례절에는 또한 같은말차림이 있다.

같은말차림은 주로 자기또래의 동무들에게 쓰는 언어례절이다.

같은말차림에는 《하게》, 《하오》 등이 있다. 그러나 《하게》, 《하오》는 주로 어른들사이에 하는 말이다. 학생들은 《하자》, 《가자》 등으로 자기또래의 동무들과 말하는것이 어울린다.

언어례절에는 또한 낮춤말차림이 있다.

낮춤말차림은 아래사람들에게 하는 말차림이다. 어린 동생이나 아래학년 학생들에게 하는 말차림이 낮춤말차림이다.

낮춤말차림에는 《해라》가 있다.

례하면 소학교 동생에게 《영길아, 빨리 학교로 가거라.》 혹은 낮은 학년 학생들에게 《철식아, 선생님이 너를 찾으신다.》 등은 낮춤말차림 《해라》에 속하는것이다.

반말은 어떤 경우에도 언어례절에 어긋나는것이다.

반말은 지난날 착취계급이 자기 집에 종이나 머슴을 두고 사람취급을 하지 않으면서 짐승을 부르듯이 쓴 나쁜 말이다.

반말은《먹어라》를 《먹어》,《가라》를 《가》,《오라》를 《와》등으로 상대방을 업수이 여기면서 되는대로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같은 또래의 동무들이나 어린 동생들이라고 하여 반말을 망탕 쓰면 그것은 상대방을 멸시하고 모욕하는것으로 된다.

례절에는 언어례절과 함께 행동례절이 있다.

행동례절은 일상적인 행동에서 지켜야 할 례절이다.

사람들이 서로 만나 접촉하는 과정에 상대방에 대한 례절은 말에서뿐아니라 행동에서도 표시된다.

사람들이 서로 만났을 때 오고가는 말이 없어도 그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대한다는것을 느끼며 이러저러한 감정을 가진다.

또 서로 만나면 말을 하지 않아도 그의 차림새와 행동을 보고 그의 사람됨됨을 가늠하게 되며 그가 례절이 있는가, 없는가를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서로 접촉하는 과정에 행동례절은 언어례절 못지 않게 중요하다.

행동례절에는 몸차림자세, 얼굴표정으로부터 몸을 움직이는 모든 행동이 속한다.

행동례절은 문화적인 몸차림과 몸가짐, 부드럽고 겸손한 얼굴표정에서 나타나게 된다.

행동례절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몸차림이다.

몸차림에는 옷차림, 얼굴과 머리단장, 개체위생 등 여러가지가 포함된다.

사람들이 누구와 만나기로 약속하면 얼굴을 깨끗이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자기 옷차림을 살펴보는것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사람들이 옷차림을 되는대로 하고 몸도 거두지 않고 나타나면 불쾌감을 느끼고 초보적인 례절도 없다고 생각한다.

행동례절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몸가짐이다.

몸가짐에는 위치선택과 손동작, 발동작을 비롯하여 사람들과 접촉할 때의 몸움직임이 속한다.

사람들은 몸가짐을 바로할줄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 앉을 자리, 설 자리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비난한다.

몸가짐을 바로하자면 사람을 상대할 때 대상과 정황에 맞게 자기 위치를 선택하고 손동작과 발동작을 례의에 맞게 하여야 한다.

행동례절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얼굴표정이다.

얼굴표정은 사람들의 감정을 나타낸다. 사람의 얼굴은 기쁨과 슬픔, 사랑과 증오와 같은 사상감정은 물론 사람의 깊은 속생각까지도 나타낸다.

사람의 눈이 사람의 마음을 비추어주는 거울이라고 하는것도 사람의 얼굴표정에 그 사람의 마음이 나타나기때문이다.

사람들은 부드럽고 다정한 표정으로 자기를 대할 때 친근감을 느끼고 그런 사람을 례절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아무리 례절있게 말하고 몸자세를 바로하였다 해도 얼굴표정이 시뿌둥하거나 인상을 찡그린다면 례절을 옳게 나타낼수 없다. 그러므로 례절을 지키는데서 얼굴표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학생들은 언제 어디서나 말과 행동을 례절에 맞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명언

《말은 곧 사람이다.》

《지나가는 말처럼 하는 한마디의 말속에 진담이 있을수도 있다.》

복습문제

1. 언어례절이란 어떤 례절이며 어떤 형태가 있는가.
2. 행동례절이란 어떤 례절이며 어떤 형태가 있는가.

제3절. 례절은 사람의 인품을 높인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람의 됨됨은 얼굴이나 외모에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상한 인품을 갖추려고 하며 자기의 인품을 귀중히 여긴다.

인품이라 할 때 그것은 사람의 됨됨을 이르는 말이다.

사람은 인품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수 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인품을 갖추지 못하면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품이 없다거나 인품이 저렬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면 그것을 가장 큰 수치로, 가슴아픈 평가로 여긴다.

사람의 인품은 례절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사람들은 례절이 밝은 사람을 됨됨이 된 사람이라고 하며 례절이 없는 사람을 덜된 사람이라고 한다.

이것은 례절이 사람의 인품을 높여주는데서 가장 중요하다는것을 말해준다.

례절이 사람의 인품을 높여주는것은 무엇보다도 례절에서 그 사람의 문화수준이 나타나기때문이다.

문화수준은 그 사람의 지식정도와 문화적소양, 풍부하고 다감한 감정정서를 담고있다.

례절에는 바로 이러한 문화수준이 나타난다.

지식이 풍부하고 문화적소양이 높은 사람은 말을 한마디 하여도 문화어를 쓰고 고상하게 하며 행동도 례의에 맞게 하지만 문화수준이 낮은 사람은 말을 해도 몰상식하고 쌍스러우며 행동도 거칠고 되는대로 한다.

사람들이 례절이 바른 사람을 속에 든것이 많은 사람, 문명한 사람이라고 높이 보는것은 례절에서 문화수준이 나타나기때문이다.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공중례절을 지키는것을 보아도 문화수준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뚜렷이 나타난다.

문화수준이 높은 사람은 극장에서 질서도 잘 지키고 작품을 감상하면서 주인공의 감정세계에 깊이 잠기고 작품의 사상예술성을 파악하면

서 관람하지만 문화수준이 낮은 사람은 예술작품에 공감하지 못하고 졸거나 옆사람과 말을 한다. 이처럼 공중례절에는 그 사람의 지식정도와 문화적소양 등 문화수준이 나타난다.

례절이 사람의 인품을 높여주는것은 또한 례절에서 그 사람의 도덕품성이 뚜렷이 나타나기때문이다.

사람이 훌륭한 인품을 갖추었다고 할 때 그것은 외모의 아름다움이나 보기 좋은 체격을 두고 말하는것이 아니라 주로 도덕품성이 바른것을 놓고 하는 말이다.

례절에 사람들의 도덕품성이 나타난다.

례절이자 곧 도덕이라고 한다.

물론 도덕에는 례절만 속하는것이 아니다.

하지만 례절이 그만큼 도덕에서 큰몫을 차지하기때문에 사람들은 례절이 밝은 사람은 도덕이 있는 사람, 도덕품성이 바른 사람이라고 한다. 그것은 도덕품성이 어떠한가에 따라 례절상태가 나타나기때문이다.

실례로 겸손한 품성을 지닌 사람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며 겸손하게 례의를 표하지만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를 내세우며 건방지게 말하고 행동한다.

또 도덕품성이 바른 사람은 사람들을 언제나 정직하고 진실하며 뜨거운 인정미를 가지고 대한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례절에 어긋나지 않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이들은 도덕품성을 지닌 사람들이다.

사람들은 례절이 바른 사람은 도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며 고상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

사람의 인품은 자신의 높은 문화수준과 고상한 도덕품성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그것은 례절로 나타난다.

사람들은 례절이 바른 사람을 문화수준이 높은 문명한 사람으로, 도덕품성이 고상한 사람으로 보며 그런 사람을 인품이 높은 사람으로 존엄있게 대한다.

아무리 인품을 높이려고 몸치장을 잘하고 틀을 차려도 례절을 바로 지키지 못하면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인품이 저렬한 사람으로 취급한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때문에 자기의 인품을 여지없이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다.

학생들이 우리 시대 학생의 고상한 인품을 보여주자면 례절부터 잘 지켜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명언

《사람의 가치와 품격은 재물이나 인물, 직업에 의하여 평가되는것이 아니라 사상에 의하여 평가된다.》

《인간의 아름다움은 겉모습에 있는것이 아니라 그의 사상도덕적풍모에 있다.》

복습문제

1. 례절에서 왜 사람의 인품이 나타나게 되는가.
2. 거리에서 웃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례절을 지켜야 하는가.

제4절. 례절은 생활을 화목하게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례절을 잘 지키는것은 사람들사이의 정을 두터이하고 동지적단합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화목한 생활은 사람들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의좋게 사는 생활이다.

례절은 생활을 화목하게 한다.

례절은 우선 사람들사이의 정을 두터이한다.

사람들사이에 정이 두터워진다는것은 친근하고 귀중히 여기는 감정이 오고가면서 믿음과 사랑의 마음이 두터워진다는것이다.

오고가는 정이 있어야 사랑도 화목도 있게 된다.

정으로 맺어지는것이 사랑이고 사랑으로 꽃피는것이 화목이다.

사람들사이에 정이 두터워지면 질수록 사랑은 깊고 공고해지며 사람들은 더욱 화목해진다.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이 있고 주는 정이 있으면 받는 정이 있기마련이다.

례절에는 사람에 대한 뜨거운 정이 담겨져있다.

진실한 례절은 인간적인 정을 서로 주고받는 과정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 과정에 사람들사이는 친근해지고 정은 두터워지며 생활은 화목하게 된다.

례절을 잘 지키면 집안식구들사이에 정도 두터워지게 한다.

우리의 생활은 이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학생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부모들에게 아침인사를 하고 유치원이나 소학교에 다니는 동생들의 등교준비를 말아해주면 가정에는 화목한 분위기가 차넘치게 된다.

어떤 집에는 아침이면 투정질하는 어린이들이 있다.

일찍 깨우면 일찍 깨운다고 투정질하고 늦게 깨우면 학교에 갈 시간이 다되였는데 왜 이제야 깨우는가고 트집을 부린다.

또 어떤 때는 아무 말도 없다가 불쑥 무엇을 달라고 한다.

이런 동생들을 탓하지 않고 잘 보살펴준다면 형제자매간에 정이 두터워지고 가정은 단란해진다.

또 가정에서 집안식구들이 서로 례절을 잘 지키면 혈육의 정은 뜨겁게 오가고 가정생활은 화목하게 된다.

이처럼 례절은 집안식구들사이에 정을 두터이하고 사랑을 꽃피워 생활을 화목하게 한다.

례절을 잘 지키면 집단성원들사이의 정도 두터이한다.

례절이 없이는 집단성원들사이에 정이 통할수 없고 사랑과 화목이 있을수 없다.

학생들이 동무호상간 서로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나누면서 말과 행동을 례절있게 할 때 집단내에는 화목한 생활이 보장된다.

만약 동무호상간 랭랭히 대하고 옥신각신하며 서로 존중할줄 모른다면 집단의 분위기는 흐려지고 집단생활은 즐거움이 없게 된다.

오늘 우리 사회를 놓고 세상사람들이 하나의 대가정과 같다고 하는것은 결국 우리 인민들이 서로 례절을 잘 지키고 화목하게 살기때문이다.

례절은 다음으로 동지적단합을 더욱 공고하게 한다.

물론 동지적단합에서 기본은 사상의 공통성이다.

그렇다고 하여 동지적단합은 순수 사상에 의한 단합이 아니다. 동지적단합은 집단성원들사이에 서로 례절을 잘 지킬 때 더욱 공고한것으로 되게 한다.

례절은 말과 행동을 친근감과 존경심을 가지고 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가깝게 결합시킨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친근하게 대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을 좋아

하며 그런 사람과는 서로 정이 통하고 마음이 통한다고 말한다.

서로 오가는 친근한 감정과 존경심은 믿음을 낳게 하고 뜻도 하나, 마음도 하나로 합치게 한다.

그러나 사람을 친절히 대하지 않고 깔보거나 건방지게 행동하는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지 않으며 그런 사람과는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

동지호상간 례절을 바로 지킬 때 동지적단합은 공고하게 이루어진다.

례절이 바르지 못한 사람에게는 친근한 동지가 있을수 없으며 그런 사람은 집단의 단합에 지장을 주는 사람으로 되고만다.

동지적단합이 있는 곳에는 생활도 화목하다.

단합은 곧 화목이다.

단합이 있으면 지혜를 합치고 서로 돕고 이끌기때문에 사람들사이에는 화목이 이루어진다.

오늘 집단적혁신이 일어나고 대중적영웅주의가 높이 발휘되는것은 마음과 마음이 합치고 힘과 지혜가 합치는 동지적단합이 있기때문이다.

이처럼 례절을 잘 지키는것은 가정과 집단, 사회에서 사람들사이의 정을 두터이하고 동지적단합을 더 공고히 이룩하게 함으로써 생활을 화목하게 한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언제나 례절을 잘 지킴으로써 가정에서나 동무들사이에 더욱 화목하게 생활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명언

《사람들의 생활은 곧 인정관계이다.》

복습문제

1. 례절은 왜 사람들의 정을 두터이하는가.
2. 례절은 왜 동지적단합을 공고하게 하는가.

제2장. 도덕과 수양

제1절. 량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량심은 나라와 민족, 사회와 집단앞에서 자기의 행동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느끼는 마음이다.》

량심은 사회와 집단앞에서 자기 행동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느끼는 마음이다.

개별적사람은 집단의 한 성원이다.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였다면 그것이 집단에 리로운 행동인가 아니면 해로운 행동인가를 가늠해보게 된다.

이때 자기가 한 행동이 집단에 리로운 행동이라면 그 누구의 평가가 없어도 떳떳함과 긍지감을 느끼고 해로운 행동을 하였다면 부끄러움과 수치감, 자책감을 느끼게 된다.

이 마음이 바로 량심이다.

사람은 량심이 있어야 한다.

사람에게 량심이 없으면 그는 사람이라고 말할수 없다. 량심은 사람에게만 있다. 우리는 짐승이 부끄러움을 알거나 량심의 가책으로 고민하는것을 본적이 없다. 사람이 량심을 버리면 짐승처럼 수치감을 느끼지 못하고 악한짓을 하고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게 될것이다.

사람은 량심이 있어야 자기 행동의 옳고그름을 스스로 느낄수 있다.

사람들이 흔히《사람에게 량심만 있으면 언제든지 훌륭한 인간으로 될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 부족점도 있고 과오도 범할수 있지만 자기 행동의 옳고그름을 갈라보고 느낄줄 아는 량심만 있으면 언제든지 그것을 고치고 훌륭한 사람으로 될수 있다는 뜻에서 하는 말이다.

그러나 량심이 없는 사람은 사회와 집단,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도 아무런 가책도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결국 참된 인간으로 될수 없다.

또한 사람은 량심이 있어야 사회와 집단의 리익에 비추어 누가 보

건말건 언제나 사람답게 행동할수 있다.

사람에게 량심이 없으면 아무 행동이나 꺼리낌없이 하게 되고 나중에는 사회와 집단,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악행도 서슴없이 하게 된다.

사람은 매일 량심의 거울앞에서 자기 마음과 행동을 비추어보면서 생활하여야 일생을 깨끗하고 참답게 살수 있다.

혁명적량심은 지난날 사람들이 흔히 말하던 량심보다 고상한 량심이다.

혁명적량심은 개인의 리익보다 당과 인민의 리익, 혁명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지난날 사람들은 사회와 집단,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왔으면 량심적으로 살았다고 생각하였다.

물론 사회와 집단,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려는 마음도 량심이다.

그러나 사회와 집단의 리익을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리익을 짓밟지는 않지만 자신의 리익보다 집단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집단의 리익을 위해 자기 개인의 리익을 희생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의 량심을 가진 사람은 혁명적량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수 없다.

텔레비죤련속소설《석개울의 새봄》에서 나오는 마령감은 일생을 량심적으로 살아온 실농군이다.

그는 누구한테 손해되는 일을 한번도 한적이 없이 깨끗이 살아왔다.

오직 자기의 성실한 로동으로 소출을 많이 내여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려는것이 그의 마음이였다. 하지만 마령감은 협동조합이 조직되자 조합에 선뜻 들려고 하지 않는다.

협동조합에 들지 않는 당시의 마령감의 량심은 자기 개인의 리익보다 사회와 집단의 리익, 혁명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는 혁명적량심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것이다.

혁명적량심은 사회와 집단,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개인의 리익보다 사회와 집단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

기고 당과 혁명을 위해서는 자기의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치는 량심이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리정모편)에서 주인공은 파쑈교형리들이 전향서를 쓸것을 강요할 때 《3분동안만 내 량심을 건사해줄수 없겠소.》라고 야유한다.

이것은 량심이 있는 한 혁명의 길에서 변절할수 없다는 주인공의 선언이다.

주인공이 혁명적량심을 그토록 귀중히 여겼기에 34년의 옥중고초를 이겨내고 혁명을 위하여 그 어떤 동요도 변절도 없이 싸워이길수 있었다.

혁명적량심은 당과 혁명을 위하여, 동지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치는 가장 참다운 량심이다.

그 어떤 사심도 없이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동지들을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칠 마음과 각오를 가진 사람만이 혁명적량심을 지닌 사람이다.

혁명적량심은 일상생활에서 형성되고 실천과정에 공고화되게 된다.

혁명적량심은 그 어떤 생사를 판가리하는 격전장이나 어렵고 힘든 일이 앞을 가로막을 때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높이 발휘되여야 한다.

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신보다 자기 조직과 동무들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며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집단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행동하여야 한다.

이렇게 량심적으로 늘 행동하는 학생이라야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생명도 서슴없이 바칠수 있다.

혁명적량심의 최고표현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다.

혁명적량심이 개인의 리익보다 인민대중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는 량심이라고 한다면 인민대중전체의 리익을 가장 높이 실현시켜주는 수령에게 충실하는것은 혁명적량심중에서도 가장 숭고한 혁명적량심으로 된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유훈을 지켜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을 충직하게 높이 받들어모시는것은 가장 량심적인 행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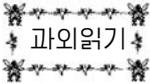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명언

《사람에게 있어서 량심은 심장과 같다.》

《량심은 행동의 거울이며 거짓과 진실을 판결하는 기준이다.》

《량심을 어지럽히는 행동을 하고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단단히 병이 든 사람이다.》

복습문제

1. 혁명적량심은 량심과 어떻게 다른가.
2. 사람은 왜 량심이 있어야 하는가.

거짓말보고는 배신의 첫걸음

항일무장투쟁시기 군정훈련을 진행하던 어느날이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선참으로 훈련과제를 끝냈다고 보고한 중대에 내려가시였다.

중대신입대원들의 훈련정형을 료해하시던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훈련과제를 끝냈다고 한 보고가 거짓보고였다는것을 알게 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그 보고를 올린 청년지휘관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였다.

거짓말이 왜 나쁜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람이 잘못되는 징조이기때문이다.

거짓말이란 원래 자기 허물을 감추고 남을 속여넘기는 행위이다.

사람이란 서로 량심과 량심을 맞대놓고 믿고 의지해서 살게 되여있는것인데 다른 사람은 자기에게 속을 주는데 자기는 량심을 뒤전에 올려놓고 거짓으로 대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악착한짓인가. 더우기 내가 오늘 동무의 거짓말을 용납할수 없었던것은 그것이 배신의 첫걸음으로 되기때문이다.

제2절. 도덕

사람들은 예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도움을 주는 도덕이 있어야 사람이라고 일러왔고 도덕이 없이는 서로 돕고 이끌면서 화목하게 살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덕이 없는 세상은 암흑과 같다.》고 하였다.

참으로 도덕은 사회와 집단을 이루고사는 사람들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도덕은 외적인 강요나 통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량심에 의하여 자각적으로 지켜야 할 사회적행동규범입니다.》

도덕은 량심에 의하여 자각적으로 지켜야 할 사회적행동규범이다.

사회적행동규범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누구나 다같이 지켜야 할 질서, 규칙이다.

사회에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질서와 규칙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사람들이 혼자 사는것이 아니라 사회와 집단을 이루고 공동생활을 하기때문이다. 사회와 집단을 이루고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다같이 지켜야 할 질서와 규칙이 없으면 사회에는 무질서와 혼란이 조성되고 사람들의 공동생활이 이루어질수 없다. 그래서 사회에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이 있게 된다.

사람들이 지켜야 할 사회적행동규범은 참으로 다양하다.

《뻐스를 탈 때 차례를 지켜야 한다.》, 《거리에서 우측통행을 해야 한다.》, 《극장, 영화관에서 떠들지 말아야 한다.》, 《로동을 사랑해야 한다.》 등 사람들이 생활하고 행동하는데는 반드시 지켜야 할 질서와 규칙이 있는데 이런것이 사회적행동규범이다.

도덕이 사회적행동규범이라고 해서 모든 사회적행동규범이 도덕으로 되는것은 아니다.

그것은 도덕이 량심에 의하여 자각적으로 지켜야 할 사회적행동규범이기때문이다.

량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누가 시켜서나 그 어떤 통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스스로 사회적행동규범을 지키게 한다.

량심을 가진 사람은 누가 보건말건 언제 어디서나 사회적행동규범

을 자각적으로 지킨다.

량심이 있는 사람은 사회와 집단, 다른 사람의 리익을 위하여 사회적행동규범을 스스로 지켜나간다.

깨끗한 량심을 지니고 사회적행동규범을 자각적으로 지키는 사람은 도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존경받지만 자기 개인의 리익을 앞세우면서 집단과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사회적행동규범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도덕이 없다고 비난을 받는다.

도덕이 있는 사람이란 량심이 있는 사람이며 도덕이 없는 사람이란 량심이 없는 사람, 개인의 리익만을 앞세우는 사람이다.

사회적행동규범은 량심만이 아니라 외적인 통제나 강요에 의하여 지켜지는 경우도 있다.

강요나 통제에 의하여 지켜지는 사회적행동규범은 도덕이 아니라 법이다.

도덕과 법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사회적행동규범이라는데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서로 다른 점도 있다.

도덕은 량심에 의하여 준수되는 사회적행동규범이라면 법은 국가권력수단에 의하여 준수되는 사회적행동규범이다.

례하면 우리 나라 법에는 얻은 돈 또는 물건을 국가기관에 바쳐야 한다는 규범이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법적책임을 진다는것이 규제되여있다. 만일 돈이나 물건을 얻은 사람이 법적책임이 두려워 국가기관에 바쳤다면 법규범을 지킨것으로 되지만 도덕을 지킨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돈이나 물건을 얻은 사람이 법적책임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는것이 그릇된 행동이며 너절한 일이라는것을 스스로 느끼고 국가기관에 바치였을 때에는 도덕에 의하여 법조항을 지킨것으로 된다.

사회주의도덕은 혁명적량심에 의하여 자각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규범이다.

어느 사회에서나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행동규범은 다 있다. 그러나 모든 사회에 있는 행동규범이 꼭 같은것은 아니다. 매 사회에는 그에 맞는 행동규범이 있다. 봉건사회에는 봉건적인 행동규범이 있고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자본주의적행동규범이 있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는 그에 맞는 행동규범이 있다.

사회주의사회는 근로인민대중이 주인이 된 사회이며 모든 사람들이 동지적사랑과 의리의 관계를 맺고있는 사회이다.

이런 사회에서 사람들이 지켜야 할 여러가지 행동규범중에서 혁명적량심에 의하여 지켜야 할 행동규범이 사회주의도덕이다.

사회주의도덕은 혁명적량심에 의하여 지켜지는 도덕인것으로 하여 집단의 리익을 단순히 존중하는 정도가 아니라 집단과 동지를 위하여 자기 개인의 리익을 바치는 가장 아름다운 도덕으로 된다.

텔레비죤련속극 《백금산》에서는 7호굴착기소대원들의 사회주의도덕풍모를 생동하게 보여준다.

소대장을 비롯한 소대원들은 오직 사회와 집단, 혁명의 리익을 먼저 생각하며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각적으로 모든 애로와 난관을 극복해나간다. 소대원들은 자신보다 소대를 먼저 생각하고 서로 성심성의를 다하며 진심으로 돕는다. 성격이 거치른 류혁이에 대한 소대장과 선동원을 비롯한 소대원들의 믿음과 방조, 먼곳에까지 찾아가서 착암공의 안해를 데려오는 소대장과 그의 안해, 전쟁시기 헤여진 한 소대원의 애인을 끝내 찾아내여 상봉을 마련해준 소대장, 닭곰을 해서 소대원들에게 주는 선동원처녀의 진심, 아픔과 슬픔을 같이 나누고 기쁨과 행복도 함께 하는 그들의 생활, 이 모든 현상이 하나로 결합되여 사회주의도덕이란 어떤것인가를 잘 보여준다.

사회주의도덕은 크게 두 부분으로 갈라볼수 있다. 그 하나는 집단과 개인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덕이고 다른 하나는 개별적사람들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덕이다.

사회주의도덕은 무엇보다도 집단과 개인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덕이다.

여기서 말하는 집단에는 수령, 당, 대중이 속한다.

집단에는 또한 조국과 함께 사회공동의 재부도 속한다. 그러므로 개인은 수령, 당, 대중, 조국과 사회공동의 재부와의 관계에서 도덕을 지킬 때 사회주의도덕을 지키는것으로 된다.

사회주의도덕은 또한 집단에 속해있는 개별적사람들사이에서 지켜야 할 도덕이다.

우리 사회에서 개별적사람이란 혁명동지들을 말한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웃사람이나 동무들, 로인과 애기어머니들, 영예군인과 같은 사람들이 모두 개별적사람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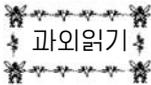
학생들은 집단과의 관계에서뿐아니라 개별적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도덕을 잘 지켜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교시

《돈주머니가 크고 재물이 많아도 인덕이 없으면 세상의 버림을 받는다. 오막살이에서 살아도 인덕이 높으면 많은 이웃을 가지게 되고 뭇사람의 존경을 받는 도덕적인 부자가 된다.》

복습문제

1. 도덕이란 무엇인가.
2. 사회주의도덕은 어떤 도덕인가.

과외읽기

숭고한 도덕의 귀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하실 때였다.

어느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리발을 하시려고 한 일군과 함께 당중앙위원회 구내의 리발소를 찾으시였다.

리발소에는 기다리는 손님이 많았다. 대원수님께서 들어서시자 리발을 하려고 대기하던 일군들은 일어섰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다들 앉으라고 하시며 허물없이 긴의자의 빈자리를 찾아 앉으시였다.

기다리던 일군들은 대원수님의 귀한 시간을 빼앗는것만 같아 리발사를 안타까이 바라보았고 동행한 일군은 리발사에게 대원수님께서 오셨다고 알려주려고 하였다.

그러자 대원수님께서는 리발소에 와서야 기다렸다가 리발을 해야 재미가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시오, 다른 사람들이 다 기다리는데 우리도 제 차례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공중도덕생활질서입니다, 우리라고 례외가 되여서는 안됩니다, 다 바쁘지 지금 한가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라고 하시며 탁자우의 신문, 잡지를 펼쳐드시였다.

이때 리발사가 대원수님께 인사드리며 먼저 리발하실것을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몹시 난처한 기색을 지으시며 정말 이러지들 마십시오, 어디에 가서나 차례대로 순서를 기다리는것은 사회의 공중도덕일뿐아니라 우리 인민들스스로가 세운 하나의 질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라고 그것을 어겨서야 되겠습니까, 리발사동무는 어서 들어가서 하던 리발을 마저 하시오, 그동안 우리는 앉아서 이야기나 합시다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일군들과 담화도 나누고 책도 보시며 차례를 기다리시여 순서대로 리발을 하시였다.

일군들은 그날 사소한 특전과 특혜도 바라지 않으시고 자신을 인민들속에 있는 평범한 한 사람으로 여기시면서 차례를 스스로 지키신 **김정일**대원수님의 숭고한 도덕풍모에 머리를 숙이였다.

제3절. 사회주의도덕은 가장 우월한 도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도덕은 근로인민대중속에서 력사적으로 내려온 우수한 도덕적미풍들을 계승하고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에 따라 새롭게 발전시킨 가장 우월한 도덕이다.》

도덕은 발생한 다음 끊임없이 발전하여왔다.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아름다운 도덕을 창조하였고 계승발전시켜왔다.

그렇기때문에 예로부터 세상사람들은 우리 나라를 으뜸가는 도덕의 나라라고 불러왔다.

사회주의도덕은 바로 우리 인민이 력사적으로 발전시켜온 아름다운 도덕을 계승하고 우리 사회주의사회의 사람들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발전시킨 도덕이다.

사회주의도덕이 가장 우월한 도덕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인간에 대한 참다운 사랑에 기초한 도덕이기때문이다.

도덕이 얼마나 우월한가 하는것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가 대하지 않는가, 사람을 멸시하는가 사랑하는가에 따라 도덕인가 비도덕인가 하는것이 갈라지게 된다.

사람을 소나 말처럼 부려먹는 지주, 자본가놈들에게는 인간의 아름다운 도덕이 있을수 없다.

도덕은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사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다.

인간에 대한 가장 진실하고 뜨거운 사랑은 혁명적동지애이다. 혁명적동지애는 동지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바치는 가장 혁명적인 사랑이다.

사회주의도덕은 인간에 대한 이러한 사랑에 기초한 도덕이다.

그렇기때문에 사회주의도덕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도덕으로 된다.

어느 한 군인민병원에서 있었던 일이다.

뜻하지 않은 사고로 두눈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온 한 청년의 눈을 소생시키자면 다른 사람의 눈에서 구결막을 떼여 이식수술을 하여야만 했다. 이런 환자를 놓고 걱정하고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자 중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게 된 그의 딸이 아버지에게 자기 눈에서 구결막을 떼여 청년의 눈에 이식해줄것을 간청하였다.

자칫 잘못하면 사랑하는 외동딸의 눈을 못보게 만들거나 흠집을 낼수 있는 일을 놓고 아버지는 망설이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어차피 누구의 눈에서든지 구결막을 떼내여 이식수술을 하여야만 청년이 앞을 볼수 있기때문에 안과과장은 딸의 눈에서 구결막을 떼내여 이식수술을 하여 청년이 다시 앞을 보게 하였다.

이렇듯 오늘 우리 사회에서 사람을 위해서라면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떨쳐나서 도와주는것이 보통일로 되고있는것은 사회주의도덕이 가져다준 열매이다.

이런 사회주의도덕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나라에는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이 가시여지고 죽음의 막바지에 이른 사람도 구원되여 누구나 화목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지주, 자본가놈들은 사람보다 돈과 물건을 더 귀중히 여긴다. 지주, 자본가놈들은 돈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만행도 가리지 않으며 사람을 죽이는것도 서슴지 않는다.

남조선에는 《혈액관리협회》라는 기구가 있다. 어느해에는 아홉달동안에 학비를 물지 못해 학교에 못가는 중학생들과 대학생들, 먹을것이 없어 굶주리는 청소년들의 피를 8만 1 629L나 뽑아 미국과 일본, 카나다에 팔아넘겼다고 한다. 사람의 몸에서 한번에 뽑을수 있는 량이 200g이라는것을 고려할 때 그것은 약 40만의 남조선청소년들의 피를 뽑아낸것으로 된다.

이처럼 사람보다 돈을 더 귀중히 여기는 지주, 자본가들에게는 참다운 도덕이란 있을수 없다.

사회주의도덕이 가장 우월한 도덕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집단주의에 기초한 도덕이라는데 있다.

집단주의는 개인의 리익보다 집단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는 사상이다.

원래 도덕은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필요하며 사람들의 사회생활과 집단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것이다.

만일 사회와 집단의 리익을 보장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한다면 사회와 집단의 재산도 자기것으로 만들자고 별의별짓을 다할것이며 자기 리속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게 될것이다.

오늘 자본주의현실이 그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자기만 잘살면 된다는 극단한 개인리기주의가 살판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대낮에도 강도가 떼를 지어 사람들을 마구 해치는 행위가 서슴없이 감행되고있다. 이와는 달리 집단주의에 기초하고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집단을 위하여 자기를 바치는 아름다운 미풍이 끊임없이 발휘되고있다.

자신보다 사회와 집단의 리익, 조국과 혁명의 리익을 먼저 생각하는 청년영웅도로건설자들은 곡괭이와 함마로 바위를 까내고 산을 허물며 맞들이와 마대로 수십만㎥의 흙을 옮겼다.

장마비로 구조물기초타입공사가 위험에 처했을 때는 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여 서로 어깨를 겯고 벽을 쌓아 《사람휘틀》이 되여 구조물기초타입을 끝냈다.

수십년이 걸려야 건설할수 있었던 청년영웅도로는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이러한 집단적영웅주의에 의해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성되였다.

텔레비죤련속극《붉은 소금》에는 중학교를 갓 졸업한 나어린 돌격대원이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그에게 수혈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들은 대대가 밤중에 비상소집을 하여 75리의 밤길을 달려가는 장면이 있다.

동지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안고 달리는 그들의 모습은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도덕의 아름답고 숭고한 면모를 뚜렷이 보여준다.

사회주의도덕이 가장 우월한 도덕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핵으로 하는 도덕이라는데 있다.

수령에게 충실하는것은 최고의 도덕이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리익의 최고대표자이다. 수령은 인민대중을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하고 나라의 주인으로 행복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여주는 은인이다.

그러므로 수령에게 충실하는것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도덕가운데서 최고의 도덕으로 된다.

수령에게 충실하는것을 최고의 도덕으로, 핵으로 하는 도덕은 오직 사회주의도덕뿐이다.

그렇기때문에 사회주의도덕은 가장 우월한 도덕으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은 사회주의조국의 운명이시고 우리 인민모두의 행복의 상징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께서 계시여 우리의 사회주의조국도 있고 인민의 행복도 있으며 밝은 미래도 있다. 그러므로 **김정은**선생님께 충실하는것은 도덕중에서도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도덕으로 된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사회주의도덕의 우월성을 잘 알고 그것을 자각적으로 지킬 때 그 우월성이 발양될수 있다.

학생들은 사회주의도덕을 잘 지켜 그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명언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의무이기 전에 영예이고 량심이여야 하며 의리이고 실천이여야 한다.》

복습문제

1. 사회주의도덕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도덕인가.
2. 사회주의도덕은 왜 가장 우월한 도덕으로 되는가.

제4절. 사회주의도덕과 인간의 아름다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외모나 걸치장은 화려하지 못해도 사상정신적풍모가 훌륭한 사람이 아름다운 인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름다운 인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를 위해 노력한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아름답게 가꾸려고 누구보다 화려한 옷을 입기도 하고 외모를 가꾸는데 관심을 돌리기도 한다.

물론 인간에게서 외모를 단정히 하고 몸차림새도 잘하는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인간의 아름다움은 외모나 걸치레에 있는것이 아니다.

인간의 아름다움은 사상정신적풍모에 있다. 그것은 인간의 아름다움에서 사상정신적풍모가 기본으로 되기때문이다.

예로부터 우리 나라에는《사람에게서 고운것은 얼굴이 아니라 마음이다.》라는 속담도 있고《벗을 사귀려면 재물을 보지 말고 마음을 보라.》는 격언도 있다. 이것은 인간의 아름다움을 외모나 걸치장이 아니라 그의 마음, 사상정신에서 찾아야 한다는것을 말한다.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를 이루는데서 중요한것은 사상과 도덕, 지식이다.

혁명사상과 고상한 도덕, 깊은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를 지닌 아름다운 인간이다.

도덕은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어떤 사람의 사상정신적풍모가 고상하다고 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이 늘 도덕을 잘 지키는것을 두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도덕을 떼놓으면 사람에게서 아름다움을 찾아보기 힘들다.

꽃이 향기로 하여 아름답듯이 인간의 아름다운 향기는 도덕이라고 말할수 있다.

아무리 미끈한 체력과 아름다운 용모를 가지고 화려한 옷차림을 하여도 인사도 할줄 모르고 량심도 의리도 없는 덜된 사람은 곱게 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라도 선생님과 부모님들을 존경할줄

모르고 말버릇이 거칠며 동무들을 존중하고 사랑할줄 모르면 사람구실 못할 덜된 인간이라고 비난을 받게 된다.

그리고 지식이 저 하나의 명예와 돈벌이를 위하여 리용되거나 건장한 체력이 다른 사람을 억누르는데 쓰인다면 그것은 해로운것으로, 비도덕적인것으로 된다.

남조선의 어느 한 병원의 의사놈은 자기가 배운 의술을 사람들의 몸에서 콩팔과 기관지 등 장기를 떼내여 팔아먹는데 써먹었다. 이놈이 사람의 몸에서 떼내여 팔아먹은 콩팔이 무려 4 000여개나 된다고 하니 이놈의 의술이 얼마나 고약하고 잔인하게 리용되였는가를 알수 있다.

이놈도 태여날 때는 다른 사람과 같은 인간으로 태여났을것이다. 하지만 돈에 환장이 되여 도덕을 줴버린 야수로 되여버렸다. 사람이 도덕이 없으면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이처럼 인간의 모습은 고사하고 인간도살자로까지 되여버린다.

인간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인간은 사회주의도덕을 지닌 인간이다.

인간의 아름다움은 사회주의도덕을 소유하고 지켜나가는데 있다. 마치도 나무가 땅속의 자양분과 해빛을 받아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이 고상한 도덕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품성을 지닌 인간으로 되게 한다.

텔레비죤련속극 《붉은 소금》에는 이런 장면이 있다.

극심한 식량난과 횡포한 자연을 맞받아나가는 돌격대원들중에는 중학교를 갓 졸업한 나어린 돌격대원이 있다.

소금밭건설을 끝내고 위대한 장군님을 모실 그날을 그려보며 그는 육체적고통과 배고픔을 이겨가며 쓰러졌다가도 일어서고 일어섰다가도 쓰러지면서 한삽이라도 더 나르려고 애쓴다.

그의 아름다운 정신세계는 그가 쓴 자작시가 잘 보여준다.

한삽 더
한삽 더
내 질통의 무게가 가벼워지면
그만큼 내 마음은 무거워지리
…

나어린 돌격대원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시를 마음속으로 외우며 자신을 이겨나가고 돌격대원들을 고무한다.

우리는 이 텔레비죤련속극에서 나어린 대원만이 아니라 가장 어렵고 시련에 찬 시기에 오직 장군님만을 그리며 소금발건설에 한몸을 서슴없이 바치는 아름다운 인간들을 많이 보게 된다.

그 아름다움은 그들의 겉모습도 아니고 화려한 옷차림도 아니다.

비록 진탕이 묻고 바람에 거칠어진 얼굴들이였지만 그들이 그토록 아름다운것은 사회주의도덕으로 무장하고 시대와 혁명앞에 깨끗한 량심을 바쳐가는 그 정신때문이다.

오늘 우리 사회에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온갖 성의를 다하여주는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이루어져있다. 온 나라에 이런 도덕기풍이 차넘치여 우리의 사회주의사회는 도덕에서도 으뜸가는 아름다운 나라로 되였다.

사회주의도덕은 인간을 아름답게 할뿐아니라 인간관계도 아름답게 하고 사회도 아름답게 한다.

사람이 아름다우면 그들이 맺는 관계도 아름답고 그들이 사는 사회도 아름답기마련이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꽃펴나는 부모없는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고 자식없는 늙은이들의 아들딸이 되며 영예군인의 일생의 벗이 된 청년들, 터지는 수류탄을 한몸으로 막아 동지들을 구원한 군인들의 아름다운 소행에 대한 이야기는 세상사람들을 경탄시킨다.

단발머리처녀시절부터 30여년동안 간호원으로 일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 몸에 있는 피보다 몇갑절 더 많은 피를 바쳐 환자들을 소생시킨 이야기, 어렵고 힘든 초소로 집단진출한 중학교 졸업생들에 대한 이야기 등 실로 사회주의도덕을 지닌 우리 사회의 인간들의 아름다운 소행에 대한 이야기는 헤아릴수 없이 많다.

우리 사회에서 높이 발양되고있는 아름다운 소행에 대한 이야기는 사회주의도덕이 꽃피운 아름다운 대화원이다.

이러한 대화원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사회는 그 어느 사회와도 비길데 없는 가장 아름다운 사회로 세상에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다.

도덕이 썩고 병들면 인간도 사회도 썩고 병들기마련이다.

오늘 자본주의나라들과 사회주의가 무너진 나라들에서는 대낮에 강도단이 떼를 지어 상점을 털고 자식이 아버지앞에 총을 내들고 돈을 빼

앗아내며 죽이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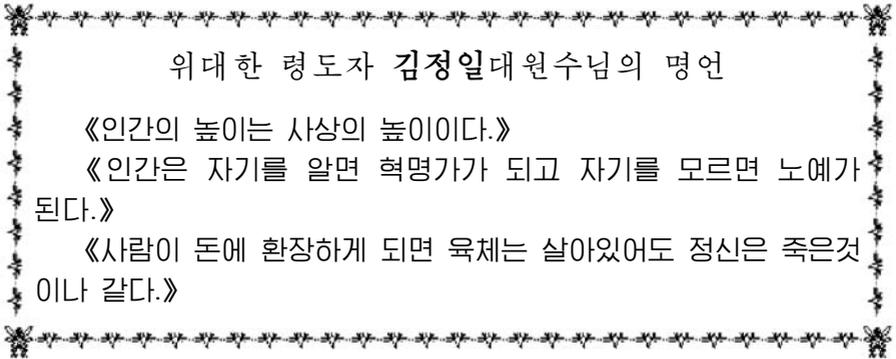
이 모든것은 인간의 아름다움은 도덕에 있고 인간의 아름다움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것은 사회주의도덕에 의하여 지니게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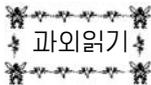
그러므로 학생들은 자신을 사회주의도덕을 지닌 인간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명언

《인간의 높이는 사상의 높이이다.》

《인간은 자기를 알면 혁명가가 되고 자기를 모르면 노예가 된다.》

《사람이 돈에 환장하게 되면 육체는 살아있어도 정신은 죽은것이나 같다.》

복습문제

1. 인간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는가.
2. 사회주의적인간은 왜 가장 아름다운 인간인가.

뜨거운 인간성을 보여주는 증거문건

항일혁명투사 리봉수선생님부부는 항일무장투쟁시기 마창이라는 곳에서 일할 때 발진티브스에 걸린 일이 있었다.

그들은 심한 고열로 해서 움직일수 없게 되였고 어린 아이는 굶어죽게 되였다.

안순화선생님은 굶어죽은 아들애를 파묻으려고 밖으로 기여나가 가둑나무잎을 덮어주었다. 그때 리봉수선생님은 자기도 아들처럼 인차 죽게 될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 순간 그는 혁명동지들이 며칠전에 가져다준 새 옷을 벗어놓고 다음과 같은 유서를 써 그우에 포개여놓았다.

《이 옷은 얼마 입지 않은것이니 유서를 발견하는 동지는 나를 대신하여 입으십시오.》

항일무장투쟁시기 백두밀림속에서 새 옷 한벌을 마련한다는것은 힘든 일이였다. 그러기에 리봉수선생님은 자기는 비록 죽더라도 동지들에게 옷 한벌이라도 주려고 했던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가 남긴 《유서》는 그의 인간성을 보여주는 증거문건으로 남아 사람들을 감동시켰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항일혁명투사들, 혁명가들만이 창조할수 있는 고상하고 뜨거운 인정세계라고 하시였다.

제5절. 도덕수양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누구나 혁명화하기 위하여서는 자체를 꾸준히 단련하고 수양하여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 그러나 마음만 가지고는 훌륭한 사람이 될수 없다.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좋은 교양을 받는것과 함께 수양을 꾸준히 하여야 한다.

원래 수양이라는 말은 자체로 나쁜것을 씻어내고 좋은것을 쌓는다는 말이다.

교양에는 교양하는 사람과 교양받는 사람이 있게 된다. 그러나 수양에는 교양하는 사람도 자신이고 교양되는 사람도 자신이다.

수양은 자기스스로 사상을 개조해나가는 과정, 자체교양과정이다.

때문에 교양을 받는다고 하고 수양을 쌓는다고 한다.

수양에서 중요한것은 도덕수양이다.

도덕수양이란 자신이 스스로 낡은 도덕을 반대하고 고상한 도덕을 소유해나가는 과정이다. 다시말하여 스스로 자신을 고상한 도덕을 가진 인간으로 키워나가는 자체교양과정이다.

학생들이 도덕수양을 쌓는다는것은 학생들자신이 스스로 낡은 도덕을 반대하고 새로운 혁명적도덕으로 무장하며 사회주의도덕품성을 지닌 고상한 인간으로 준비해나간다는것을 말한다.

학생들은 학교와 가정에서 선생님들과 부모들의 교양을 받으면서 도덕품성을 키워나간다.

그러나 이러한 교양만으로는 학생들이 고상한 도덕품성을 다 갖출수 있는것이 아니다.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닌 참다운 인간으로 준비해나가는데서 주인은 어디까지나 학생들자신이다.

학생들은 부모와 선생님들이 주는 교양도 자신이 주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자기자신이 스스로 낡은 도덕을 반대하고 사회주의도덕을 지켜나가야 한다. 그래야 사회주의도덕품성을 소유할수 있다.

이렇게 자신이 주동이 되여 낡은 도덕을 반대하고 사회주의도덕을 체득하고 지켜나가는 과정이 바로 도덕수양이다.

도덕수양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도덕수양은 우선 자신과 자기 행동이 도덕적인가 비도덕적인가를 스스로 가려보고 반성해나가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반성과정은 자기 행동을 량심에 비추어보고 느끼는 과정이다.

그래서 수양을 량심수양이라고 한다.

량심은 마음의 거울이다.

사람이 거울앞에서 자기의 몸차림이 잘되였는가 못되였는가를 비추어보는것처럼 량심에 비추어 자기의 행동이 도덕적인가 아닌가를 가늠해보고 도덕이 없는 행동을 하였을 때는 부끄러움과 후회감, 자책을 느끼는것이 자체반성과정이다.

반성은 비교의 방법으로 하는것이 효과적이다. 자기 주위사람들, 영화나 소설의 주인공들과 비교해보면 자기 행동의 부족점을 잘 알수 있다.

학생들은 반성을 하는 과정에 지나치게 자기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어떤 일을 하나 하고는 큰 일을 한것처럼 생각하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맥을 놓는것과 같은것은 다 수양이 부족한 표현이며 수양하려는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자신을 수양할수 없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자기를 도덕적으로 수양하려면 반성을 옳게 하여야 한다.

도덕수양은 반성에 기초하여 비도덕적행동을 하지 않고 도덕적 행동을 하겠다는 굳은 마음을 가질 때 쌓아진다.

사람들은 자기의 행동을 반성하는데 머물지 말고 비도덕적행동을 절대로 하지 않으며 도덕적인 행동만을 반드시 하겠다는 결심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결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도덕수양을 해나갈수 없고 참된 인간으로 될수 없다.

비도덕적행동을 하지 않고 도덕적행동을 하겠다는 결심을 가진 다음에는 도덕적으로 행동하기 위한 목표와 방도를 세워야 한다.

실례로《나는 성미가 거칠고 동무들을 차겁게 대하는것을 고치고 뜨거운 인정미를 키우겠다. 그러기 위하여 인정미를 가질데 대한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말씀학습을 정상적으로 하겠다.》, 《동무들을 부드럽게 대하며 적극 돕겠다.》 등 수양목표와 방도를 세울수 있다.

도덕수양의 목표와 방도는 머리속에 새겨넣을수 있고 일기장이나 생활수첩에 기록하여둘수도 있다.

도덕수양은 다음으로 자기의 결심을 실천행동에 옮기는 과정에 쌓아지고 공고화된다.

아무리 각오와 결심이 옳고 수양목표와 방도가 옳게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행동에 옮기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 도덕수양은 수양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활동을 통하여 쌓아지게 된다.

그런데 수양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행동과정에는 이러저러한 애로가 있을수 있다. 이런 경우에 이미 세운 목표를 줴버리거나 변경시키면 도덕수양을 쌓을수 없다.

학생들이 도덕수양을 쌓고 공고히 하자면 자기 행동의 부족점이 무엇인가 하는것을 자체로 돌이켜보고 총화해보는것과 함께 의지와 인내력을 가져야 한다.

의지가 약하면 애로를 이겨낼수 없고 애로를 이겨내지 못하면 수양목적을 달성할수 없으며 결국 도덕수양을 제대로 할수 없다. 그러므로 애로가 있어도 인내성을 발휘하여 뚫고나갈 때 도덕수양을 쌓을수 있다.

도덕수양을 위한 실천행동은 한두번 하는것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여러번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도덕품성으로 만들수 있다.

학생들은 자기를 도덕적으로 수양하기 위하여 시간을 아껴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사회주의도덕품성을 지닌 참된 인간이 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명언

《사람은 아는것만큼 보고 듣고 느끼고 받아들인다.》

《모르면서도 아는체하는것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제가 제발등을 찍는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복습문제

1. 도덕수양은 교양과 어떻게 다른가.
2. 도덕수양을 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과외읽기

시간을 어떻게 보고 대하는가

누구나 자기를 수양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공부를 많이 하자면 분초를 아껴가며 열심히 노력하여야 한다.
사람들은 서로 직업이 달라도 모두가 시간을 귀중히 여기고 리용한다.
그럼 그들이 시간을 어떻게 보고 대하는가를 보기로 하자.
교육자: 시간은 곧 지식이다.
과학자: 시간은 곧 지혜이며 능률이다.
철학자: 시간은 곧 진리의 어머니이다.
력사학자: 시간은 곧 공정한 법관이다.
경제학자: 시간은 곧 속도이며 재부이다.
문학가: 시간은 곧 금싸래기이다.
군사가: 시간은 곧 승리이다.
의학자: 시간은 곧 생명이다.
로동자: 시간은 곧 재부이다.
기업가: 시간은 곧 돈이다.
총명한자: 시간을 리용한다.
암둔한자: 시간을 기다린다.
게으른자: 시간을 잃는다.
뜻이 있는자: 시간을 쟁취한다.
뜻이 없는자: 시간을 포기한다.
향학열이 높은자: 시간을 앞당긴다.
한가한자: 시간을 랑비한다.

제6절. 도덕수양방도

중학교시기는 도덕수양을 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도덕수양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따라 앞으로 고상한 도덕품성을 가진 훌륭한 사람이 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이 좌우되게 된다.

도덕수양은 생활의 여러 계기들을 통하여 쌓을수 있다. 그러므로 옳은 방도를 찾아 도덕수양을 하여야 한다.

학습은 도덕수양의 가장 좋은 방도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학습은 혁명가가 자신을 수양하기 위해 반드시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기초적공정이며 사회의 진보와 변혁에 이바지할 밑천을 마련하는데서 단 하루도 중단해서는 안되는 필수적정신로동이다.》

학습은 도덕수양을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할 기초적공정이다.

학습을 통하여 도덕수양에 필요한 밑천, 지식을 쌓을수 있다.

학습을 하는 과정에 교양을 받고 수양도 하게 된다.

수양을 위한 학습은 자체학습이다.

중요한것은 자체학습이 도덕수양과정으로 되게 하는것이다.

학습이 도덕수양과정으로 되게 한다는것은 학습을 사회주의도덕으로 무장하는 과정으로 되게 한다는것이다.

학습이 도덕수양과정으로 되게 하자면 사회주의도덕을 소유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학습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도덕으로 무장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밝혀주신 도덕과 관련한 사상과 리론을 깊이 학습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고전적로작들은 도덕수양의 지침이며 기본교재이다. 로작과 함께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의 위대성도서들을 많이 읽으면서 숭고한 풍모와 덕성을 따라배워야 한다.

또한 사회주의도덕에 대하여 쓴 여러가지 책들을 학습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도덕교과서와 도덕교양참고서, 아름다운 미풍을 소개한 책들, 고상한 도덕생활을 형상한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읽어야 한다.

책을 그저 냅다 읽기만 해서는 수양하는데 소득이 적다. 도덕수양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책을 읽어야 한다.

책읽기가 도덕수양이 되게 하자면 책을 읽을 때나 읽은 다음에 그에 비추어 자기 생활을 반성해보며 배울 점은 무엇이고 경험과 교훈으로 삼을것은 어떤것인가에 대하여 여러모로 깊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책을 읽은 다음 그에 대한 감상을 써놓는것이 필요하다. 감상을 쓰는 과정에 자기를 깊이 돌이켜보게도 되고 경험과 교훈을 찾을수 있으며 도덕적으로 행동하려는 의욕과 각오도 가질수 있다.

책읽기를 생활화, 습성화하는것은 도덕수양에서 매우 중요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3일만 책을 읽지 않으면 벌써 말에 씨가 먹지 않는다는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시였다.

책읽기를 생활화, 습성화하지 않으면 도덕수양을 끊임없이 할수 없으며 책읽기를 그만두는것은 도덕수양을 위한 길동무를 잃어버리는것과 같다.

혁명적조직생활을 통한 수양은 도덕수양을 높이 쌓을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도이다.

혁명적조직생활은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며 도덕수양의 학교이다.

조직생활을 통하여 사람들은 사상적으로 단련될뿐아니라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닐수 있다.

그러므로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은 도덕수양을 잘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

조직생활이 도덕수양과정으로 되게 하자면 무엇보다도 조직에서 진행하는 생활총화를 량심적으로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생활총화에서 자기비판을 량심적으로 하여야 자기 결함을 고칠수 있으며 도덕적으로 수양할수 있다. 또한 호상비판을 성근하게 받아야 한다. 그래야 자기 결함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고칠 결심을 가지게 된다.

이와 함께 다른 동무들이 비판받는것을 들으면서 자기에게도 그런 결함이 없는가를 찾아보고 있으면 고쳐나가야 한다.

조직생활이 도덕수양과정으로 되게 하자면 조직에서 주는 분공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며 그 수행정형을 조직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자기의 량심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도덕수양을 잘 쌓을수 있다.

혁명적실천은 도덕수양의 힘있는 방도이다.

생활과 실천을 떠난 인간의 도덕이란 없다.

말로써가 아니라 생활속에서 행동으로 지켜져야 하는것이 도덕이다.

사람들의 고상한 도덕품성은 일상적인 생활과 실천활동속에서 형성된다.

또한 사람들이 실천활동을 벌리는 과정에 자기의 부족점을 찾고 극복해나가게 된다.

그러므로 혁명적인 실천은 도덕수양의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된다.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 후방부관으로 사업하던 김주현선생님이 엄중한 과오를 범하고 작식대원이 되여 자신을 실천활동으로 단련한 과정은 그것을 실증해준다. 그는 늘 가마를 지고 다니며 작식대일을 하는 과정에 자기가 혁명에 얼마나 큰 손실을 주었는가를 깊이 깨닫고 자신을 많은 사람들속에서 단련할 마음을 다진다. 그래서 그는 동지들이 주는 비판이나 책벌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받아들이였고 비관을 모르고 맡겨진 작식대일을 량심적으로 해나갔으며 짬시간이나 고난의 행군속에서도 학습을 꾸준히 하였다.

그는 이렇게 작식대생활을 통해 자신을 부단히 수양하였기에 후방부관에서 철직된 때로부터 6개월만에 7련대장으로 임명되게 되였다.

학생들의 혁명적실천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사회정치활동이다.

사회정치활동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현실에 적용하는 실천활동이며 사회주의건설에 직접 이바지하는 활동이다.

사회정치활동이 도덕수양과정으로 되자면 그 과정에 지켜야 할 도덕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

군중을 대상할 때 옷차림과 몸단장을 어떻게 하고 말과 행동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것을 알고 도덕을 잘 지켜야 한다.

또한 사회정치활동과정에 우리 인민들속에서 발양되는 아름다운 도덕풍모를 적극 따라배워 자기를 부단히 수양하여야 한다.

일기쓰기는 도덕수양의 효과적인 방법이다.

자기 생활을 량심적으로 기록하는것은 도덕수양을 쌓는데 커다란 도움을 준다.

일기는 생활의 거울이라고 할만큼 자신의 정신도덕상태를 비쳐놓기때문에 그것을 쓰고 읽는 과정에 정신도덕적으로 수양된다.

학생들은 학습과 조직생활, 혁명적실천활동에 적극 참가함으로써 자신을 조직적으로 수양된 참다운 혁명인재로 준비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명언

《책은 말없는 선생이며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길동무이다.》

《남의 소리를 열마디 외우는것보다 똑똑한 자기 소리를 한마디 할줄 아는 그러한 공부가 중요하다.》

《실력은 꾸준하고 정력적인 학습의 열매이다.》

복습문제

1. 도덕수양을 쌓는데서 중학교시기가 중요하다고 하는것은 무엇때문인가.
2. 도덕수양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과외읽기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중학공부를 시작하시면서 세운 독서목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나는 모든 분야의 책을 다 탐독하려고 한다고, 다시말하여 인류가 쌓아올린 지성의 탑을 죄다 톺아오르려고 한다고 하시며 이것이 내가 중학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세운 목표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주체47(1958)년 11월 어느날 **김정일**대원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저택으로 찾아간 한 일군이 서재를 구경한 일이 있었다.

아담한 방의 한쪽 벽에는 책장들이 꽉 차있었다. 거기에는 《**김일성**선집》을 비롯한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들은 물론 철학, 경제학, 력사학, 어학, 법학, 군사도서들과 기계, 금속, 전기, 화학 등 자연과학도서들, 문예도서, 아동도서들이 들쑹날쑹하게 꽂혀있었다.

그 책마다에는 여러가지 색갈의 밑줄과 크고작은 둘레가 쳐있었고 어떤 대목들에는 《?》, 《!》, 《일면성》, 《해명요!》, 《아니다》 등 참고부호와 요약해서 써놓은 종이장들이 가득 끼여있었다.

이렇듯 학습목표를 높이 세우고 공부를 하신 **김정일**대원수님은 인류가 도달한 지식을 모두 다 아시는 위인이시다.

제3장. 도덕품성

제1절. 인간성과 문화성

사람은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녀야 한다.

도덕품성은 도덕규범을 반복하여 지켜나가는 실천활동과정에 그것이 체질화되고 공고화된것이다.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도덕품성에서 인간성과 문화성은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사람은 우선 인간성을 가져야 한다.

인간성이란 인간을 귀중히 여기고 적극 도와주는 품성이다.

인간성은 우선 사람을 뜨거운 인정미를 가지고 아량있게 대하는 품성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람은 인정미가 있어야 합니다.》

인정미는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며 정을 함께 나눌줄 아는 미덕이다.

사람의 인정미는 여러가지로 나타나지만 그중에서 기본은 믿음과 아낌, 정성과 헌신이라고 말할수 있다.

사람이 인정미를 가지고있다는것은 결국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인 인간을 믿고 아끼며 그를 위하여 모든 정성을 다한다는것이다.

혁명영화《조선의 별》 제4부에는 이런 장면이 있다.

생사운명을 판가리하는 창춘(장춘)공작의 어려운 때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염병에 걸려 신음하고있는 박소심을 찾아가시여 그에게 뜨거운 인정을 베푸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쟈쟈툰마을에 있는 박소심의 초막을 찾아가신다.

박소심은 전염병에 시달리여 생에 대한 애착이 식어가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보는 순간 박소심은 반가움을 금치 못하면서도 선뜻 나서기를 주저하며 가까이 오시는것을 만류해나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까이 다가서기를 만류하는 박소심을 만나주시고 초막에 들어가시여 몸소 밥도 짓고 잠자리도 같이 하면서

그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신다.

친혈육도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는 전염병에 걸린 한 인간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인정미앞에서 박소심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혁명에 모든것을 다 바칠 굳은 결심을 다진다.

숭고한 인간미를 보여주는 이 장면은 인간성의 생동한 모범을 가르치고있다.

인간성은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따뜻이 대하는 인정미로부터 출발한다.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을 가늠하여 느낄줄 알고 아파하는것을 풀어주고싶은 마음을 언제나 간직한 사람, 사람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사람이 인정미가 있는 사람이며 이런 인정미를 가진 사람이 인간성이 있는 사람이다.

남의 아픔과 그의 절절한 요구는 못본체 하며 랭랭하고 조폭하게 대하는 사람은 인간성이 없는 사람이다.

인간성은 또한 사람을 적극 도와주는 품성이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마음을 쓰고 성심성의로 돕는것은 인간성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다.

자기야말로 인간성이 있다고 말하며 사람을 대할 때 아무리 다정한 인상과 너그러움을 보여도 진심으로 돕지 않는 사람은 인간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수 없다.

다른 사람의 생명과 생활을 보살피고 그들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여 돕는 사람이 인간성이 있는 사람이다.

뜻하지 않게 걷지 못하게 된 한 학생을 위해서 1학년때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학교에 업고다니며 배워주고 치료해주어 끌내는 걷게 하여 중학교에까지 보내준 사리원시 어느 한 소학교 교원의 소행, 이것은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 높은 인간성을 가진 사람만이 할수 있는 일이다.

무거운 짐을 들고가는 로인이나 애기어머니들을 보면 달려가 짐을 들어주고 동무들속에 어려워하는 일이 있으면 모든것을 다 바쳐 도와주고 풀어주는 학생들은 인간성이 있는 학생들이다.

이처럼 인간성은 사람들의 생활에서 큰 일에서나 자그마한 일에서나 사람을 도와주는데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인간성이 있어야 한다. 인간성이 없는 사람을 참된 인간이라고 말할수 없다.

사람보다 돈이나 물건을 더 귀중히 여기는 착취계급들을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것은 그놈들에게는 조그마한 인간성도 없기때문이다.

사람은 또한 높은 문화성을 가져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생활에서 문화성은 언어와 행동, 외모와 생활환경조성 같은데서 나타난다고 말씀하시였다.

문화성은 사람들의 외형상에서 아름답고 정신생활에서 고상한 품성이다.

걸음걸이와 옷차림을 단정히 하며 모든 일을 깨끗하고 알뜰하게 하며 말과 행동을 고상하게 하고 명랑한 기분으로 생활하는것등은 문화성의 표현이다.

또한 문화성은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를 세우기 위한 모든 활동령역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문화성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는 인간들이 지녀야 할 고상한 품성이다.

사회주의사회는 가장 문명한 사회이다. 그러므로 높은 문화성을 가져야 사회주의사회에 사는 인간의 체모를 갖출수 있으며 사회주의사회가 요구하는 문화생활을 꾸려나갈수 있다.

또한 문화성을 가져야 명랑하고 락천적으로 생활할수 있다.

사람이 문화성이 낮으면 생활이 메마르고 딱딱하며 명랑하게 생활할수 없다.

문화성을 지니자면 우선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여야 한다.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는데서 중요한것은 현대과학기술지식으로 무장하며 특히 콤퓨터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것이다.

그래야만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문화생활을 누릴수 있다.

오늘의 문맹자는 글을 모르는 사람인것이 아니라 콤퓨터를 다룰줄 모르는 사람이다.

콤퓨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능숙히 다룰줄 알아야 많은 과학지식을 습득할수 있으며 문화정서생활을 최상의 수준에서 누릴수 있다.

문화성을 지니기 위하여서는 또한 높은 문화적소양을 가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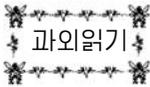
문화적소양은 문학예술에 대한 일정한 안목을 가지고 그것을 즐기고 사랑할줄 아는데서 그리고 생활을 문화도덕규범의 요구에 맞게 해나가는데서 나타난다.

사람들은 높은 문화적소양을 소유하여야 문화정서생활을 잘해나갈수 있으며 명랑하고 락천적으로 생활할수 있다.

학생들은 문화성을 소유하기 위하여 어려서부터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그래야 새 세기가 요구하는 인간으로 자신을 튼튼히 준비할수 있다.

복습문제

1. 인간성은 어떤 품성인가.
2. 문화성은 어떤 품성인가.
3. 인간성이 풍부한 실례를 동무들속에서 찾아보시오.

과외읽기

우리 인민의 풍속과 인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손님을 환대하는것은 조선사람의 장점이라고, 쫓지 않고 재워주는것이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인민의 풍속이고 인심이라고 하시면서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괴춤에 동전 한푼 없는 장돌뱅이도 마음만 먹으면 조선팔도를 무전려행으로 죄다 편력할수 있는것이 저 아득한 삼국시대에서부터 전해내려온 우리 나라의 관례였다. 그래서 단 한번이라도 조선의 려염집에서 손님대접을 받아본 외국인들은 우리 나라를 가리켜 동방례의지국이라고 격찬하였다.》

제2절. 정직성과 성실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정의로운 사람이란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침해하는 온갖 부당한 행위를 증오하며 모든 문제를 편견과 사심이 없이 공정하게 대할줄 아는 공명정대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정직성과 성실성은 사람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중요한 품성이다.

사람은 우선 정직하여야 한다.

정직이라는 말은 거짓이 없이 바르고 곧다는 뜻을 이르는 말이다.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을 참대나무와 같이 곧은 사람이라고 한다.

이것은 정직한 사람이 대바르고 곧다는 의미를 담고있다.

정직성은 모든것을 공정하게 보고 처리하며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행동하는 품성이다.

정직성은 무엇보다도 모든것을 공정하게 보고 처리하는 품성이다.

정직한 사람은 자기 리속을 따져가며 사람들을 대하지 않는다.

정직한 사람은 언제나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한다.

자기와 가깝다고 하여 한쪽만 생각하거나 그 무슨 덕을 보기 위하여 발라맞추는것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

정직성은 또한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품성이다.

솔직한것은 정직성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대통령감을 처음 만났을 때를 회고하시면서 그의 정직성에서 인격높이를 보았다고 하시였다.

대통령감은 위대한 수령님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이룩해놓은것이 없이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며 좌왕우왕하기만 한 기회주의자라고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평생 수천수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만나보았지만 초면에 자기를 기회주의자라고 서슴없이 소개하는 사람은 처음 보았다고 하시면서 꾸밈없는 솔직한 그 몇마디의 말에서 대뜸 반하게 되였고 그의 인격높이를 보았다고 하시였다.

정직성은 이처럼 무한히 솔직한데서 나타나게 된다.

사람은 정직해야 우선 집단과 동지들의 믿음과 사랑을 받을수 있다.

공정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없으며 이런 사람을 누구도 믿지 않으며 더욱 사랑하지 않는다.

사람이 정직하여야 집단이 중요한 과업도 맡겨주고 내세워주며 그런 사람을 유익한 사람으로 귀중히 여긴다.

뿐만아니라 정직한 사람에게는 누구나 속마음 터놓고 그와 가까이 지내려고 한다.

또한 사람이 정직하여야 혁명사업에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다.

사람이 정직하여야 혁명사업의 성과를 과장하지도 않으며 잘못된 일을 남에게 넘겨씌우려고 오그랑수를 쓰지 않는다.

정직한 사람은 언제나 혁명사업에서 나타난 결함과 부족점을 숨기지 않으며 제때에 시정한다.

만일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여 성과를 과장하거나 결함과 부족점을 숨긴다면 혁명사업에 커다란 손실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정직성을 지녀야 한다.

학생들은 우선 동무들을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

자기 리속을 따져가며 동무들을 대하는것은 정직한 행동이 아니다.

학생들은 자기와 가깝다고 하여, 그 어떤 덕을 보기 위하여 어느 한쪽에 기울거나 치우치지 말아야 하며 모든 동무들을 꼭같이 대해주어야 한다.

학생들은 또한 솔직하여야 한다.

학생들은 자기 조직과 집단, 선생님들앞에서 솔직하여야 한다.

자기 조직과 집단, 선생님들앞에서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한다면 그 학생은 정직한 학생이라고 말할수 없다.

학생들이 설사 비판을 받는다 해도 사실을 그대로 말하며 잘못을 다른 동무에게 넘겨씌우는것과 같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학생들은 동무들과의 관계에서도 언제나 솔직하여야 한다.

정직한 학생은 동무들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얼려넘기는것과 같은짓을 동무를 배신하는 수치로 여긴다.

학생들은 부모들과 다른 사람들앞에서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솔직한 사람만이 정직한 사람이며 이런 사람들이 량심적인 사람들이다.

무한히 량심적인 사람만이 무한히 솔직한 법이다. 솔직성은 흰 눈처럼 깨끗한 량심의 반사이며 감춰내지 못하는 량심의 빛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정직한 품성을 지니자면 언제나 량심적으로 말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사람은 또한 성실하여야 한다.

성실성은 성의를 다 바쳐 일하며 진실하게 행동하는 품성이다.

사람이 사업과 생활에서 성실하여야 집단과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성실한 사람은 사회와 집단에 리로운 사람이기때문에 존경을 받지만 건달뱅이나 게으름뱅이는 사회와 집단에 쓸모없는 사람이기때문에 미움과 멸시를 받는다.

사람에게서 성실성은 큰 재부와 같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사람이 성실하여야 모든 일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자면 성실한 품성을 지녀야 한다.

성실하자면 우선 일타발, 조건타발을 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일이 제기되면 그것을 자신의 일로 여기고 묵묵히 받아들이며 온갖 지혜와 정열을 다하여 끝까지 수행하는것이 성실성의 표현이다.

또 조건이 불리하든 유리하든 관계없이 그 어떤 난관도 이겨내면서 맡은 일을 주인답게 해나가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다.

무슨 일이 제기되면 내일네일을 가리면서 요리조리 몸빼기를 하거나 조건타발을 앞세우는것은 성실하지 못하다는것을 드러낸것이다.

성실하자면 또한 사심이 없이 누가 보건말건 꾸준히 일하여야 한다.

성실한 사람은 개인의 리해관계를 따지기 전에 사회와 집단에 리익이 되는 일이라면 자신을 바쳐 일한다.

더우기 성실한 사람은 누가 알아주기를 바래서 눈치를 봐가며 일하거나 평가가 있을것 같으면 열성을 내고 그렇지 못할것 같다면 건성건성 일하는것과 같은 앞뒤가 다른 행동을 하지 않는다.

때문에 성실한 사람은 그 어떤 융통성을 떠들거나 처세술을 모른다.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정직하고 성실한 품성을 갖추어 나라에 쓸모있는 참된 인간으로 준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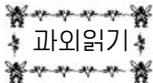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명언

《당앞에, 혁명앞에 무한히 솔직하고 고지식한것은 혁명가의 가장 중요한 기질이다.》

《자기 개인의 리해관계를 놓고 속구구가 많은 사람은 변질될 수 있다.》

《보통때는 좋다가도 어려울 때 달라지는것은 배신이다.》

복습문제

1. 정직성이란 무엇인가.
2. 성실성이란 무엇인가.
3. 어떻게 사는것이 정직한것이고 성실한것인가.

특전을 모르는 유격대하모니카수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제1차베이만(북만)원정에 참가하였던 항일전쟁참가자 홍범선생님은 평양에서 70고령이 될 때까지 살면서 당에 부담을 끼칠가보아 자기가 항일전쟁참가자라는것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그에 대하여 쓰시면서그는 전승분주소에서 수위로 일하고있었다, 집도 소박한 단간방이였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태여난 새 세대의 연주가들이 3칸, 4칸 되는 새 집으로 이사갈 때에도 항일장정의 풍랑속에서 온갖 고생을 다한 유격대하모니카수는 그 단간집에서 사는것으로 만족하였다, 홍범은 그 이상의 특대나 특전을 바라지 않았다, 우리의 항일전쟁참가자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였다라고 회고하시였다.

제3절. 겸손성과 소박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업과 생활에서 항상 검박하고 겸손하며 소탈한 품성을 소유하여야 한다.》

사회와 집단을 이루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겸손하고 소박하여야 한다.

우선 사람은 겸손성을 지녀야 한다.

겸손성은 집단과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자기를 낮추며 사람을 공손하게 대하고 자만하지 않는 도덕품성이다.

원래 겸손하다는 말은 잘난체 함이 없이 태도가 공손함을 이르는 말이다.

겸손한 사람은 웃사람들을 보면 머리를 숙여 깍듯이 인사를 하고 동무들을 부드럽게 대하며 업수이 여기거나 무시하는 행동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또한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업성과나 공로를 인정하고 내세우며 자기를 내세우는 일이 없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업성과나 공로에서 그의 노력과 수고를 헤아리고 그것을 훌륭하고 값높은것으로 인정한다.

겸손한 사람은 또한 자만하지 않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일을 한다.

때문에 겸손성은 자만하지 않는 품성이라고도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겸손한데 혁명가의 참모습이 있다고 하시면서 박달선생님에 대하여 뜨겁게 회고하시였다.

박달선생님은 위대한 수령님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자기는 별로 배운것도 없고 아는것도 많지 못하니 문맹자로 여기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배워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그것은 겸손한 뜻이였다.

사실 박달선생님은 혁명리론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있었다.

박달선생님은 자기 지식을 뽐내지 않았고 지식으로 그 누구를 압도하려고 하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박달은 언제나 자기를 배우는 사람의 립장에 세웠다고 하시면서 바로 여기에 참된 애국자, 참된 혁명가로서의 박달의 참모습이 있었다고 하시였다.

속담에 《잘 익은 이삭일수록 머리를 숙인다.》는 말이 있다.

겸손한 사람은 아는것보다 배울것이 더 많고 한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하면서 자만을 모른다.

하나를 알고도 열을 아는것처럼 뽐내거나 자그마한 성과를 가지고도 이쯤하면 괜찮다고 하면서 큰일이나 한것처럼 우쭐렁거리는 사람은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자고자대》하는 사람,《쑥대우의 민충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비웃는다.

《자고자대》라는것은 누가 인정도 하지 않는데 자기를 높이고 자기 성과를 크게 생각하면서 우쭐렁거리는것을 말하며 《쑥대우의 민충이》라는것은 세상에 자기가 제일인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을 조소하여 하는 말이다.

사람은 겸손하여야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는다. 자기만 잘났다고 우쭐렁거리며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교만하고 건방지게 노는 사람은 사람들의 버림을 받는다.

또한 사람은 겸손하여야 발전하고 혁명사업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겸손한 사람은 허심하고 자만을 모르기때문에 배우고 배우고 또 배우며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 자신을 부단히 채찍질한다.

뿐만아니라 군중을 선생으로 여기고 그들에게서 배우고 허물없이 지내면서 이신작칙한다.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겸손한 품성을 지니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겸손한 품성을 지니기 위하여서는 우선 자기를 제일 잘난것처럼 우쭐대지 말아야 하며 동무들을 깔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

어떤 학생들은 자기가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또 체육이나 예술에 재능이 있다고 해서 우쭐대며 다른 동무들을 깔본다.

어려서부터 이런 버릇이 생기면 겸손한 품성을 지닐수 없다.

겸손한 품성을 지니기 위하여서는 또한 아는것보다 배울것이 더 많다고 생각해야 하며 자그마한 성과에도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이 자그마한 지식을 가지고 안다고 생각하거나 성과에 자만하면 교만하고 건방진 버릇이 생기게 되며 결국 겸손한 품성을 지닐수 없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말을 부드럽고 유순하게 하는데 습관되고 웃사람들과 동무들의 충고나 비판을 허심히 받아들일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겸손한 품성을 지닐수 있다.

사람은 또한 소박성을 지녀야 한다.

소박이라는 말은 본래의것, 가공되지 않은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소박성이라고 할 때 꾸미거나 거짓을 모르는 품성을 말한다.

소박성은 무엇보다도 대중과 담을 쌓지 않고 틀을 차리지 않으며 그들과 허물없이 지내는 품성이다.

예술영화《군당지도원》에서 주인공은 참으로 소박한 사람이다. 그는 농장원들과 허물없이 어울린다.

로인들이 있는데서는 로인들과 어울리고 녀인들속에 들어가서는 그들과 친숙해지고 청년들과는 마음을 같이 하면서 농장에 제기되는 일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앞장에 서서 해제낀다.

농장원들과 담을 쌓지 않고 일도 같이 하고 휴식시간이면 서로 노래도 함께 부르고 춤도 같이 춘다.

그는 군중들앞에서 강연을 해도 농장원들의 구미에 맞게 하고 조그마한 꾸밈도 없이 농장원들과 어울린다.

그의 모습에서는 농장에 지도사업을 나온 지도원이라고 틀을 차리는것과 같은것은 전혀 찾아볼수 없다.

이런 군당지도원이기에 모든 농장원들이 우리 군당지도원이라고 부르며 존경하고 따른다.

소박성은 바로 이렇게 꾸밈이 없이 군중과 한덩어리가 되여 허물없이 어울리는데서 나타난다.

소박성은 또한 검박하게 생활하는 품성이다.

검박한 사람은 걸치레가 없이 생활을 수수하게 한다.

옷을 입어도 혁명하는 시대의 사람답게 깨끗하게 입으며 집을 꾸리고 거두어도 사회주의사회의 생활양식에 맞게 문화적으로 알뜰히 거둔다.

검박한 사람은 사치와 랑비, 허례허식을 반대한다.

검박한 생활은 문화적인 생활이다.

몸단장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옷을 되는대로 입으며 가정생활을 알뜰히 하지 않고 거리와 마을을 거두지 않는 비문화적인 생활은 검박한 생활과 인연이 없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소박하게 생활하자면 옷도 깨끗하고 단정히 입으며 개인의 일상생활에서는 물론 가정과 마을도 알뜰히 꾸리고 거두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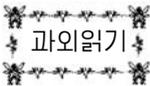
또한 온갖 사치와 랑비, 허례허식을 반대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명언

《사람은 겸손할수록 돋보이는 법이다.》

《위대한 인격은 소박하고 검박한 생활속에서 빛나는 법이다.》

복습문제

1. 겸손성이란 무엇인가.
2. 소박성이란 무엇인가.
3. 겸손한 품성을 지니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4. 소박하게 생활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과외읽기

농민영웅의 감격

온 나라가 건국사상총동원운동으로 들끓던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 올리는 애국미를 싣고 김제원농민이 찾아왔을 때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손수 무거운 벼가마니를 받들어 부리우시고 김제원농민의 옷에 붙은 검부레기까지 말끔히 털어주시고나서 몸소 상을 차려 점심대접까지 해주시였다.

농민은 평양에 와서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워 평생소원은 풀렸지만 김정숙녀사를 뵙지 못하고 가니 섭섭하다고 하면서 만나뵙게 해달라고 청을 드리기까지 하였다.

이 말을 들으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제가 처음부터 맞이하고 벼가마니까지 맞들어드렸는데 또 인사를 올려야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며 밝게 웃으시였다.

놀라움과 송구함을 금치 못하던 농민은 《저의 실수를 용서하십시오. 낟알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사람은 위인일수록 겸손하다 하더니 과연 그 말이 녀사를 두고 이르는 말인것 같습니다.》라고 감격에 겨워 말씀을 올리였다.

제4절. 순박성과 청렴결백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 혁명선배들과 동지들에 대한 고상한 도덕의리심,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 근면성과 순박성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품속에서 교양되고 육성된 조선청년들의 특질입니다.》

사람은 우선 순박해야 한다.

순박성은 깨끗하고 유순하고 거짓을 모르는 진실한 품성이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어리무던한 사람을 놓고 순박한 사람이라고 한다.

순박성은 이와는 인연이 없다.

순박한 사람은 거짓을 모르고 순결하고 진실한 사람이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로동계급편)에 나오는 진응산이야말로 참으로 순박한 사람이다.

진응산은 순진하기로 이를데 없고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좀처럼 성내는 일이 없다.

모든 사람을 어렵게 대하고 거짓이란 전혀 없는 진실한 사람이다.

용해공선발시험을 칠 때 강옥이가 그에게 남조선에 있을 때 용해공을 하였다고 하라고 부추긴다. 하지만 진응산은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는가고 하면서 망설인다.

그러나 그는 용해공이 되여 은혜로운 조국에 보답하려는 불타는 열망으로 강옥이의 권고를 받아들여 남조선에 있을 때 용해공을 하였다고 한다.

용해공선발시험장에서 불합격이 되자 그는 시험관 강태섭로장에게 자기가 남조선에서 용해공을 하였다는것은 거짓말이였다고 용서를 빌며 꼭 용해공으로 선발해줄것을 간청한다.

그후 밤을 밝혀가며 던져넣기훈련을 하는 그의 모습과 곡절많은 생활속에서 천리마운동의 선구자로, 로력영웅으로 성장하는 과정은 순박한 사람의 깨끗하고 고상한 참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사람은 순박성을 지녀야 한다.

사람이 순박한 품성을 지녀야 다른 사람들로부터 믿음을 받을수 있

으며 순박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반역의 구렁텅이에 떨어진다.

텔레비죤련속소설《석개울의 새봄》에 나오는 박병천이야말로 순박성이란 전혀 없는 인간이다.

박병천은 일하기 싫어 건달을 부리면서 거짓말을 하고 쩍하면 싸움질을 하고 사람들사이에 리간을 조성시키는가 하면 협잡질을 하고 남을 등쳐먹는짓만 일삼는다.

박병천의 운명이 보여주는것처럼 나중에는 반동의 구렁텅이에 떨어지고만다.

순박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거칠지 않고 점잖고 고상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순박한 사람은 말을 망탕 하지 않으며 사람들과 쩍하면 대들고 싸우는 거치른 행동을 하지 않는다.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유순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행동하며 그 어떤 에누리가 없이 사회와 집단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지킨다.

순박한 사람은 사회질서와 공중도덕의 요구대로만 생활해나간다.

때문에 순박한 사람은 망나니짓, 날라리짓을 하지 않으며 언제나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말한다.

순박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쩍하면 대들고 싸움질을 하며 멋부리기를 좋아하고 야비하고 쌍스럽게 말하고 행동한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순박하지 못하다고 비난한다.

순박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또한 동지들을 진심으로 믿으며 말과 행동에서 까다롭지 않고 부드럽게 행동하여야 한다.

생활과정에 간혹 선입감을 앞세우면서 동무들을 잘 믿지 않고 자기속을 잘 주지 않는 사람, 까다롭고 까박을 붙이기를 좋아하거나 차게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순박하지 못한 사람이다.

학생들은 깨끗하고 유순하고 거짓을 모르는 순박한 품성을 지녀야 한다.

사람은 또한 청렴결백하여야 한다.

청렴결백이란 탐욕이 없는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가리켜 하는 말이다.

청렴결백성은 량심에 꺼리는것이 없이 생활을 깨끗하고 고상하게 하는 품성이다.

청렴결백성은 무엇보다도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않는데서 나타난다.

청렴결백한 사람은 탐욕이 없고 일한것만큼 받고 차례지는것만큼 가지고 량심에 꺼리끼는 일이 없이 깨끗하고 정정당당하게 생활한다.

청렴결백성은 또한 남보다 특별한 대우와 혜택을 바라지 않는데서 나타난다.

특혜와 특전은 그자체가 부정의이며 비도덕적인것이다.

그것은 특혜와 특전이 자기가 받아야 할것보다 지나친 혜택이나 더 많은것을 요구하는것이기때문이다.

특혜와 특전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를 특수한 존재로 내세우는 태도이며 다른 사람의 리익을 침해하면서 자기만 잘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개인리기주의이다.

청렴결백한 사람은 자기를 특수한 존재로 내세우지 않는다.

해방직후 위대한 수령님의 과업을 받고 경제사업을 위하여 여러 지방을 다니던 김책선생님이 어느 한 광산에 이르렀을 때이다.

그때만 하여도 지난날 낡은 관습이 완전히 가셔지지 못한데로부터 그곳 광산일군들이 중앙에서 간부가 내려왔다고 하여 송아지를 잡아 식사를 차렸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책선생님은 낯색을 달리하며 그곳 일군들을 준절히 타일렀다.

《동무들이 간부가 왔다고 이렇게 해서 됩니까? 생각해보시오.

김일성장군님의 덕분으로 나라가 해방되여 토지분여를 받은 우리 농민들에게 소 한마리가 얼마나 귀중한 때입니까?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인민들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것으로 됩니다.》

김책선생님은 그길로 떠나 평양으로 오다가 길가에 차를 세우고 가지고갔던 주먹밥으로 식사를 하였다.

이렇게 청렴결백성은 남달리 특별한 대우와 혜택을 바라지 않는데서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청렴결백한 사람은 또한 뢰물행위를 가장 너절한 일로 여기고 그것을 반대한다.

뢰물행위는 아부와 아첨이고 진심이 없이 상대방을 돈이나 물건으로 녹여내여 자기 리속을 채우는 행위이며 공짜를 탐내는 비도덕적인 행위이다.

뢰물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다 같이 청렴결백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사람이 청렴결백하지 못하면 뢰물을 좋아하고 나중에는 자신을 망친다.

《뢰물은 숨통을 조인다.》는 말이 있다.

나쁜놈들에게 매수되고 리용당한 사람들은 례외없이 뢰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청렴결백하여야 한다.

청렴결백하자면 우선 동무들의 물건을 탐내지 말아야 한다.

또한 남들보다 특별한 물건을 가지고싶어하고 색다른 옷을 입고 쓰는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물욕과 허례허식은 사람의 량심뿐아니라 인간의 정신과 육체까지도 해치게 된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물욕을 모르는 청렴결백하고 깨끗한 마음을 지닌 훌륭한 인간으로 자라나야 한다.

복습문제

1. 순박성이란 무엇인가.
2. 청렴결백성이란 무엇인가.
3. 사람은 왜 순박하고 청렴결백해야 하는가.

어려서부터 돈맛을 알기 시작하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린시절을 회고하시면서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나는 어렸을 때 돈을 모르고 살았다. 우리 아버지는 한평생 자식들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 학습장이나 연필을 사는것도 어머니에게 맡기고 나를 상점이나 장마당 같은데 드나들지 못하게 하였다. 어려서부터 돈맛을 알기 시작하면 사람이 자라서 수전노가 되고 조국도 모르고 민족도 모르는 속물로 될수 있다는것이 돈과 관련된 아버지의 지론이였다.》

제5절. 용감성과 대담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영웅적으로 살며 영웅이 되는것은 자주적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값있고 보람찬 삶으로, 가장 높은 영예로 됩니다.》

영웅이 되려는것은 중학시절에 누구나 다 가지고있는 포부이다.

항일의 영웅들의 모습에 자기를 세워보기도 하고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전투영웅들과 오늘의 청년영웅들의 모습에서 자기를 그려보기도 한다.

영웅이 되려는 학생들의 포부는 참으로 훌륭하고 귀중한것이다.

장차 영웅이 되려면 학생시절부터 용감하고 대담한 품성을 키워야 한다.

용감성과 대담성은 영웅의 가장 중요한 기질이며 품성이다.

사람은 우선 용감성을 가져야 한다.

용감성은 어려움이나 두려움을 모르고 희생적으로 투쟁하는 의지적 품성이다.

용감성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정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서슴없이 바쳐싸우는 고상한 품성이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월미도방위자들은 참으로 용감한 사람들이였다. 특히 월미도의 방어임무를 받은 리대훈해안포중대원들은 4문의 포와 한개 중대인원으로 수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대비도 되지 않는 5만대군의 적들과 수많은 비행기, 함선들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조그마한 두려움도 몰랐다.

그들은 우박치는 포탄과 총탄속에서 그리고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은 비행대의 폭격을 받았지만 멸적의 기세높이 적들에게 된타격을 안기였다.

적들이 달려들면 포화력으로 적을 족치고 적들이 물러서면 무너진 진지를 보수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사랑하는 고향에 대한 이야기도 즐겁게 나누었다.

총탄도 포탄도 다 떨어지고 전우들도 희생되여 몇사람이 남은 마지막 순간 리대훈중대장과 몇명의 대원들은 반땅크수류탄과 보병삽을 들고 그대로 육탄이 되여 달려드는 적들과 결사전을 벌렸다.

불사신 같은 그들의 모습은 용감한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이며 용감성은 조국과 인민, 혁명앞에 불멸의 공적을 세운다는것을 잘 알수 있게 한다.

용감성은 난관앞에서 공포감을 이겨내게 하고 일에서 성공을 확신하게 한다. 그러므로 용감성을 지닌 사람은 그 어떤 위험도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고 온갖 난관을 뚫고 용기백배하여 투쟁하며 승리한다.

용감성은 무엇보다도 희생성과 헌신성에서 나타난다.

희생성은 그 어떤 위험앞에서도 위구와 공포를 모르고 죽을지언정 굴하지 않으며 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한생을 바치는것을 가장 큰 영예로 여기고 모든 시련을 뚫고나가는데서 나타난다.

헌신성은 자기 한몸을 바쳐나서서 혁명임무를 끝까지 수행하는데서 나타난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리수복영웅은 자기의 한몸으로 적의 화구를 막아 부대의 돌격로를 열었다.

오늘 높은 희생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당이 준 혁명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는 수많은 영웅들과 혁신자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용감성을 지닌 사람들이다.

학생들이 자기가 맡은 학과학습에서 높은 정열을 발휘하여 그 어떤 어려운 학습문제도 끝까지 수행하고 조직과 집단이 주는 과업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것이라고 하여도 두려움이 없이 받아들이고 끝까지 수행하는것은 다 헌신성이다.

이처럼 헌신성은 용감성의 표현이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할수 없다고만 생각하고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것은 용감성이 없는 비겁한짓이다.

용감성은 또한 언제나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는데서 나타난다.

용감성은 생사를 판가리하는 준엄한 결전장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는데서도 나타나게 된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어렵고 힘든 초소에 탄원하는 청년들의 소행도 용감성의 발현이다.

학생들이 사업과 생활에서 그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제기되면 자기에게 맡겨달라고 나서며 그런 일에 서슴없이 앞장서는것은 용감성이다.

개인의 이름을 날리기 위하여 그 어떤 어려운 일에 뛰여들거나 아무런 타산도 없이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용기를 발휘하는것은 용감성이 아니다.

용감성은 당과 혁명을 위한 정의로운 일에서 높은 희생성과 헌신성을 발휘하며 사회와 집단, 다른 사람을 위하여 두려움없이 뛰여들어 끝까지 수행하는데서 발휘되는 고상한 품성이다.

사람은 또한 대담성을 가져야 한다.

대담성은 어떤 곤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이 크게 행동하는 품성이다.

대담성은 우선 결단성있게 행동하는데서 나타난다.

결단성은 결심을 제때에 채택하며 그것을 주저없이 실천에 옮기는 품성이다.

결단성있는 사람은 조성된 정황이 요구하는 순간에 제때에 결심하고 행동한다. 이런 행동이 대담한 행동이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있은 일이다. 적후정찰을 나갔던 3명의 정찰병은 한개 중대가량되는 적들과 맞다들게 되였다.

이때 분대장은 적들이 패잔병이라는것을 제때에 간파하고 몽땅 사로잡을 결심을 단호히 가졌다.

《중대 일체 사격준비!》

이렇게 구령을 친 분대장은 적들에게 《너희들은 포위되였다. 총을 버리고 투항하면 목숨은 살려준다.》라고 소리쳤다.

적들은 자기들이 포위된줄만 알고 총을 버리고 한놈한놈 손을 들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되여 3명으로 한개 중대의 적을 몽땅 생포하였다.

이처럼 조성된 정황을 민첩하게 판단하고 결단성있게 행동하는것이 대담성이다.

대담성은 또한 통이 크게 행동하는데서 나타난다.

대담하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소심하고 동요하며 쬐쬐하게 생각하고 무슨 일에서나 씨원스럽고 통이 크게 하지 못한다.

대담한 사람은 어떤 일에서나 통이 크게 생각하고 높은 목표를 내세운다.

학생들이 대담성을 지니자면 통이 크게 학습목표를 세우고 이악하게 달라붙어 결단성있게 실천해나가야 한다.

투쟁목표를 높이 세우는 학생은 언제나 높은 열의를 가지고 자기

힘을 최대한으로 발동하게 되여 대담성이 생기게 된다. 그러나 대담하게 높은 목표를 내세우지 않는 학생은 자기 힘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지 않으며 이악하게 공부하지 않는다. 그러니 대담성이 생길수 없게 된다.

용감성과 대담성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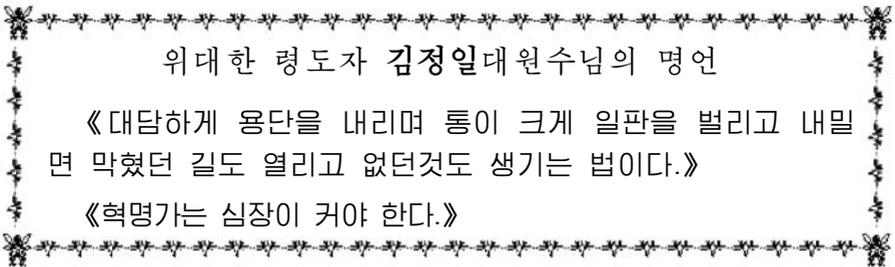
용감성과 대담성을 지니자면 높은 사상적각오와 실력과 함께 육체적으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사상적각오가 높지 못하고 실력이 없으면 모든 일에서 주저와 동요, 우유부단성이 생기게 되고 모든 일을 용감하고 대담하게 해내지 못한다. 또 육체적으로 허약하면 소심해지고 겁부터 생기며 용감하고 대담해지지 못한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용감하고 대담한 사람이 되기 위해 높은 사상적각오와 실력, 육체적준비를 튼튼히 갖추어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명언

《대담하게 용단을 내리며 통이 크게 일판을 벌리고 내밀면 막혔던 길도 열리고 없던것도 생기는 법이다.》

《혁명가는 심장이 커야 한다.》

복습문제

1. 용감성이란 무엇인가.
2. 대담성이란 무엇인가.
3. 용감하고 대담한 품성을 지니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4장. 동지애와 혁명적의리

제1절. 사랑의 뜻

사랑을 떠나서 아름다운 인간과 행복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사랑에 대하여 자주 말하고 사랑을 받는것을 행복으로, 사랑을 주는것을 긍지로 여긴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련한 인간은 사랑할줄도 모르고 누구의 사랑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한평생 고독속에서 헤매이다가 인생을 끝마치게 된다. 그래서《사랑하기때문에, 사랑을 받기때문에 사람은 산다.》는 말도 있다.

사랑은 믿고 귀중히 여기며 진실로 돕는것이다.

사랑은 무엇보다도 믿고 귀중히 여기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믿음은 사랑과 의리를 낳는 정신적원천입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은 사람을 믿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사람은 믿음이 가는 사람, 믿을수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 믿을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은 없다. 또 믿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는것은 있을수 없다. 믿지는 않지만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사랑은 믿음뿐아니라 귀중히 여기는것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것으로 된다. 동무를 무시하는것은 곧 동무를 사랑하지 않는것이다.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은 사람을 아끼는 마음에서 나타난다.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아끼기 마련이다. 그렇기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을 아끼는 마음이라고 한다. 동무를 아끼는 사람이 동무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믿고 귀중히 여기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을 믿고 귀중히 여기는가 하는것이다.

사람에게 있는 돈이나 물건을 보고 그것이 귀해서 사랑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에 대한 참다운 사랑이 아니다. 돈이나 물건은 사람을 대신하지 못한다. 돈이나 물건보다 귀중한것은 사람이다. 사람을 보고

사람을 믿고 아끼는것이 인간에 대한 사랑이다.

돈과 물건을 탐내는 사람에게는 인간에 대한 참다운 사랑이 있을수 없다. 지주, 자본가놈들은 돈을 보고 《사랑》관계를 맺으며 돈을 위해 인간에 대한 사랑을 짓밟는다.

인간에 대한 사랑에서의 믿음은 인간자체에 대한 믿음이다. 사람에 대한 믿음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사람의 마음, 사상이다. 그리고 귀중히 여기는것도 그 사람의 좋은 마음과 사상이다.

사람의 됨됨은 그 사람의 마음, 사상에 의하여 규제된다. 마음이 곱고 사상이 좋으면 참된 사람이라고 하지만 마음이 악하고 사상이 나쁘면 덜된 사람, 인간쓰레기라고 한다.

사람의 마음과 사상을 믿고 그것을 귀중히 여기는것이 바로 인간에 대한 사랑이다. 마음과 사상이 나쁜 사람과는 사랑관계를 맺을수 없다.

좋은 마음과 사상을 믿는 사랑이라야 참되고 공고한 사랑으로 된다.

마음이 달라지고 사상이 변하면 사랑도 변한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장담하던 남녀간의 사랑과 친구간의 우정도 어느 한쪽이 사상적으로 변질되면 금이 가기 마련이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과 사상을 믿고 귀중히 여기는 사랑이라야 참되고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것을 보여준다.

사랑은 다음으로 진실로 도와주는것이다.

사람을 믿고 귀중히 여기는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것은 실지로 도와주는것이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지로 돕지 않는것은 사랑이 아니다.

사람들은 생활과정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기도 한다.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사랑으로 되는것은 아니다.

그 어떤 리속도 없이 성심성의를 다하여 진실로 돕는것이 사랑이다.

그 어떤 대가를 바라고 도움을 주었거나 그 어떤 리속이 있어서 도움을 주었다면 그것은 진실로 사랑하는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사랑은 어머니사랑이라고 한다.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이 그 어떤 대가도 모르는 사랑이기때문이다. 어머니들은 추우면 추울세라 더우면 더울세라 자식들을 극진히 돌보며 그들이 잘되기를 바란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려는것이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다. 하지만 어머니들은 자식들에게서 그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으며 오직 자신을 바치기만 한다.

이처럼 그 어떤 대가도 모르며 성심성의를 다하여 진실로 돕는것이 사랑이다.

도움은 사랑하는 사람이 잘되기를 바라며 그가 힘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돕는것이다.

그릇된 길을 걷는것을 떠밀어주거나 나쁜 행동을 도와주는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을 진탕속에 밀어넣는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눈먼 사랑》이라는 말도 있고《눈먼 사랑은 벗을 망치게 한다.》는 속담도 있는것이다.

힘있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아름답고 고상한 인간으로 되도록 온갖 성의를 다하여 돕는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이처럼 믿고 귀중히 여기며 진실로 돕는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여 아무 사람이나 다 사랑해야 된다는것이 아니다.

반동적인 사상을 가진자들, 계급적원쑤들을 절대로 사랑할수 없다.

사랑할줄 아는 사람은 증오할줄도 알아야 한다.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불행을 주는 악한 행위를 증오하는것이 사랑의 감정으로 되고 그를 반대하여 견결히 싸우는것이 인민대중에 대한 사랑으로 된다.

그러므로 계급적원쑤들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할 때 혁명적인 사랑을 지닌 사람으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명언

《정을 정으로 보답하는것은 인간의 미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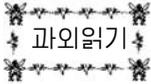
《인정미는 인간을 무한히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뜨거운 심장속에 있다.》

《인정이 없는 사람은 향기없는 꽃이고 잎이 없는 나무나 다름없다.》

《사랑은 남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 마음이다.》

《믿음은 벗을 얻고 의심은 벗을 잃는다.》

복습문제.

1. 사랑이란 무엇인가.
2. 진실한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대가를 모르는 사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강반석어머님의 사랑에 대하여 회고하시면서 어머님의 사랑은 참된 사랑, 혁명적인 사랑이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이 세상에서 어머니의 사랑처럼 따뜻하고 진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은 없을것이다. 꾸짖어도 매질을 해도 아프지 않은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며 자식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는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다. 그 사랑은 대가를 모른다.》

제2절. 혁명적동지애는 가장 귀중한 사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랑에는 부모의 사랑, 처자의 사랑, 친구의 사랑과 같은 여러가지 사랑이 있지만 동지의 사랑보다 더 귀중하고 값높은 사랑은 없습니다.》

동지는 사상과 뜻을 같이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혁명투쟁을 함께하는 사람이다. 동지라는 말은 단순히 고향친구나 동창생과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사상과 뜻을 같이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함께 투쟁하는 사람을 가리켜 동지라고 한다.

혁명의 길에 나선 사람들에게 가장 귀중한것은 동지이다.

집에서는 부모에게 의지하고 대문을 나서서는 벗들에게 의지하라는 말이 있듯이 혁명의 길에 나선 사람들에게는 동지가 부모형제보다 더 귀중하다.

그래서 팔백금으로 집을 사고 천금으로 이웃을 산다고 했지만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것이 동지라고 한다.

혁명적동지애는 혁명동지를 가장 귀중히 여기며 동지를 위하여 자기의 한목숨을 서슴없이 바치는 가장 뜨겁고 열렬한 사랑이다.

어느 한 광산에서 있은 일이다.

광석을 가득 실은 광차가 언덕받이로 오르다가 그만 쇠바줄이 끊어지면서 밑으로 굴러내리기 시작하였다.

지하막장에서는 한개 소대의 광부들이 일하고있었다.

굴러가는 광차를 그냥 놔두면 지하막장에서 일하는 동무들의 생명이 위험한것은 물론 광차가 안벽에 부딪쳐 지하물주머니까지 터치면 막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살아나기 힘들다.

선로정비를 하다가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25살의 청년이였다. 그는 쏜살같이 굴러내리는 광차를 보는 순간 눈앞이 아찔하였다.

(갱속에 동무들이 있다.) 머리에서 번개치듯 이런 생각이 떠오른 순간 그는 주저없이 굴러내리는 광차바퀴밑에 몸을 던졌다. 순간 레루에서 탈선된 광차는 서로 부딪치며 나딩굴었다.

갱속에서 일하던 동무들과 여러 동무들이 달려왔을 때는 이미 피투성이 된 청년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있었다.

《갱속의 동무들이…》

동무들이 무사하다는것을 안 청년은 만족한듯 미소를 지은채 숨을 거두었다.

동지애는 이처럼 동지를 자신보다 더 귀중히 여기며 동지를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는 가장 헌신적인 사랑이다.

혁명적동지애는 사랑중에서도 가장 귀중한 사랑이다.

사랑에는 부모의 사랑, 처자의 사랑, 친구의 사랑 등 여러가지 사랑이 있다.

물론 부모의 사랑도 귀중하다. 사람들은 부모의 사랑속에 어린 시절을 보낸다. 어린시절에 가장 소중한 사랑은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며 이 시기에는 그 어떤 사랑도 부모의 사랑을 대신하지 못한다.

그러나 혁명의 길에 나선 사람에게서 가장 귀중한 사랑은 동지적사랑이다.

동지적사랑이 가장 귀중한 사랑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영생하는 삶을 주는 사랑이기때문이다.

육체적생명을 준 어머니의 사랑도 귀중하고 친구의 사랑도 귀중하다. 그러나 어머니와 친구의 사랑이 귀중해도 그것은 영생하는 삶을 주지 못한다.

영생하는 삶을 주는 사랑은 혁명적동지애이다. 혁명적동지애는 동

지가 곁에 있거나 곁을 떠났을 때에도 조직과 집단이 영원히 추억하며 심장속에 간직하는 사랑이다.

동지를 구원하고 희생된 류경남영웅이 생활하고있던 중대의 병실, 그의 침대앞에는 《공화국영웅 류경남》이라는 글발이 새겨져있으며 그 병실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를 추억하며 그와 숨결을 같이한다.

저녁점검시간이면 사관장이 그의 이름부터 먼저 부른다.

《공화국영웅 류경남동지》

《공화국영웅 류경남동지는 초소근무중 동지들을 구원하고 장렬하게 희생되였습니다.》

그가 속해있던 분대장의 대답이다.

그는 비록 희생되였지만 그가 동지들에게 바친 삶은 영생하고있다. 류경남영웅의 이름은 중대의 모든 군인들의 심장속에만 살아있는것이 아니다. 전체 군인들과 온 나라 인민들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되여있으며 조국의 참된 아들로 불리워지고있다.

당과 조국은 혁명동지를 위하여 생명을 바친 사람들을 공화국영웅으로 내세워주며 그들이 다니던 학교는 영웅의 이름으로 불리우게 하고있다. 동지를 위한 그들의 희생성은 신문과 방송, 책으로 널리 소개되고 영화화면에도 옮겨지며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져도 언제나 혁명위업과 더불어 길이 전해진다.

동지적사랑이 가장 귀중한 사랑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숭고한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맺어진 사랑이기때문이다.

리상은 사람들이 앞으로 달성하려는 생활의 최고목표이다.

리상은 사람들의 생활에서 참으로 중요하다.

《참된 인간은 현재에만 사는것이 아니라 리상에서 산다.》는 격언이 있듯이 사람에게 리상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

리상이 사람의 인생에서 중요한것만큼 사람들은 리상을 귀중히 여기고 실현해나가는 길에서 서로 사랑을 맺는다.

얼마나 귀중하고 고상한 사랑인가 하는것은 얼마나 고상한 리상을 가지고있는가에 달려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숭고한 리상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유훈,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조국을 사회주의강성국가로 건설하기 위하여 자신을 바치려는데 세워진 생활의 목표이다.

이런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길에서 서로 아끼고 돕는 사랑이 동지애이다.

그렇기때문에 동지애가 가장 숭고한 사랑으로 된다.

사람들의 사랑이 조국과 인민, 당과 혁명과 관계없이 맺어진다면 별로 의의가 없다. 조국의 륭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당과 혁명을 위하여 한생을 빛내이려는 숭고한 리상으로 결합되고 그것을 실현해나가는 투쟁속에 꽃피는 사랑만이 가장 귀중하고 값높은 사랑이다.

예술영화 《줄기는 뿌리에서 자란다》에서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갱신의 길에 들어선 돌격대장은 자기와 함께 그릇된 길을 걷던 동무들을 참된 길로 이끌어주기 위해 애쓴다.

영세에 대한 돌격대장의 사랑은 단순한 동정이나 사사로운 보살핌이 아니라 영세가 석탄증산으로 조국과 인민, 당과 혁명을 위한 길에서 지난날의 잘못을 씻고 보람찬 생활도 누리게 하려는 동지적사랑이다.

결국 돌격대전체가 이런 동지적사랑을 가지고 서로 돕고 이끌어 락후분자로부터 혁신자로 자라난다.

이것은 동지적사랑이 조국과 인민을 위한 투쟁속에서 참된 삶을 누리게 하는 가장 값높고 귀중한 사랑이라는것을 보여준다.

혁명적동지애가 가장 귀중한 사랑으로 되는것은 특히 그것이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한 사랑이기때문이다.

가는길 험난하다 해도 시련의 고비 넘으리
불바람 휘몰아쳐와도 생사를 같이 하리라
천금주고 살수 없는 동지의 한없는 사랑
다진 맹세 변치 말자 한별을 우러러보네

돌우에 피여나는 꽃은 그 정성 키운것이고
죽어도 잃지 않는 생은 그 사랑 주신거라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 할 혁명의 길에
다진 맹세 변치 말자 한별을 우러러보네

《동지애의 노래》에 담긴것처럼 혁명적동지애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으로부터 맺어지고 충정의 길에서 꽃피는 사랑이다.

혁명적동지애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한 사랑인것으로 하여 사람들을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대오에 굳게 결합시키고 생사운명

을 같이하게 한다.

뿐만아니라 사람들을 혁명에로 떠밀어주며 삶의 보람과 행복을 안겨준다.

그러므로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한 혁명적동지애는 가장 값높고 귀중한 사랑으로 된다.

학생들은 언제나 동무를 가장 귀중히 여기고 동무를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뜨겁고 열렬한 사랑을 지녀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명언

《정이 통하면 뜻이 통하고 뜻이 통하면 동지로 되는 법이다.》

《동지를 사랑할줄 모르면 동지의 사랑을 받을수 없다.》

《혁명동지를 무한히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참된 동지를 얻을수 있으며 동지의 사랑과 보살핌속에서 영생하는 삶을 누릴수 있다.》

복습문제

1. 동지애는 어떤 삶을 주는 사랑인가.
2. 동지애는 어떤 리상에 기초한 사랑인가.

제3절. 혁명적의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의리란 은혜와 사랑을 준데 대하여 잊지 않고 그에 보답하는 인간의 미덕을 이르는 말입니다.》

의리란 은혜와 사랑을 준데 대하여 잊지 않고 그에 보답하는 인간의 미덕이다.

사람은 생활하는 과정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기도 한다. 또 사회와 집단으로부터 혜택을 입기도 한다. 사람들은 가정에서는 부모형제의 사랑속에서 살며 동네에서는 이웃간, 학교와 직장에서는 동무간에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살아간다.

사람들에게는 한생을 두고 잊지 못하는 스승이나 은인도 있다.

이렇게 받아안은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그에 보답하는것이 의리이다.

의리는 무엇보다도 의리심을 포함하고있다.

의리심은 받아안은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고맙게 느끼며 그에 보답하려는 마음이다.

사람들은 생활하는 과정에 그 누구의 사랑을 받았거나 은혜와 혜택을 입으면 고맙게 생각하고 언제나 그에 대하여 뜨겁게 느끼며 꼭 보답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에 대하여 그리고 철없던 시절에 모든 정성을 기울여 배워주고 이끌어준 선생님들의 고마움에 대하여 늘 생각하며 그것을 잊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자기에게 따뜻한 충고를 준 동무들과 집단, 자기를 내세워준 조직을 잊지 않고 그에 어긋남이 없이 보답하려는 마음을 가진다. 이런 마음이 의리심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은 의리심이 없는 사람이며 의리가 없는 사람이다.

사람은 의리심이 있어야 사랑과 은혜에 보답할수 있으며 의리를 지킬수 있다.

의리는 또한 사랑과 은혜에 실지로 보답하는 행동을 포함한다.

의리에서 의리심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과 은혜에 실지로 보답하는것이 더 중요하다.

아무리 사랑과 은혜를 고맙게 생각하고 그에 감동하여도 보답이 없으면 의리를 다하는것으로 되지 못한다. 의리는 사랑과 은혜에 실지 행동으로 보답하는것이다.

그런데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것이 의리라고 하여 이것을 하나를 받았기때문에 꼭 하나를 보답해야 한다는 1대 1의 《신세갚음》과 같은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도움을 받았기때문에 할수없이 마지못해 받은것만큼 주는것은 의리가 아니다.

의리는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고맙게 여기고 그에 보답하는 인간의 미덕이다.

의리는 또한 나쁜짓을 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그에 《신세갚음》을 하는것이 아니다.

나쁜짓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것은 나쁜짓을 감싸주고 부추기는 행동으로서 그것은 더 나쁜 행동이다. 간혹 어떤 동무들은 자

기 결함을 싸고도는것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그 동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눈감아주거나 편을 들어주는것을 의리를 지키는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것은 의리가 아니다.

의리는 옳은 일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거나 잘되기를 바래서 베푼 사랑과 은혜에 대한 보답이다.

의리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부모와 자식간의 의리도 있고 형제, 자매간의 의리도 있으며 스승과 제자간의 의리도 있다.

또 이웃간, 친구간 등 서로 사랑하고 혜택을 베푸는 사람들의 관계에도 의리가 있게 된다.

혁명적의리는 례사로운 인간관계에 있게 되는 이와 같은 의리와는 다르다.

혁명적의리는 혁명투쟁과정에 뜨거운 동지적사랑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가장 숭고한 의리이다.

혁명적의리에는 조직과 집단에 대한 의리, 혁명동지에 대한 의리가 있으며 또한 보다 숭고한 수령에 대한 의리가 있다.

혁명동지들사이의 의리는 혁명을 위하여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사람들사이의 의리이다.

그렇기때문에 이 의리는 보통사람들사이의 의리에 비할수 없이 강하고 뜨겁다.

혁명의 길에 나선 사람들은 누구나 조직과 집단의 사랑을 받는다.

우리는 자기 학급과 청년동맹조직의 사랑을 받는다.

이러한 사랑과 혜택을 고맙게 생각하고 조직과 집단의 일에 자신을 바치는것은 조직과 집단에 대한 의리이다.

혁명적의리에서 가장 숭고한 의리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유훈을 순간도 잊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모든것을 다 바쳐 관철해나가는것이다.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은 인민에 대한 사랑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지니신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으며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은 수령님과 장군님의 풍모를 그대로 지니시고 우리모두에게 온갖 사랑과 은혜를 다 베풀어주시는 한없이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의 한없이 뜨거운 사랑속에 우리 인민의 행복과 보람이 있다.

김정은선생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혜택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사회에서 부럼없이 사는 행복한 인민으로 되였다.

참으로 그 사랑과 은혜가 있어 어제날의 머슴군의 아들이 장령으로 되고 두메산골의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들이 박사로, 영웅으로, 세상에 이름을 떨치는 예술인, 체육인으로 자라났다.

또한 그 사랑속에 모든 사람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여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행복을 누려가고있다.

이런 고마움을 가슴뜨겁게 느끼고 그것을 잊지 않고 그에 보답하는 것이 수령에 대한 혁명적의리이다.

사람들은 혁명적의리를 지닐 때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유훈대로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께 끝없이 충실할수 있으며 참된 혁명가로 될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혁명적의리를 귀중히 여기고 철저히 지켜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명언

《의리로 하여 인간의 존엄이 빛나고 참된 인간관계가 맺어지며 화목한 인간생활이 이루어진다.》

복습문제

1. 사람은 왜 의리를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가.
2. 하나를 받았기때문에 하나를 갚는것이 의리인가 아닌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

제4절. 혁명적의리를 지키려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람은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보답할 생각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의리를 귀중히 여겨왔다. 우리 인민은 의리가 있는 사람은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의리가 없는 사람은 짐승보다 못하다고 비난한다.

사람들은 의리가 없는 사람을 가리켜 《개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데 은인도 모르는 인간을 어찌 사람이라고 하겠는가?》고 하면서 사람취급을 하지 않는다.

예술영화《누리에 붙는 불》에서 나오는 최총관은 의리없는 인간의 전형이다. 한때 이놈은 김형직선생님과 강반석어머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독립운동에도 참가한 놈이다. 그러나 이놈은 혁명이 간고해지고 어렵게 되자 일신의 안일을 찾아 고향땅에 돌아와 과수원까지 차려놓고 더러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일본놈의 앞잡이가 되였으며 피신하러 오신 김형권선생님을 일제경찰에 밀고하는 배신행위를 한다.

김형권선생님께서는 일제경찰서에 나타나 자기도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다고 빌붙는 놈에게 《개에게도 조국이 있는가.》고 호되게 단죄하신다.

의리를 저버리고 제놈의 더러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은인도 동지도 배반하는 이런 인간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리를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며 의리를 놓고 인간의 됨됨을 가른다.

혁명적의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혁명가로서 참답게 살며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게 한다.

혁명적의리를 간직한 사람은 수령과 혁명조직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는것을 어길수 없는 인간의 도리로 여기고 모든것을 다한다. 그러나 혁명적의리가 없는 사람은 수령도 조직도 배반하는 배신의 길에 굴러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혁명적의리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혁명가로서의 일생을 참답게 사는가 못사는가 하는것이 결정된다.

혁명적의리는 혁명대오를 불패의 대오로 만든다.

혁명적의리는 혁명대오안에 사랑과 보답의 뜨거운 인간관계가 차넘치게 함으로써 대오를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친 불패의 혁명대오로 만든다.

그러므로 혁명의 길에 나선 사람들은 혁명적의리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혁명적의리는 일상생활에서부터 잘 지켜야 한다.

동무들을 대하고 조직의 분공을 수행하며 부모형제들, 이웃과 함께 지내는 일상생활에서 의리를 지킬줄 아는 사람이라야 사회와 집단에 대한 의리도 지킬수 있고 나아가서 수령에 대한 의리도 지킬줄 아는 참다운 인간이 될수 있다.

혁명적의리를 지키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의 사랑과 은혜속에 사는 우리는 그 사랑, 그 은혜를 가슴뜨겁게 느껴야 한다.

김정은선생님의 사랑과 은덕을 깊이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그에 보답할수 없으며 그 사랑, 그 은덕을 잊으면 벌써 의리를 저버리기 시작한것으로 된다.

사랑과 은덕을 깊이 느끼고 심장깊이 간직한 사람만이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변심없이 의리를 지킬수 있다.

리인모선생님은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남쪽에서 우리 수령님이 너무도 그리웠고 우리 당의 품이 너무도 그리워 언제면 이 소원이 이루어질가 애태워온 저로서는 모든것이 성취된 오늘 누리는 만복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매 시각 스스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며 살아갑니다.

— 아침에 깨여도 수령님과 지도자동지부터 생각하자.

— 일을 하여도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수령님과 지도자동지를 모시고 일하자.

— 밤에 잠을 잘 때에도 수령님과 지도자동지의 안녕을 먼저 기원하자.

— 꿈을 꾸어도 수령님과 지도자동지에 대한 꿈을 꾸자.

— 수령복을 누리면 수령께 충성과 효성을 바칠줄 알자.》

리인모선생님은 이처럼 언제나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만을 생각하였기에 34년이라는 긴긴세월 전사의 의리를 지킬수 있었으며 그 사랑과 은덕에 보답하기 위해 모든것을 다하였다.

수령에 대한 혁명적의리를 지키려면 우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의 사랑과 은덕을 깊이 느끼고 자나깨나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께서 베풀어주신 사랑과 은덕에 보답하여야 한다.

받아안은 사랑과 은덕에 감격하며 눈물도 흘리고 보답하려는 결심을 가졌다가도 정작 당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을 바쳐야 할 때에 주저하거나 몸을 아끼는 사람은 의리가 없는 사람이다.

혁명적의리가 있는 사람은 받아안은 사랑과 은혜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보답하는 사람이다.

사람이 사랑과 은덕에 실천적으로 보답하자면 지조와 절개를 지켜야 한다.

혁명적의리를 지켜 사랑과 은덕에 보답하려는 과정에는 시련도 있고 난관도 있으며 때로는 목숨까지 내대야 할 때가 있다.

그러므로 한번 다진 맹세, 한번 먹은 결심을 변함없이 지키는 지조와 절개가 있어야 어떤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사랑과 은덕에 보답할수 있다. 그래서 은인에 대한 지조와 절개는 곧 의리라고 한다.

항일혁명투쟁시기 뤄쯔거우(라자구)공청위원으로 사업하던 박호준선생님이 공작도중 적들에게 체포되였을 때였다.

어느날 적들이 반주검이 된 그를 이렇게 구슬렸다.

《공청조직과 간부들의 이름만 대면 너는 많은 상금을 받고 호강스럽게 살수 있다.》

그러자 박호준선생님은 쓴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공청조직과 간부들의 이름을 부를테니 받아쓰시오. 나를 지도한 간부의 성은 〈공〉가요. 이름은 〈산당〉이요.》

적들이 《공산당》이라는 《이름》을 적다가 놀라는것을 보고 박호준선생님은 벽을 짚고 일어나 놈을 조롱하였다. 《나를 키워준 그 위대한 간부의 이름을 너희들이 수첩에 적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제 공산당이 내 원쑤를 갚아줄것이다.》

박호준선생님은 이렇게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하였다.

이렇게 한번 먹은 마음과 뜻을 굽히지 않는 지조와 절개를 지녔기에 박호준선생님은 위대한 수령님을 목숨으로 지키고 조직과 혁명동지들에 대한 의리를 지킬수 있었던것이다.

학생들은 언제나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어떤 역경속에서도 지조와 절개를 굿굿이 지켜 그 사랑, 그 은혜에 보답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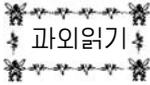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명언

《의리를 위해 죽을줄 알라, 의리는 인격의 거울이다.》

《충실성에 기술을 더한것이 진정한 보답이다.》

《수령과 전사, 수령과 인민사이에는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오로지 사랑과 보답의 의리가 있을뿐이다.》

복습문제

1. 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 어떤 의리를 지켜야 하는가.
2. 학생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으로부터 받아안고있는 사랑과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려고 하는가.

사랑의 돌사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혁명적의리를 지니시고 먼저 떠나간 혁명전사들을 위해 아늑한 명당자리에 몸소 애국렬사릉을 마련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그들에게 더 해줄것이 없겠는가 마음 써오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주체87(1998)년 4월 어느 한 단위를 현지지도하시다가 돌사진기계와 돌사진견본을 보게 되시였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매우 만족해하시면서 애국렬사릉에 안치된 렬사들의 묘비에부터 먼저 돌사진을 새겨붙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다른 나라에서 기계를 사다가라도 사진을 붙여주자고 했는데 자체의 힘으로 돌사진을 만들수 있으니 이제는 자신의 소원이 풀리게 되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이날만도 무려 4차례, 그후에도 10여차례에 걸쳐 돌사진제작문제와 관련하여 말씀하시였다.

9월 19일 머나먼 현지지도의 피로도 푸실새없이 애국렬사릉을 찾으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저녁늦게까지 사랑하는 전사들의 모습이 새겨진 묘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돌아보시며 만족해하시였다.

제5장. 집단주의

제1절. 가장 힘있는것은 집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집단주의란 한마디로 말하여 개인의 리익보다 집단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는 사상이다.》

집단주의는 개인보다 집단을 귀중히 여기고 동지적으로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사상이다.

집단주의는 개인보다 집단을 귀중히 여기고 집단의 리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것과 집단성원들이 서로 단결하고 협조하는 정신을 포괄하고있다.

집단의 힘은 위력하다.

집단의 힘이 위력한것은 개인의 힘보다 집단의 힘이 비할바없이 큰데 있다.

집단의 힘은 개별적사람의 힘으로는 할수 없는것도 얼마든지 할수 있게 한다.

텔레비죤련속극 《1번수》에서는 집단의 힘이 개인의 힘에 비하여 얼마나 위력한가를 생동하게 보여준다.

최첨단과학기술을 요구하는 국제바둑프로그람경기를 앞두고 실장 성민이는 대학 박사원시절부터 연구하여온 석골이의 연구문제를 집단의 힘으로 발전완성할것을 제기한다.

이에 불만을 가진 석골이는 연구집단을 떠나 고향인 등대섬으로 가고만다.

중학시절에 수학올림픽경연에서 1등한 륜민이가 1번수가 되여 연구사업을 끌고나간다.

자기 지식과 지혜만을 믿는 륜민이는 다른 동무들을 업수이 여기며 자기만 똑 제일이라고 하다가 국제바둑프로그람경기에 나가서 5등을 한다.

실장인 성민이는 1번수 륜민이를 해임하고 연구집단으로 다시 돌아온 석골이를 1번수로 임명한다.

1번수에서 해임된데 대하여 불만을 가진 륜민이는 집단을 뛰쳐나가 어느 회사에 들어간다. 다시 연구집단에 돌아올것을 권고하는 성민이 앞에서 륜민이는 자기는 혼자서라도 얼마든지 바둑콤퓨터에서 1번수자리를 차지할수 있다고 말한다. 이때 성민이는 집단을 떠난 1번수란 있을수 없으며 집단의 힘만이 국제바둑프로그람경기에서 1등을 할수 있다고 준절히 말한다.

결국 륜민이도 연구집단에 돌아와 힘과 지혜를 합치고 뜨거운 혁명적동지애로 끌내 국제바둑프로그람경기에서 1등의 영예를 쟁취하여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고 세계에 주체조선의 영예를 떨친다.

이처럼 개별적사람들의 힘보다 집단의 힘이 큰것은 집단성원들의 힘과 지혜가 합쳐졌기때문이다.

개인의 힘과 지혜에는 한계가 있지만 집단의 힘과 지혜는 끝이 없다.

개인의 힘으로써는 자그마한 집 한채도 짓기 어렵지만 집단의 힘으로는 고층아빠트를 일떠세우고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운다.

오늘 우리 나라에 일떠선 만년대계의 창조물들은 모두 집단의 힘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이다. 개인의 힘에 비하여 집단의 힘이 위력하다는것은 누구나 생활을 통하여 체험하고있다. 자기 혼자서는 할수 없는 일도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쉽게 하고 혼자서는 풀수 없는 문제도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면 쉽게 해결된다는것을 누구나 알고있다.

집단의 힘이 위력한것은 또한 집단이 자기 성원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기때문이다.

힘들어하면 힘을 주고 지혜가 모자라면 지혜를 주고 용기를 내도록 떠밀어주는것이 집단이다.

그러므로 집단속에서 집단성원들의 힘과 지혜가 커가며 그것이 집단의 힘을 더 위력하게 만든다.

텔레비죤련속극 《1번수》에는 이런 장면도 있다.

밤과 낮이 따로 없는 연구과정에 과제를 수행하지 못한 애젊은 연구사를 도와나서던 석골이는 그만 쓰러져 병원에 실려간다.

이에 깊은 자책을 느낀 애젊은 연구사는 더욱 분발하여 1번수인 륜민이를 따라앞선다.

실장 성민이를 비롯한 연구집단은 륜민이의 바둑프로그람에 집단의 연구성과를 합쳐 더 훌륭한것으로 완성해준다.

힘들어하면 서로 도와주고 고무해주며 잘못을 저지르면 자기의 일처럼 생각하고 비판해주는 뜨거운 마음들이 오가는 장면들은 집단의 위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것을 생동하게 보여준다.

집단의 힘은 이처럼 집단성원들사이에 서로 돕고 이끌어줌으로써 힘이 힘을 낳고 지혜가 지혜를 낳게 하여 그 위력을 떨치게 한다.

학생들은 개인의 힘보다 집단의 힘이 비할바없이 크다는것을 언제나 명심하고 집단에 철저히 의거하여 생활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학생들이 집단을 존엄있게 대하여야 한다.

집단을 존엄있게 대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집단의 질서와 규률을 존중하며 집단에서 맡겨주는 과업을 무겁게 대하고 책임적으로 수행하는것이다.

또한 집단을 존엄있게 대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집단의 비판이나 의견을 겸손하고 성실하게 받아들이는것이다.

집단의 비판이나 의견에 대하여 불평을 부리며 까박을 붙이고 맞서는것과 같은것은 집단을 존엄있게 대하지 않는 표현이다.

더우기 집단우에 자기를 올려세우는 현상이 없어야 한다.

집단보다 자기가 더 잘났다고 우쭐렁대거나 집단의 의견을 무시하며 자기 주장만 옳다고 고집하는것은 집단에 대한 존엄성이 없는 표현이다. 이런 사람은 결국 집단의 버림을 받는다.

언제나 가장 힘있는것은 집단이며 집단의 위력에 대한 확신과 신념을 가진 사람만이 집단을 귀중히 여기고 집단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집단주의정신을 소유할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명언

《개인의 힘은 제한되여있지만 인민대중의 힘은 무궁무진하다.》

《가장 위대한 힘이 인민대중의 심장속에 있다.》

《개인의 향락만을 추구하는자들은 돈에 울고 돈에 웃기도 하지만 혁명하는 사람들은 집단을 위하여, 후대들을 위하여 자신을 바치는 투쟁에서 보람과 기쁨, 행복과 영예를 찾으며 긍지와 자부심을 느낀다.》

복습문제

1. 집단의 힘은 무엇때문에 개인의 힘보다 위력한가.
2. 자기가 생활하는 집단의 힘을 강하게 하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제2절. 사람은 집단에서 성장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람은 사회적집단속에서만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는 사회적존재인것으로 하여 집단주의를 본성적요구로 합니다.》

사람의 성장은 다만 육체적성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람의 성장은 사상의식의 성장이며 지적발전과 고상한 품성의 발전이다.

사람의 이러한 발전은 자기가 생활하는 조직과 집단을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백발의 원사, 교수, 박사들도 자기의 발전을 놓고 자기가 생활하던 조직과 집단을 생각하며 세상에 이름을 떨친 과학자, 예술인, 체육인들도 오늘날의 선군시대 공로자들도 자기의 성장을 놓고 부모의 사랑보다도 조직과 집단의 사랑을 먼저 생각한다.

사람은 조직과 집단속에서 혁명가로 자라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를 회고하시면서 리순희와 같은 렬녀를 배출한것은 의심할바없이 그의 정치적생명에 빛을주고 날개를 달아준 공청조직의 공로라고 말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조직이라는 존재가 없고 조직적단련이라는 성장과정이 없었더라면 과연 리순희와 같이 애된 처녀가 교형리들앞에서 그처럼 용감해질수 있으며 그처럼 도도한 긍지와 자부를 안고 최후의 순간을 떳떳하게 장식할수 있었겠는가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직은 영웅을 낳는 집이며 대학이라고 말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이 일당백의 인민으로 되는것은 그들이 모두 조직생활을 통해 단련된 인민이기때문이며 우리 인민군대가 일당백의 군대로 되는것은 그들이 다같이 조직이라고 불리우는 용광로에서 자신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철저히 련마해가는 군대이기때문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오늘날의 청년들은 조직을 통하여 투사로, 영웅으로, 혁명가로 자라나고있다고 하시였다.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조직과 집단에서 높은 정치사상의식으로 무장한다. 사람에게 있어서 사상이 기본이다. 사상의식수준이 낮으면 저렬한 인간이 되고만다. 그러므로 사람의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사상의식의 발전이다.

조직과 집단은 정상적인 사상교양을 통하여 혁명가가 갖추어야 할 사상의식으로 사람들을 튼튼히 무장시킨다.

사람들은 누구나 소년단조직과 청년동맹조직으로부터 사상교양을 받으며 자라나고 한생을 조직으로부터 끊임없는 정치사상적단련을 받으면서 혁명가로 자라나 한생을 빛내인다.

조직과 집단은 사람들에게 높은 정치사상의식뿐아니라 고상한 도덕품성을 갖추도록 한다.

물론 사람들은 가정에서도 도덕교양을 받지만 기본은 조직과 집단에서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게 된다.

예술영화 《줄기는 뿌리에서 자란다》에서 주인공 류승철은 조직과 집단을 떠나서 생활할 때는 걸핏하면 주먹질을 하고 술을 마시며 망나니짓을 한다.

건달을 부리며 패싸움만을 일삼던 류승철은 나중에는 법적제재를 받는데까지 이른다.

그러던 그가 청년돌격대에 들어가 조직생활을 하는 과정에 조직과 집단의 방조와 동지들의 관심속에 지난날의 나쁜 버릇을 고치고 시대의 청년이 갖추어야 할 고상한 품성을 지니게 된다.

대학추천까지 받고도 고향땅에 돌아온 류승철은 아직까지도 조직과 집단을 떠나 제멋대로 생활하는 불량청년들인 지난날의 친구들을 조직과 집단의 품으로 이끈다.

지난날에 대한 뼈저린 뉘우침과 사회와 집단앞에 더 많은 일을 하려는 류승철의 깨끗하고 순결한 량심과 동지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책임성은 참으로 많은 감동을 준다.

만약 조직과 집단의 품이 없었더라면 류승철은 그처럼 고상한 품성을 지닌 청년으로 되지 못했을것이며 불량청년들이였던 소대원들은 시대의 락오자로 되고말았을것이다.

이처럼 조직과 집단은 인간을 고상하고 아름답게 만든다.

조직과 집단은 또한 모든 조직성원들의 장래발전을 책임지고 돌봐준다.

조직과 집단은 집단성원들이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면 적극 내세워주고 영예를 안겨준다.

학생들이 학습과 조직생활에서 모범이면 여러가지 표창을 받도록 추천해주고 소질과 재능에 따라 발전할수 있도록 온갖 대책을 세우고 해결해주는것이 조직과 집단이다.

또한 조직과 집단은 학생들의 리상과 포부에 따라 그들의 희망을 마음껏 꽃피우도록 한다.

학생들의 발전은 부모나 그 어떤 개별적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못한다. 그러나 조직과 집단은 사람들의 장래발전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떠밀어주고 이끌어준다.

학생들은 조직과 집단속에서만 유능한 혁명인재로 자라날수 있으며 리상과 포부를 실현할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조직과 집단에 철저히 의거하여 생활하여야 한다.

우선 학생들은 조직과 집단은 자기 생활과 장래발전을 책임지고 돌봐주는 보호자라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육체적생명의 보호자는 부모이지만 사람에게 가장 귀중한 정치적생명의 보호자는 조직과 집단이다.

학생들은 집에서는 부모의 사랑속에 살지만 학교에 나와서는 조직과 집단의 사랑속에 산다.

조직과 집단은 결함이 있으면 제때에 비판해주고 부족점이 있으면 보충해주면서 훌륭한 혁명인재로 자라도록 적극 도와준다.

학생들은 이것을 똑똑히 알고 조직과 집단을 진정한 사랑의 품으로 여겨야 한다.

또한 학생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조직과 집단을 찾아가 속마음을 터놓고 조직과 집단의 방조를 받을줄 알아야 한다.

특히 자기의 희망문제를 조직과 집단에 의거하여 풀어나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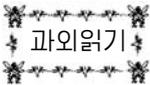
조직과 집단은 학생들의 희망문제를 비롯하여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있으며 풀어준다.

학생들은 언제나 조직과 집단에 철저히 의거하여 생활함으로써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명언

《개인은 오직 사회적집단의 한 성원으로 되여야 혁명의 주인으로 될수 있으며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다.》

복습문제

1. 사람이 왜 집단을 떠나서는 발전할수 없는가.
2. 집단은 집단성원들을 어떻게 도와주는가.
3. 집단을 귀중히 여기고 존중하는것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13련발》

항일무장투쟁시기 조선인민혁명군에는 《13련발》이라는 별명을 가진 공청원이 있었다.

어느날 두만강가의 세무소를 대낮에 습격하고 무기를 탈취할 때였다.

경찰놈들을 수세에 몰아넣고 세자루의 총을 걸어메고 나오던 그는 전화통을 보자 놈들을 골려줄 생각이 떠올라 앞뒤를 재여보지 않고 수화기를 들었다. 경찰관주재소를 찾은 그는 여기에 공산당이 나타났으니 빨리 총동원해오라고 소리를 쳤다. 경찰관주재소는 나루터에서 10리가량 떨어져있었으나 놈들이 말을 타고 다급히 추격해오는 바람에 그는 조직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을번하였다.

이날 가까스로 위기에서 벗어났으나 그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그후 여러 전투에서 이와 비슷한 행동을 즐겨하였다. 그의 결함은 모험주의를 즐기고 명예를 떨쳐보려는 일부 청년들에게 그릇된 영향을 주었다. 그리하여 조직과 동지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게 되였다. 그는 처음에 자기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고 동지들의 비판도 접수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직과 혁명동지들이 그의 결함을 고쳐주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결과 그는 자기 잘못을 깨닫고 꼭 고치겠다고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그는 자기의 맹세를 지켜 결함을 고치였다.

바로 조직의 보호속에 그는 후날 불굴의 투사로 자라났다.

그는 1933년 샤오왕칭(소왕청)유격근거지를 방위하기 위한 전투에서 방차대책임자로서 커다란 공훈을 세웠다.

이 전투에서 그는 13발의 적탄을 몸에 맞고도 굴함없이 싸워 임무를 끝까지 수행해냈으며 혁명조직앞에 무한히 충실하였다는 뜻에서 동지들은 그에게 《13련발》이라는 별명을 붙이게 되였다.

제3절.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서로 돕고 이끌면서 생사고락을 같이해나가는데 집단주의의 본질이 있습니다.》

개인이 집단을 위하고 집단이 개인을 위하는 이러한 관계를 한마디로 표현한것이 바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구호이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는 개인이 집단을 위하여 헌신할것을 요구하는 집단주의원칙이다.

사람은 집단속에서 살며 발전한다. 따라서 집단의 한성원으로 된 사람은 마땅히 집단을 위하여 헌신하여야 한다. 만약 사람들이 집단에 속해 생활하면서도 집단을 위하여 헌신하지 않으면 집단은 유지될수도 강화발전될수도 없으며 사람들의 집단생활이 원만히 보장될수 없다.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는 집단이 개인의 리익을 보장할것을 요구하는 집단주의원칙이다.

집단은 응당 자기 성원들의 리익을 보장해주어야 하며 그들을 책임지고 돌봐주어야 한다. 집단이 개인의 리익을 보장해주고 책임지고 돌봐주지 않는다면 그런 집단을 좋아할 사람은 없으며 또 그런 집단에 있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집단은 개별적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것만큼 집단이 개별적사람들의 리익을 보장하고 그들을 책임지고 돌봐주어야 집단을 유지하고 강화할수 있다.

집단에서 집단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이 다 중요하므로 두 리익이 다 보장되여야 한다.

집단에서 집단의 리익을 무시해도 안되며 개인의 리익을 무시해도 안된다.

집단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가운데서 더 귀중한것은 집단의 리익이다.

왜냐하면 집단의 리익속에 개인의 리익이 있기때문이다.

사람은 집단을 이루고사는것만큼 사람답게 살자면 집단의 리익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집단의 리익속에는 개인의 리익도 들어있으며 집단의 리익이 실현될 때 개인의 리익도 실현되게 된다.

나라가 있고 인민이 행복하여야 개인도 행복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가정의 운명과 조국의 운명은 서로 뗄래야 뗄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고 하시면서 나라가 편안해야 가정도 편안할수 있으며 나라의 비운은 곧 그것을 이루는 수백만 가정들에도 어김없이 미치기마련이라고, 그러므로 가정의 안녕과 행복을 지키자면 나라를 지켜야 하고 나라를 지키자면 각자가 자기앞에 부과된 공민적의무를 책임적으로 리행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집단의 리익을 위한것이 곧 자기의 리익을 위한것으로 된다.

학급이 영예의 붉은기학급으로 되여야 학급안의 개별적학생들이 영예의 붉은기학급 성원으로서의 영예를 지니게 된다.

또 집단의 리익속에는 나 하나만의 리익만 있는것이 아니다.

집단의 리익속에는 나의 리익과 함께 전체 집단성원들의 리익이 있다. 이런것으로 하여 집단의 리익은 나 하나 개인의 리익보다 더 귀중하다.

이처럼 집단의 리익이 개인의 리익보다 귀중하기때문에 집단의 리익에 개인의 리익을 복종시켜야 한다.

집단주의가 개인의 리익보다 집단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는 사상이라는것은 결코 집단주의가 개인의 리익을 무시하는 사상이라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집단주의는 개인의 리익을 보장해주는 사상이다.

집단주의가 반대하는것은 개인의 리익자체가 아니라 집단의 리익을 침해하면서 개인의 리익만을 내세우는 개인리기주의이다.

개인은 전체를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고 전체는 개인의 리익을 책임적으로 보장할 때 그 집단은 더욱 화목하고 힘있는 집단으로 발전해나간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이 구현된 사회는 사회주의사회이다.

사회주의가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라면 자본주의는 개인리기주의에 기초한 사회이다.

개인리기주의란 집단의 리익보다 개인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는 사상이다. 개인리기주의는 개인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집단과 다른 사람

의 리익을 희생시킨다. 개인리기주의자들은 남이 어떻게 되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향락을 위해서라면 조국도 민족도 서슴없이 팔아먹는다.

착취사회에서는 자기 리익을 위해서는 혈육끼리도 서로 물고 뜯고 하며 지어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안해가 남편을 죽이는 치떨리는 만행도 서슴지 않는다. 개인리기주의는 착취계급의 사상이다.

그러므로 개인리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착취계급의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으로 된다.

집단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는 집단주의에 참된 도덕이 있다.

그것은 집단과 다른 사람의 리익을 존중하는 마음이 량심이고 집단의 리익을 위한 행동이 량심적인 행동이기때문이다.

개인의 리속만 채우는것은 도덕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나의 리익을 위해 너의 리익을 희생하여도 된다고 생각하는것이야말로 량심이 없는것이며 집단과 다른 사람의 리익을 침해하는 행동이야말로 비도덕적인 행동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구호를 더 높이 들고 서로 돕고 이끄는 참다운 인간이 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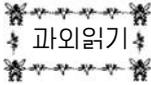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명언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정치적집단안에서의 인간관계는 완전히 평등한 자주적인 관계인 동시에 서로 헌신적으로 도와주는 동지적사랑의 관계이다.》

복습문제

1.개인은 집단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

2.집단은 개인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과외읽기

인간적매력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고하시였다.

《김정숙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였다. 남을 위해 자기를 깡그리 바친 삶, 그것이 바로 김정숙이였고 그가 걸어온 인생이였다. 그는 언제나 자기를 희생시키면서 남을 위해주었다. 먹을것이 차례지면 자기보다 체통이 크거나 나어린 대원들에게 덜어주었다. 정숙의 식사몫을 제일 많이 받아먹은것은 기송동생의 짝패였다는 4중대 1소대의 곱슬머리꼬마대원이였을것이다. 김정숙은 남들이 다 잠든 때에도 남성대원들의 꿰진 옷이나 신발을 기워주군 하였다.

동지들과 공동위업에 대한 헌신성, 이것은 김정숙의 성격에서 핵을 이루는것이였으며 또한 그가 지니고있는 인간적매력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김정숙어머님은 자신의 모든것을 동지들, 집단성원들을 위해 깡그리 바친 위대한 어머니이시였다.

제4절. 집단의 주인이 되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집단과 개인의 관계에서 개인은 집단의 리익을 자기 개인의 리익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집단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것을 마땅한 도리로 여겨야 합니다.》

개인의 리익보다 집단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는 집단주의사상은 집단의 주인이라는 자각과 집단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집단의 리익을 귀중히 여긴다고 하면서도 집단의 일을 강건너 불보듯하는 사람에게는 집단주의사상이 있다고 말할수 없다.

집단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집단주의사상을 지닌 사람이며 집단을 위하여 진심으로 자기를 바칠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누구나 집단의 주인이 되여야 하며 학생들은 자기 학급의 주인이 되여야 한다.

집단의 주인이 되자면 우선 집단에 대하여 늘 마음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슨 일에서나 늘 마음을 쓰고 관심을 돌린다.

이것은 마치도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들이 집일에 대하여 마음을 쓰는것과 같다.

집은 어떻게 꾸리며 집안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가정을 화목하고 행복하게 하겠는가를 늘 생각하며 크고작은 일에 대하여 마음쓰고 집안식구들에 대하여 누구보다 더 관심을 돌리는것이 아버지, 어머니들이다. 집단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진 학생은 아버지, 어머니들이 집안일에 마음을 쓰는것처럼 집단에 대하여 항상 마음을 쓴다.

항상 집단을 생각하는 학생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침에 일찍 등교하여 교실청소를 하고 책상도 정돈하고 간혹 책상, 걸상이 마사진것이 있으면 스스로 손질한다. 또 물건을 하나 봐도 집단을 생각하며 자기것을 아까와하지 않고 집단을 위해 바친다.

집단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관심이 없는 학생의 눈에는 집단을 위해 할 일이 보이지 않는다. 간혹 보인다 해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이런 학생은 1년이 가도 집단을 위해 스스로 좋은 일을 한번도 하지 못한다.

학생시절에 집단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관심이 없으면 자라서도 집단일에 무관심하며 집단에 있으나마나한 사람이 되고만다.

집단의 주인이 되자면 또한 집단앞에 제기된 일을 자기 일로 여겨야 한다.

집단에는 수시로 많은 일이 제기된다. 그중에는 어렵고 힘든 일도 있으며 집체적 또는 개별적으로 해야 할 일도 있다.

집단앞에 무슨 일이 제기되였을 때 네일내일을 가리지 않고 자기 일로 여기는 사람이 주인다운 사람이다.

집단앞에 어떤 일이 제기되면 자기에게 맡겨질가봐 눈치를 살피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일감을 밀어놓거나 너 하나 하면 나도 하나 한다는 식으로 따져가며 행동하는 사람은 주인답지 못하다. 어떤 학생은 집단앞에 무슨 일이 제기되면 자기는 학급장도 아니고 분단위원장도 아니니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 어떤 학생은 다른 동무들이 하겠거니 하고 슬슬 피한다.

이런 학생들은 결코 집단의 주인이라고 말할수 없다.

간혹 어떤 학생은 집단에서 과업을 주면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아무개도 있는데 왜 나한테 과업을 주는가고 불평을 가진다. 이런 학생은 집단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보다 못하다.

집단에 그 어떤 일이 제기되면 자기가 응당 해야 할 일로 여기고 기꺼이 맡아나서는 학생이 집단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진 학생이다.

집단의 주인이 되자면 또한 집단에서 맡겨준 일을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집단에서 맡겨준 일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는 학생이 집단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진 학생이다.

원래 주인이라는 말에는 책임자라는 뜻과 모든 일을 책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겨져있다. 때문에 주인은 어떤 일이 잘못되면 그것을 자기 잘못으로 여기고 추궁을 받는것을 마땅한 일로 여긴다.

제기된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려는것이 주인의 태도이다.

집단에서 맡겨준 일을 잘하자면 책임성이 높아야 한다.

책임성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업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고 반드시 수행하려는 각오와 결심이다.

책임성이 높은 학생은 집단에서 과업을 맡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제때에 잘 수행하겠는가를 늘 생각한다. 그리하여 맡겨진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방도를 찾기도 하고 수행하는 과정에 애로와 난관이 제기되면 어떻게 하나 자기 힘으로 수행하려고 애를 쓴다. 책임감이 높은 학생은 집단이 준 과업을 힘들다고 하여 중도에서 집어치우거나 다른 동무에게 밀어버리는것과 같은 일을 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집단의 주인이 되자면 집단에 제기된 일을 자기 일로 여기고 그것을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집단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주인의 역할을 할 때 집단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수 있으며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집단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집단에 제기된 일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요리조리 몸빼기를 하거나 집단이 준 과업을 부담으로 여기면서 성실하게 집행하지 않으면 집단의 버림을 받게 된다. 이런 사람은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이다.

우리 사회에서 집단의 믿음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고 해도 집단의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따돌림을 받는다면 고독하고 불행하다.

집단의 주인이라는 자각과 주인다운 태도에는 반드시 집단의 믿음과 사랑, 존경이 뒤따른다.

그 믿음과 사랑, 존경속에 집단의 한성원으로서의 기쁨과 행복이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집단의 주인이 되여야 한다.

복습문제

1. 집단의 주인이 된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 집단의 주인다운 태도를 실례를 들어보시오.

제6장. 가정의 화목과 생활문화

제1절. 부모에 대한 존경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조선사람들은 옛날부터 부모를 존경하고 정성을 다하여 섬기였으며 이렇게 하는것을 인간의 도리로 여겨왔습니다.》

부모에 대한 존경은 아버지, 어머니를 높이 보고 정중하고 공손하게 대하며 뜨겁게 사랑하는것이다. 아버지, 어머니의 뜻과 마음을 귀중하게 여기고 진심으로 따르며 정성을 다 바쳐 위해드리는것이 바로 부모에 대한 존경이다.

부모를 존경하는것은 자식들의 마땅한 도리이며 가정의 화목을 보장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자기를 낳아 키워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것은 인간의 초보적인 도리이라고 하시면서 자기의 가장 가까운 혈육인 부모처자도 사랑할줄 모르는 사람은 조국과 인민을 사랑할수 없다고 하시였다.

부모를 존경하는것은 자식들의 초보적인 도리이다.

부모를 존경하고 잘 모시는 자식의 마음과 행동을《효》라고 하며 그러한 자녀들을 《효자, 효녀》라고 부른다.

자식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품성을《효성》이라고 한다.

자식들이 부모를 존경하는것은 그 누가 시키거나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 먼저 지켜야 하는 옳은 리치이다.

부모는 자식의 생명의 은인이다. 부모에 의하여 자식이 이 세상에 태여나 참다운 인간으로 자라나게 된다.

부모의 사랑은 자식들의 생명의 젖줄기이고 자양분이다.

아버지,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이 있기때문에 자식들은 건강하게 자라며 훌륭한 품성을 지닌 학생으로 발전하게 된다. 언제나 따뜻이 보살펴주는 부모들의 덕은 학생들이 지덕체를 겸비한 참된 인간으로 되여 나라앞에 큰 공을 세우는 인민군대로, 영웅으로, 혁명가로 되게 하는 바탕으로 된다.

부모는 혈연적으로 련결된 혁명선배들이다.

아버지,어머니는 자녀들보다 먼저 혁명투쟁에 참가하여 조국과 인민앞에 많은 공적을 쌓은 혁명선배들이다.

혁명선배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령도따라 일제침략자를 때려부시고 조국을 찾는 성전에 참가하였으며 미제침략자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지켜 싸웠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전후 사회주의혁명시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많은 일을 하였다.

그러므로 혁명선배들, 부모들을 존경하는것은 자식들의 마땅한 도리이다.

자식들이 부모를 존경하는 도리를 지키면 가정생활은 더 화목하게 된다.

자식들이 부모를 존경하는 도리를 잘 지켜가는 가정에서는 언제나 웃음과 기쁨이 꽃피고 생활이 안착되여있다. 자식들이 늘 부모를 정중하게 대해주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가볍고 기분이 좋아지게 된다.

부모들은 자식들이 례절바르게 말하고 행동하는것을 볼 때 흐뭇해하고 정겨워하게 된다.

부모들은 자식들이 자기의 도리를 자각적으로 지킬 때 기특하게 생각하고 아들, 딸들을 더 따뜻하게 보살펴주게 된다. 자식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잘 모실수록 자식에 대한 아버지, 어머니의 정은 더욱 깊어지고 끝이 없이 살뜰해진다.

그러므로 부모에 대한 존경과 자식에 대한 사랑이 끓어넘치는 가정에서는 언제나 다정하고 웃음넘치는 생활이 꽃펴나게 된다.

자식들이 부모를 존경하는 도리를 지키지 않는 가정에서는 웃음과 기쁨이 사라지고 불화가 싹트게 된다. 자식들이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다는것은 아버지, 어머니를 높이 보지 않고 정중하게 대하지 않으며 버릇없이 말하고 행동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부모를 높이 보지 않으면 자기 동무처럼 여기고 우와 아래를 구별하지 못하게 된다.

부모라고 해서 례절도 없이 마구 대하고 철없이 행동하면 아버지, 어머니를 무시하는 결과를 빚어내게 된다. 자기 개인의 요구와 감정만을 내세우면서 함부로 맞서거나 부모의 체면을 깎아내리는 자식의 행동은 초보적인 도리를 지키지 못하는 행동이다. 아무리 친혈육이라고 해도 자기 자식에게서 존경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것을 좋아할 부모는 없다.

제가 낳아 애지중지 키운 자식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는 부모들은 실망과 괴로움을 가지게 된다.

아무리 물건이 많고 잘산다고 해도 자식들의 도리가 없어진 가정에서는 웃음과 기쁨이 생겨나지 않는다.

자식들은 부모를 존경하는 도리를 잘 지켜야 한다.

부모를 존경하자면 무엇보다도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타발하지 말아야 한다.

자식에게 주는 부모의 사랑은 진실하고 끝이 없는것이다. 부모들은 자식들을 더 잘 내세우려고 언제나 마음을 쓴다.

자식들을 건강하고 훌륭히 키우려는 부모들의 마음은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다. 자식들은 부모들이 마련해주는 옷가지나 학용품을 놓고 투정질을 하지 말고 그속에 깃들어있는 정을 뜨거운것으로 느껴야 한다.

자식들은 나라에서 주는 교복과 학용품을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것으로 여겨야 한다.

학생들에게는 나라에서 주는 교복이 기본적인 옷으로 된다. 교복이 아닌 옷을 입고 학교에 공부하러 오는것은 학생의 자세가 아니다.

부모들이 마련해준 색다른 옷이라고 해서 그것을 입고 학교에 오면 다른 학생들의 부러움을 조성시키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본 학생들이 집에 돌아가 색다른 옷과 학용품을 구해달라고 부모들에게 졸라대게 하여 부모들의 마음을 괴롭히게 할수 있다.

아들, 딸들이 교복을 입고 학교에 다니게 하려는 부모들의 심정을 리해하지 못하고 투정질을 부리거나 떼를 쓰는것은 자식의 도리가 아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어린시절에 다른 학생들과 꼭같이 생활하시는 아름다운 풍모를 보여주시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만경대혁명학원에서 공부하게 되시였을 때였다.

이때 김보현증조할아버님께서는 어머님도 없이 아버님의 곁을 떠나 먼 후방에 가서 고난겹게 지내시다가 학원에 입학하시는 증손자분을 위해 좋은 학습장을 구하시였고 리보익증조할머님에게 분부하여 뜨개옷도 짓게 하시였다.

김보현증조할아버님께서는 고심끝에 마련한 학습장과 뜨개옷을 내놓으면서 당부하시였다.

《증손아, 전쟁판이여서 마음뿐이로구나. 이 학습장은 증조할아버지의 성의로 알고 공부를 열심히 하여라. 이 뜨개옷은 증조할머니가 마

련한것이니 춥지 않게 지내거라.

네가 학원에 가면 어린 동생이 적적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 집에서 다니렴.…》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습장과 뜨개옷을 정히 쓰다듬어보시고나서 학원 학생들은 모두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라고, 그 애들이 나 혼자만 집에서 다니고 좋은 학습장을 쓰고 두툼한 뜨개옷을 입고 다니면 얼마나 부러워하겠는가고, 저는 기숙사에 들어가 동무들과 꼭같이 지내겠다고, 학습장은 학원에서 내주는것을 쓰고 옷도 학원에서 내주는것을 타입겠다고 말씀하시였다.

다음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빈 몸으로 기숙사로 들어가시였다.

학생들은 자식들이 다른 학생들과 꼭같이 생활하게 하도록 하려고 마음쓰는 부모들의 뜻을 잘 알아야 한다.

부모를 존경하자면 다음으로 부모들의 말씀을 공손하게 귀담아듣고 그 뜻을 따라야 한다.

부모는 자식들이 학습과 조직생활을 잘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과 행동을 옳게 하도록 가르친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라도 잘못하거나 도리에 어긋나게 생활할 때 부모들은 절대로 눈감거나 스쳐지나지 않고 원칙적으로 세세히 타일러준다.

자식들에 대한 부모들의 이러한 관심에는 아들, 딸들이 대바르고 정의가 강하고 품성이 좋은 사람으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믿음이 가득 담겨져있다.

그러므로 자식들은 부모들의 가르침앞에서 공손한 자세를 취하며 그 뜻과 요구대로 꼭 행동해야 한다.

부모를 존경하자면 다음으로 그들의 건강보장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부모들의 사랑속에서 응석을 부리며 보살핌을 받기만 하던 때는 이미 지나갔다. 이제는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의 백분의 하나라도 돌려 아버지, 어머니의 건강을 돌봐야 할 때가 되였다. 부모들이 건강한 몸으로 맡은 사업에 충실하고 가정을 잘 돌보는것은 자식들의 큰 기쁨으로 된다.

그러므로 자식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식사를 잘하도록 늘 관심을 돌리고 제 손으로 맛있는 음식도 마련해드릴줄 알아야 한다. 부모들의

생일날이나 명절날에는 기쁨과 웃음도 꽃피워드리고 몸이 불편해할 때에는 정성을 다해서 돌봐드려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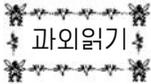
이처럼 부모들의 사랑을 귀중하게 여기고 가르침대로 생활하며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있는 성의를 다 바치는것이 자식의 마땅한 도리로 된다.

부모들의 뜨거운 사랑에 자식된 도리를 다해가는 가정들에서는 언제나 화목한 생활이 꽃펴나게 된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언제나 부모들을 존경하여 집안에서 웃음꽃이 피여나게 하여야 한다.

복습문제

1. 부모를 존경하는것이 왜 자식들의 마땅한 도리로 되는가.
2. 부모를 존경하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과외읽기

만경대가문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만경대가문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회고하시였다.

《무변광대한 이 세계에서 가정이란 하나의 작은 물방울과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물방울도 세계의 한 부분이며 세계를 떠나서는 존재할수가 없다. 조선을 망국의 비운속에 몰아넣은 근대력사의 파도는 우리 가정에도 사정없이 쓸어들었다. 하지만 우리 집안사람들은 그 위협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민족과 더불어 울고 웃으면서 폭풍속에 아낌없이 몸을 내던지였다.》

《우리 집안사람들은 비록 죽물을 우리며 가난하게 살았지만 혈육이나 이웃간에 서로 도와주고 받들어주는 마음이 극진하였다.》

《이처럼 우리 가정은 그 당시 조선의 어느 농촌, 어느 고을에서나 흔히 볼수 있는 소박하고 평범한 가정이였다. 남들보다 별로 표가 나는것도 없고 특이한 점도 찾아볼수 없는 가난한 가정이였다.

그렇지만 조국과 겨레를 위한 일이라면 누구나 아낌없이 몸을 내대였다.》

제2절. 형제자매사이의 화목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같은 피줄을 나눈 형제들사이에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여야 화목이 이룩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가정의 화목은 가족들사이에 서로 존중하며 돕고 이끌어주면서 친절히 사는 생활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바란다. 아무리 잘 입고 잘 먹어도 싸움이 잦고 울화깃든 가정생활은 편안치 못하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정은 언제나 웃음이 꽃피고 화목한 분위기가 차넘쳐 동네에서 칭찬하는 집이다.

형제자매들사이에 화목해야 가정의 화목이 보장된다.

아버지, 어머니의 사이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자식들이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자주 다툰다면 가정생활에 재미가 없게 된다. 형제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제가 잘났다고 하면서 서로 시비하면 집안에 따뜻하고 화목한 분위기가 흐를수 없다. 형제자매들끼리 서로 위해주는 마음이 뜨겁지 못하고 제 욕심만 채우려하면 집안에 차겁고 어두운 분위기가 맴돌게 되고 가족들의 얼굴에서 웃음을 찾아보기 어렵게 된다.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여야 부모들이 마음놓고 맡은 일을 성수가 나서 할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도 좋을수 있다. 형이 동생을 잘 돌봐주고 동생이 형의 말을 잘 들으며 사이좋게 생활하면 부모들의 마음도 편하고 자식들에 대한 믿음이 커지고 사랑이 더욱 뜨거워진다.

하나의 가정에서라도 형제자매들이 서로 화목하지 못하면 동네가 소란하게 된다.

형제자매들은 서로 화목하게 생활하여 가정의 화목을 보장하는데서 큰몫을 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남이야 어떻게 생각하든 관계없이 자기 주견만 내세우고 무턱대고 내리먹이기만 하면 좋다고 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형제들사이에도 단합을 이룩할수 없다고 하시였다.

형제자매사이에 화목을 이룩하자면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주어야 한다.

열손가락이 다 귀중한것처럼 형과 동생, 자매들은 모두 꼭같이 귀중하다.

나이가 우라고 형이 더 귀중하거나 동생은 나이가 적다고 덜 귀중한것은 아니다. 형도 동생도 다같은 혈육이므로 서로 사랑하고 존중히 여겨주어야 친근하고 다정하게 생활할수 있다.

형제들사이에도 남의 생각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주견만 내세우고 무턱대고 내리먹이기만 하면 안된다.

형은 형이라고 해서 동생이 복종할것만 바라면서 그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면 동생은 고깝게 생각하고 형을 존중해주지 않을수 있다.

동생이라고 해서 어리광만 부리면서 제 고집만 내세우며 들어주기만 바라면 형은 동생에 대하여 민망스럽게 여기게 된다. 형제들이 서로 마음을 맞추려하지 않고 엇서나가기만 하면 사랑을 주고받을수 없고 화목을 이룩할수 없다.

그러므로 형제들은 자기 주견만 내세우고 무턱대고 내리먹이기만 하지 말고 서로 리해하고 존중해주며 마음을 합쳐나가야 한다.

형제자매사이에 화목을 이룩하자면 다음으로 공부를 잘하도록 진심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형제들이 서로 화목을 이룩하는것은 말로만 되는 일이 아니다.

형과 동생이 다같이 모든 면에서 발전하도록 진심으로 도와주는 과정을 통하여 친근하고 따뜻한 사랑이 두터워질수 있고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질수 있다. 형은 공부를 잘해서 최우등의 성적을 쟁취하지만 동생은 공부가 보통이고 품성도 바르지 않아 꾸중만 듣는다면 그 누구도 이런 형제자매가 화목하다고 보지 않는다.

형제자매들이 진정으로 화목을 이룩하자면 서로 공부도 잘하고 좋은 품성을 갖추도록 원칙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형제자매들은 우선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을 집에 와서 공고히 다지도록 서로 도와주어야 한다.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은 끊임없이 다지고 넓혀야 진짜 자기 지식으로 될수 있다. 그러자면 가정에서도 많은 시간을 공부에 돌려서 숙제와 복습, 예습을 잘해야 한다. 형제자매들은 집에 돌아와서 놀 생각만 하지 말고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꼭 공부를 해야 한다. 형제자매들은 서로 통제하고 배워주면서 선생님에게서 배운 지식을 폭넓고 깊이있게 알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실력이 높은 형은 자기보다 낮은 학년의 학생인 동생을 깔보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모르는것이 있으면 차근차근 알려주기 위해 애써야 한다.

동생은 자기에게 차근차근 배워주는 형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게 여기며 성실하게 배우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형제들은 또한 조직생활에 적극 참가하고 집단의 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잘 이끌어주어야 한다.

친혈육이라고 해서 형이나 동생이 조직생활에 어떻게 참가하는가를 관심하지 않으면 안된다.

아버지, 어머니가 미처 관심을 돌리지 못한다면 형과 동생이 서로 조직생활정형, 집단규률준수정형을 늘 살펴야 한다.

공부를 잘하지 않거나 조직의 분공을 허술히 대하는 현상, 규제된 규률을 무시하는 행동 등에 대하여 서로 통제하여야 한다.

형은 조직과 집단에서 준 비판에 대하여 두둔하거나 감싸주지 말고 동생이 잘 접수되도록 원칙적으로 타이르고 반드시 고치도록 하여야 한다.

나쁜 물에 젖어 집단규률에 어긋나게 행동한것을 부모가 모른다고 하여 서로 눈감고 숨겨주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형제는 서로가 조직생활에 잘 참가하여 자그마한 결함도 범하지 않도록 관심을 돌리고 정상적으로 깨우쳐주어야 한다.

이처럼 행제들이 서로 도우며 훌륭한 학생으로 되기 위해 노력한다면 부모들도 기쁨에 넘쳐 자식들의 앞날에 대하여 마음을 놓게 된다.

형제들사이에 화목을 이룩하자면 또한 생활에서도 서로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형제자매들은 부모들이 미처 생활에 관심을 돌려주지 못하면 서로 방조를 주어야 한다.

동생들이 자립성이 없이 모든것을 다 형이나 오빠, 언니에게 해주기를 바라서는 안된다. 자기 힘과 노력으로 할수 있는것은 다 제가 처리하면서 꼭 방조가 필요할 때 요청을 해야 한다. 친혈육사이에 서로 도와주는데서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형제자매들은 서로가 안타까와하고 바빠할 때나 몸이 불편해할 때 부모들에게만 의탁하지 말고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위인가정의 다정한 모습은 형제들사이의 화목을 어떻게 이루는가를 뜨겁게 보여준다.

어느날 저녁 늦게 댁으로 들어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불빛을 따라 자제분들의 방앞에 이르시였다.

방안에서는 아드님과 따님사이의 다정한 말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빠, 이리줘요. 바느질은 녀자들이 하는거예요. 그러자 고급양복이나 고급료리를 만드는 사람들은 대체로 남자들로 알고있는데 하는 아드님의 말소리가 들리였다. 따님이 웃으며 양말을 깁는 바느질은 양복만드는것과 달라요. 어서 이리줘요라고 하니 우리 사이좋게 한짝씩 나누어 깁는것이 어떨가 하는 아드님의 목소리가 뒤따랐다. 화해가 되였는지 더는 말소리가 새여나오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여 방문을 열고 들어가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목격하시였다.

자제분들이 뒤축나간 양말을 한짝씩 나누어 바느질하고계셨는데 자세히 살펴보시니 양말안에 전등알을 넣고 뒤축모양을 살린것이 제법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슴이 미여지시여 왜 부관에게 돈을 달래서 새 양말을 사신지 않고 꿰진 양말을 깁고있는가고 물으시였다.

그러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이 꿰진 양말을 기워신고 다니는데 어떻게 새 양말만 사신겠는가고 하시면서 인민들이 다 새 양말을 신을 때 자신도 새 양말을 사신겠다고 말씀올리시였다.

이 대답을 들으신 수령님께서는 너희들이 수상의 아들, 딸들이 아니라면 크게 표창하고싶구나, 용타, 참말 용해라고 하시며 자제분들을 와락 품에 안고 얼굴을 비비시였다.

위인가정의 아드님과 따님의 화목이 수령님을 기쁘게 하신것이다.

학생들은 형제들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도와주고 이끌어주면서 온 가족의 화목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명언

《자기 처자, 자기 혈육에 대한 사랑이자 곧 자기 조국에 대한 사랑이다.》

복습문제

1. 형제자매사이의 화목이 왜 가정의 화목을 이루게 하는가.
2. 형제자매들사이의 화목을 이룩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3절. 생활문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말하는 생활문화라는것은 생활을 소박하고 알뜰하게 문화위생적으로 꾸리는것입니다.》

생활문화는 생활을 소박하고 알뜰하게 문화위생적으로 꾸리는것이다. 다시말하여 옷을 입고 음식을 먹으며 집을 쓰고 사는 모든 생활을 깨끗하고 알뜰하고 문명하게 꾸려나가는것이다.

비록 좋은 옷을 입지 못하고 풍족하게 먹고 살지 못해도 집안팎이 깨끗하고 모든것이 질서있게 제자리에 놓여있는 생활이 문화성이 높은 생활이다.

아무리 고급살림집에서 잘 입고 잘 먹으며 산다고 해도 청소는 물론 물건들을 제대로 정돈하지 않고있는 생활은 생활문화가 서지 못한 생활이다.

생활문화는 가정에서부터 세워져 온 사회에로 퍼져나간다.

가정은 인간생활의 첫 보금자리이고 사회에로 나아가는 첫 문어구이다. 사람은 태여나서 가정적범위안에서 자라나 탁아소와 유치원, 학교를 거쳐 사회에로 나간다.

가정에서 생활문화를 잘 세워 버릇하면 군대와 직장에 나가서 생활문화를 훌륭히 세워나가게 된다.

예로부터 우리 나라에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 나가도 샌다.》는 속담이 있다.

이것은 가정에서 생활을 바로해야 사회에 나가서도 생활을 바로하게 된다는 뜻이다.

집에서 생활을 되는대로 진행하는 사람은 직장에 나가서도 그대로 생활하게 된다. 옷을 벗어서 제자리에 걸어놓을줄 모르는 사람, 책꽂이에 책도 되는대로 꽂아놓고 청소도 하지 않는 사람은 직장에 나가서도 생활을 그렇게 한다. 이런 사람은 결국 맡은 일도 깨끗하고 알뜰하게 해나가지 못한다.

가정생활을 위생상요구에 맞게 잘 꾸리고 항상 거두매를 부지런히

하면서 모가 나게 하는 사람은 직장생활도 바로 그렇게 진행한다. 집에서 모든 물건을 꼭꼭 제자리에 보기 좋게 놓는 사람은 직장의 사무실과 작업반실의 모든 물건들도 그처럼 놓게 된다. 가정에서 청소를 정상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 일터의 모든 기계, 설비, 물자들을 위생문화적으로 알뜰히 거두고 잘 다룬다.

이처럼 모두가 가정에서부터 생활문화를 잘 세워나가면 사회에 나가서도 생활문화를 훌륭히 세워나갈수 있다.

가정에서부터 생활문화를 세우는데서 중학교 학생들이 자기 몫을 찾아서 해야 한다.

생활에는 사람의 손이 가닿아야 할 곳이 얼마든지 있다. 집안팎의 구석구석과 창문도 닦고 물건들을 제자리에 정돈해야 하는 모든 일은 부모들만이 다 맡아해야 할 일이 아니다.

중학교 학생들이 부모님들을 도와나서야 한다.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일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생활문화를 세우는데 적극 나서는것은 마땅한 도리이다. 자식들이 가정에서 생활문화를 세우는데 적극 참가하여 제 손으로 다문 한가지 일이라도 맡아하면 아버지, 어머니들이 기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집안도 더욱 깨끗하게 된다.

학생들은 생활을 문화적으로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학생들은 무엇보다도 제 손으로 개체생활을 위생문화적으로 해야 한다.

개체생활이란 얼굴과 머리단장으로부터 신발까지 알뜰하고 깨끗하게 다듬고 가꾸는 일을 말한다.

물론 옷은 어머니가 빨아주고있다.

하지만 손수건과 양말 같은 소소한것은 제 손으로 깨끗하게 빨아서 건사하며 바지나 치마주름도 다림질하여 늘 보기 좋게 입고다니는 버릇을 붙여야 한다.

중학교 학생들은 머리를 깎고 감는것도 부모의 독촉을 받기 전에 하고 옷차림과 몸단장도 자체로 깨끗이 하는 버릇을 붙여야 자립성도 키우고 가정의 생활문화를 세우는데 이바지할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제 손으로 개체생활을 위생문화적으로 하는것을

습관으로, 버릇으로 굳혀야 한다.

학생들은 다음으로 집안팎을 알뜰하게 거두는 일에서 한몫해야 한다.

물론 가정의 모든 생활을 이끌어나가는것은 아버지,어머니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식들이 손님처럼 행동하면 많은 부담이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실리게 된다. 가정의 안과 밖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리는 사업은 자식들이 손을 맞잡고 얼마든지 잘해나갈수 있는 일이다. 집안팎을 깨끗이 거두는 일은 품이 많이 먹거나 시간이 많이 드는 일도 아니며 학습에도 지장을 크게 주지 않는다. 자식들은 자기들의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도 가정생활환경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리는데 열성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집안에서는 걸레질, 옷정돈, 책장정리, 화분가꾸기, 오물을 버리는 등 일을 스스로 찾아해야 한다.

일요일에는 파지와 병을 비롯한 유휴자재를 수매하는 일도 스스로 찾아해야 한다.

집밖에서는 복도와 마당청소를 스스로 하여야 한다.

가정생활에서 생활문화사업은 제 집 울타리안에서만이 아니라 집밖을 알뜰하고 깨끗하게 꾸려나갈 때에만 잘될수 있다. 학생들은 복도나 마당, 길거리를 깨끗이 청소하는데서 한몫하여야 한다. 자기가 도맡아 청소할 때에는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학생들은 다음으로 밖에서 위생문화적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학교로 가거나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몸가짐과 옷차림을 위생문화적으로 하는것도 생활문화에 속한다. 아무리 개체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옷을 되는대로 입고 몸가짐을 바로하지 못하면 깨끗치 못한 학생이라는 평가를 받을수 있다.

학생들은 집을 나설 때 반드시 거울앞에 서서 자기의 몸단장과 옷차림을 살펴보는 습관을 붙여야 한다.

옷의 단추가 떨어지지 않았는가 하는것을 비롯하여 자기 얼굴과 몸상태를 깐깐히 살펴보아야 한다.

학교로 가는 길에 침과 가래를 아무곳에나 뱉지 말고 길가의 잔디를 마구 짓밟거나 나무가지를 꺾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 모든

행동들은 비문화적인 행동이다. 그러므로 침이나 가래는 종이에 받아서 주머니에 넣었다가 휴지통에 버려야 한다. 어린 동생들이 비위생적으로 행동하는것을 보게 되면 제때에 타일러주고 그 자리에서 고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원에서 놀이를 할수 있고 책도 볼수 있다. 이런 때에 학생들은 아무곳에나 막 주저앉지 말아야 한다.

휴식이 끝나면 깔고앉았던 휴지나 음식 쌌던것들을 다 모아서 휴지통에 넣거나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서 버려야 한다. 앉았던 자리를 말끔하게 거두어야 문화성있는 학생들이라는 칭찬을 받을수 있다.

집안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옷의 먼지와 신발에 묻은 흙을 깨끗이 털어야 한다. 그리고 모자와 웃옷, 바지와 치마, 가방을 제자리에 정히 걸거나 놓아야 한다.

학생들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생활을 소박하고 알뜰하게, 위생문화적으로 해나가는데서 모범이 되여야 한다.

복습문제

1. 생활문화란 무엇인가.
2. 학생은 가정생활문화를 세우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제7장. 계급적립장

제1절. 원쑤에 대한 환상은 죽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미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자그마한 환상도 가져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원쑤에 대한 환상은 적을 과학적인 근거없이 덮어놓고 좋게만 보고 대하는 생각이다.

원쑤에 대한 환상은 마주선 원쑤를 인간처럼 생각하고 사람으로 대하는것이다.

원쑤들에 대한 환상을 가지면 적들과 싸우기를 그만두게 되고 나중에는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된다.

때문에 원쑤에 대하여 자그마한 환상도 가져서는 안된다.

원쑤에 대한 환상은 무엇보다도 놈들의 변장술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데서 나타난다.

원쑤들은 다른 나라를 침략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그 나라 인민들이 제놈들을《벗》으로 인식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놈들은 작고 약한 나라들,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앞에서는 몽둥이를 내들고 뒤에서는 딸라로 유혹하는 간교한 량면술책에 매달리고있다.

적들은 《원조》요 《도움》이요 하면서 다른 나라들에 침투하여 그 나라의 풍부한 자원을 누거리로 긁어가고있다.

이것은 원쑤들이 침략적본성을 가리우기 위한 량면술책에 매달리고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원쑤들의 본심을 보지 못하고 변장술에 속아넘어가게 되면 원쑤를 원쑤로 보지 못하게 된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지난날의 제국주의자들과 다르다고 하면서 《벗》으로 생각하는것은 적들에 대한 환상의 표현이다.

이렇게 적들에 대하여 환상을 가지면 《설마 죄없는 사람을 죽이기야 하랴.》고 생각하면서 놈들과 싸우려하지 않게 된다.

원쑤에 대한 환상은 다음으로 자본주의사회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동경하는 마음을 가지는데서 나타난다.

자본주의사회는 통치계급들만이 잘살고 근로인민대중은 죽지 못해 살아가는 지옥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가들은 모든 생산수단들을 독차지하고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착취와 략탈을 강화하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은 일자리걱정, 치료걱정, 집걱정, 먹고살 걱정, 자식들을 공부시킬 걱정을 늘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본주의사회의 겉모습에 유혹되고 광고선전에 속아넘어가 그쪽으로 눈길을 돌리게 된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사회의 본질을 똑바로 보지 못하면 자기의 눈이 멀게 되고 나아가서 원쑤에 대한 환상을 가지게 된다.

원쑤에 대한 환상은 죽음이다.

텔레비죤련속극 《한나의 메아리》에서는 제주도 《국군》련대장 김신렬과 명월관주인의 동생을 통해 미제원쑤들에 대한 환상은 죽음의 길이라는것을 보여준다.

김신렬련대장은 미군이 제주도의 혼란된 정세를 안정시키고 주민들을 공산분자들의 침해에서 보호해주기 위하여 주둔한다고 생각한다. 명월이와 그의 동생도 미군을 우방으로 여기면서 제주도에 상륙하는 미군부대 대장놈과 그 졸병들을 환영하고 꽃다발까지 안겨준다. 명월의 동생은 미국류학을 보내준다는 군정장관놈의 꼬임에 빠져 그놈을 따라갔다가 청춘을 깡그리 짓밟히고 죽게 된다. 련대장은 이때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미군이 제주도인민들을 무참하게 살륙하는 승냥이무리라는것을 뒤늦게야 깨닫고 고향사람들앞에 씻을수 없는 죄를 지은 자기를 저주하며 죽음의 길을 택한다.

이처럼 원쑤에 대한 환상에 빠지면 청맹과니가 되여 적의 본성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 희생물로 죽게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원쑤에 대한 환상에 빠지면 우선 적에게 미련을 두고 어리석게 행동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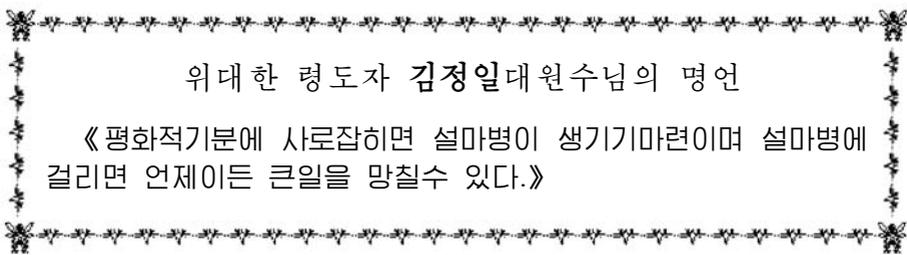
적에게 미련을 둔다는것은 혹시, 설마 하면서 원쑤에게 기대를 걸고 행동하는것이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신천땅에서 수많은 애국자들과 함께 무고한 주민들이 생죽음을 당하게 된것은 원쑤에 대한 환상이 얼마나 가슴아픈 후과를 빚어내는가 하는것을 피로써 보여주고있다.

원쑤에 대한 환상에 빠지면 또한 적들의 설교를 진짜로 믿기때문에 종당에는 망하고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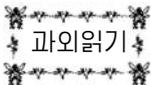
원쑤들은 항상 량면전술에 매달려 총칼과 돈보따리를 동시에 휘두른다. 강한 나라는 핵무기로 위협하고 가난한 나라앞에서는 돈주머니를 헤쳐보인다. 때에 따라서는 이것저것을 엇바꾸어가며 엄포를 놓기도 하고 얼리기도 하고 추어주기도 하는것이 원쑤들의 수법이다.

원쑤에 대한 환상은 적들의 교활한 량면술책의 뒤에 숨어있는 음흉한 목적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독약과 같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은 곧 죽음이고 망국이며 예속이라는것을 똑바로 알고 원쑤들의 량면술책에 더욱 경각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명언

《평화적기분에 사로잡히면 설마병이 생기기마련이며 설마병에 걸리면 언제이든 큰일을 망칠수 있다.》

복습문제

1. 원쑤에 대한 환상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2. 원쑤에 대한 환상이 왜 죽음으로 되는가.

과외읽기

목숨걸고 한 《약속》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일시적후퇴시기 어느 한 마을에서 있은 일이다.

박용덕로인의 집마당으로는 미군 여섯놈이 뛰여들었다.

놈들은 암닭이고 수닭이고 저마다 잡아가지고 가다 못해 외양간에 매놓은 황소의 고삐를 풀기 시작했다.

용덕로인은 격분을 참을 길이 없어 그놈들을 막아나서며 《이놈들아, 이게

무슨 짓이냐!》고 고함을 질렀다.

이때 미국놈들을 따라와서 지켜보던 옛지주 아들 정필놈은 《박령감, 미군을 위해 공을 많이 세워야지.》라고 지껄이였다.

《아니, 뭐라구? 금방 와서 한 약속은 무엇이냐?》

《약속? 지주 아들과 머슴놈이 약속이라. 그걸 믿었단 말이지. 으하하하…》

정필놈은 허리병이 심하여 움직이지 못하는 용덕로인의 안해를 질질 끌어내다 마당에 내팽개쳤다.

《이놈아, 네놈도 사람이냐? 병든 사람에게 이게 무슨 짓이냐?》

그러자 정필놈은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라고 소리치며 총탁으로 그를 내리쳤다.

그리고는 로인의 안해를 작두우에 올려놓고 란도질해서 죽이고는 박용덕로인의 머리를 기둥에 짓쫏기 시작했다.

땅바닥에 토막쳐 내팽개쳐진 안해의 몸에서 흘러내리는 피가 땅을 붉게 물들였다.

박용덕로인은 허리병으로 운신 못하는 안해가 자기에게 혼자만이라도 빨리 인민군대를 따라 후퇴하라고 거듭 재촉했으나 미군이 들어온다고 해도 다 늙고 병든 자기들이야 어찌하랴 하는 속생각으로 눌러있었던것이다. 지주 아들 정필놈이 집에 찾아와 《가지 말고 나와 함께 있읍시다. 생명의 안전은 내가 전적으로 담보하겠소. 이 뜨락의 짐승들까지도 말이요. 옛정을 봐서 내가 약속하지. 이 목숨을 걸고!》라고 하면서 약속까지 하였기에 믿었던것이다.

정필놈은 박용덕로인의 머리뼈를 바스러뜨려 죽이고말았다.

목숨걸고 한 약속을 믿었던 박용덕로인의 최후는 바로 원쑤에 대한 티끌만한 환상도 죽음이라는것을 보여준다.

제2절. 적들의 사상문화적침투를 막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상문화분야에서 제국주의자들에게 문을 열어주는것은 자살행위와 다름없다. 우리는 약초밭의 독초와 같은 부르죠아사상문화가 뿌리내릴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부르죠아사상문화의 자그마한 요소도 제때에 밑뿌리채 들어내야 한다.》

적들의 사상문화적침투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이 다른 나라에 반동적인 사상과 썩어빠진 문화를 들여보내는 책동이다.

적들은 다른 나라들을 무력으로 침략하기 전에 사상문화적침투를 감행하는것을 상투적인 수법으로 써먹는다. 적들이 사상문화적침투를 감행하는것은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의 투쟁정신, 계급의식을 마비시키

고 심리적인 동요가 일어나게 하여 힘을 적게 들이고 침략하려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적들은 사상문화적침투를 악랄하게 진행하여 인민들을 사상적으로 병들게 하여 그 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특히 적들은 제놈들과 정면으로 맞서는 나라 인민들과 청년들을 녹여내기 위하여 사상문화적침투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있다.

적들은 사상문화적침투를 여러가지 형태로 감행한다.

적들은 무엇보다도 제놈들의 군사력과 무장장비의 위력을 요란하게 광고선전하고있다.

적들은 제놈들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무기를 가지고있다고 과장하여 선전하고있다.

놈들은 핵무기를 비롯한 최신식무장장비들로 다른 나라 정부를 위협하고 압살책동을 강화하는 한편 방송을 통해 인민들이 사상적동요와 심리적인 불안을 느끼게 하고있다.

적들은 다음으로 뢰물작전을 들이대고있다.

적들은 돈과 금품으로 사람들을 매수하여 제놈들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주게 만든다. 적들은 많은 돈과 귀중품들을 찔러주거나 사치하고 고급한 물품들을 많이 안겨주어 비밀을 뽑아내거나 살인행위를 감행하게 한다.

적들의 매수작전의 대상에는 한계가 없다. 나어린 학생으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될수록 많은 사람들을 매수하려고 한다.

이라크전쟁에서 미제침략자들이 뢰물행위를 대대적으로 감행하였다는것은 온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첩보원들을 수많이 들여보내여 이라크공화국근위대의 상층부지휘관들을 돈과 금품으로 매수하는 작전을 교묘하게 은밀히 감행하였다.

적들의 뢰물작전에 의해 이라크는 단 몇시간사이에 점령당하고말았다.

적들은 다음으로 썩어빠진 생활양식과 색정적인 문화를 퍼뜨리고있다.

원쑤들은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의 아름다운 도덕과 건전한 마음을 오염시키려고 여러가지 수단을 총동원하고있다. 각종 출판물들, 영화, 소설 등 문학예술작품들, 각종 록화물까지 다 동원하여 사람들을 타락시키려고 책동한다.

놈들이 퍼뜨리는 부르죠아생활양식과 썩어빠진 문화에 오염되면 사람들은 자기의 부모와 처자도 모르고 자기 나라와 인민에게 등을 돌려대게 된다.

결국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에 속게 되면 날라리부리기를 좋아하게 되고 조국과 인민, 집단보다도 개인의 안락과 편안만을 바라게 된다. 뿐만아니라 혁명승리에 대한 신념과 락관이 없이 살아가게 된다.

모든 학생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에 경각성을 높이고 그 독소를 제때에 막아야 한다.

적들의 사상문화적침투를 막자면 우선 물욕을 없애야 한다.

물욕은 원쑤들이 던지는 낚시에 인차 쉽게 걸릴수 있는 위험한 요소이다. 물욕이 강한 사람,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적들에게 매수되여 죄를 짓게 된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국가에서 보장해주고 부모들이 마련해주는것으로 검소하고 깨끗하게 생활하며 물욕을 엄격히 경계하여야 한다.

적들의 사상문화적침투를 막자면 다음으로 우리 나라의 신문, 방송, 출판물만 리용해야 한다.

학생들은 적들이 우리모두를 사상적으로 병들게 하여 사회주의 우리 나라를 와해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것을 잘 알고 놈들의 사상문화적침투를 철저히 막아야 한다.

복습문제

1. 적들의 사상문화적침투의 형태에 대하여.
2. 적들의 사상문화적침투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3절. 적들과 맞서 싸워 이겨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적들과 맞서 싸우면 살고 굴복하면 죽습니다.》

적들과 맞서 싸우며 산다는것은 이긴다는것을 의미한다. 원쑤앞에 굴복하면 죽는 길밖에 없다.

적들과 싸워 이기지 못하면 원쑤놈들이 나를 포함한 부모, 형제들을 잔인하게 죽인다. 적들은 자비를 모르며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피를 보는데서 쾌락을 느끼는 야수들이다. 참된 인간은 사람의 가죽을

쓴 야수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김으로써 아버지와 어머니, 형님, 누나와 자기 인민을 지키는것을 응당한것으로 여긴다.

적들과 싸워 이기지 못하면 원쑤놈들이 조국을 짓밟고 산천을 략탈한다. 조국산천은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며 후손만대의 귀중한 재부이다.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를 원쑤놈들이 한치도 다치지 못하게 해야 내 나라, 내 조국이 부강해지고 길이 번영할수 있다.

오늘 우리와 맞선 적은 미제와 일제놈들, 남조선괴뢰도당과 그앞잡이놈들이다. 원쑤놈들과 싸워 반드시 이겨야 주체의 사회주의를 지켜낼수 있으며 사회주의강성국가도 건설할수 있다.

적들과 맞서 싸워 이기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것이 중요하다. 죽는것을 겁나하면 아무일도 못한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목숨이 아까와 벌벌 떨면서 동지들을 배반할수 있고 조국과 인민을 팔아먹을수 있다.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용감하게 싸워서 적을 타승하고 혁명에 크게 이바지할수 있다.

예술영화《피어린 자욱》에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조성된 난국을 헤치시는 모습을 감명깊게 보여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적들이 음모를 꾸몄다는것을 아시면서도 적구에 내려가시여 변절자의 정체를 밝혀내신다. 그리하여 수많은 동지들을 구원하고 수백포대의 식량까지 렬차에 싣고 유격구로 돌아오신다. 그때 일본놈들의 앞잡이인 기관사놈이 더는 기차를 몰수 없다고, 이제 그대로 나간다면 렬차전복사고를 일으킬것을 계획하였기때문에 당신들도 나도 다 끝장이라고 아우성을 친다.

그러자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그놈앞에 권총을 들이대며《이놈아, 우리는 살고 네놈은 죽어야 한다. 그래서 끝까지 혁명을 해야 하겠다.》고 단호히 말씀하시고 기차를 그냥 몰고가도록 하신다.

유격대중대장의 희생적인 방조로 위험구간을 무사히 통과하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유격구의 긴장한 식량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하시였다.

이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서면 반드시 원쑤와 싸워 이길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원쑤들과의 싸움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서면 반드시 이길수 있는것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도 무서운것이 없게 되고 신심과 지혜,

방도가 샘솟아나기때문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서면 우선 이 세상에 무서운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것을 의미한다.

죽음을 각오하고 나선 사람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 죽음을 각오한 사람은 물불도 가리지 않고 목숨도 내대기때문에 그 어떤 애로와 난관에 부닥쳐도 다 뚫고나간다.

《목숨을 내대면 총알도 피한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목숨걸고 나선 사람앞에는 무서운것이 하나도 없고 마음만 먹으면 반드시 이기고 성공한다는 뜻을 담고있다.

죽기를 각오하고 결판을 내자고 마음먹으면 사람의 힘과 의지가 최대로 발휘되기때문에 못해낼 일이란 하나도 없게 된다. 산을 떠옮기라면 산을 떠옮기고 바다를 막으라면 바다도 가로막는 무한한 힘과 능력은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발휘한다.

세상에서 제일 강하다고 우쭐대던 원쑤놈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짓뭉개는 막강한 위력도 바로 죽음을 각오하고 나선 군대들이 발휘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진짜범도 종이범으로 보이고 높은 산, 깊은 바다도 평지로 보인다. 이렇게 사람의 힘과 의지가 무한하기때문에 죽기를 각오하면 무서운것이 다 없어진다고 하는것이다.

그러나 목숨을 아까와하면 죽기가 겁나서 있는 힘도 다 발휘하지 못한다. 제 살 궁리만 하는 사람에게는 열린 구멍도 보이지 않게 된다. 그러면 목숨건질 방도만 찾고 안락한 생활만 따라가기때문에 맡은 일을 다하기 위하여 있는 힘과 능력도 다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적과 싸워보지도 않고 굴복하며 조국과 인민앞에 죄를 짓게 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서면 또한 신심과 지혜가 샘솟고 방도가 환히 떠오르게 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것은 반드시 이긴다는 든든한 배짱과 담을 가지고 나섰다는것을 의미한다. 죽는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나섰다는것은 결코 너죽고 나죽는것으로 결판짓자는것이 아니라 그런 배짱과 담력으로 싸워서 이기고야말겠다는 결심을 굳건히 했다는것을 보여준다. 반드시 이긴다는 또 이길수 있다는 각오와 결심을 가진 사람은 원쑤는 내 손에 죽고야만다, 절대로 살아나지 못한다는 배짱과 담력이 든든해

져 높은 수를 생각해내며 방도와 묘술을 신통하게 내놓을수 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침략자와 맞선 인민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담력과 배짱, 신심은 하늘땅 차이를 가지고있다.

죽기를 각오하고 원쑤들을 소멸하려는 군인들과 인민들은 얼마든지 싸워이길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밑에 전민이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치여 산악같이 일떠선다. 이러한 군민은 원쑤놈들을 모조리 족치고 제 나라 제 땅을 지켜내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친다.

직접 원쑤들과 싸우는 군대에게 있어서 인민은 제 부모이고 형제이며 그들이 지키고있는 땅은 제 고향, 자기 나라이므로 그들은 청춘과 생명, 사랑과 열정을 서슴없이 바친다. 인민에게 있어서 군대는 제 친자식들이므로 인민들역시 군인들을 위해서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치는것을 응당한것으로 여긴다. 군대와 인민사이에 차넘치는 혈연적인 사랑과 뜨거운 정, 신심과 락관은 기어이 승리하리라는 신념과 각오를 더욱 굳게 하여준다.

위대한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나선 군민의 담력과 배짱은 그 어떤 대적도 당할수 없다.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원쑤와 싸워 이길 각오와 결심이 없는 사람들은 적들의 허장성세앞에서 신념을 잃고 비굴해지게 되며 결국에 가서는 모든것을 저버리고만다.

이런 사람들은 혈육도 친구도 지켜내지 못하며 나라도 혁명도 수호하지 못한다.

이라크전쟁에 참가하였던 일부 이라크병사들은 원쑤들과의 싸움에서 비장한 각오를 가지기는커녕 조국을 위해 죽는것을 《개죽음 당하는것》으로 여기고 자기자신과 가족들의 목숨을 위하여 총을 버리고 달아났다. 그러나 무자비하고 악랄한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의 총폭탄앞에서 그들의 가족은 더 말할것도 없고 저 하나의 목숨도 건지지 못하였다.

무고한 주민들이 피흘리며 계속 죽어가고있는 이라크의 현 사태는 원쑤에 대해서는 무자비해야 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 기어이 이겨야 한다는것을 교훈으로 보여준다.

원쑤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자면 반드시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고 령도자의 사상과 의지를 심장으로 관철해나가야 한다.

제국주의떼무리들을 눈아래로 보는 담력과 배짱은 위대한 령도자의 두리에 하나로 뭉친 인민만이 가질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는 제국주의

련합세력이 달려들어도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고 놈들을 다불러대며 할 일을 다하고 받아낼것은 다 받아낸다. 옳바른 령도자를 모시지 못한 인민은 이끌어주는 손길이 없기때문에 무궁무진한 힘을 가지고있어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아무리 수천수만의 군중이 있어도 그들의 힘을 하나로 묶어세워서 위력하게 만들어주는 령도자가 없으면 그러한 인민은 승리할수 없다.

그러므로 인민들이 원쑤와 맞서 싸워 이기려면 위대한 령도자를 모셔야 하며 령도자의 담력과 배짱, 사상의지를 그대로 자기의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 인민이 지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각오와 의지, 담력과 배짱은 곧 강철의 령장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 안겨주신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련합세력과 단호히 맞서시여 놈들을 쥐락펴락하시였으며 우리 인민이 비장한 각오와 의지로 떨쳐나서게 하심으로써 원쑤들을 전률케 하고 승리만을 이룩하게 하시였다.

모든 학생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의지, 배짱과 담력을 자기의것으로 받아들이고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의 령도따라 온갖 원쑤들의 침략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해 떨쳐나서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명언

《자기를 알고 적을 알면 백번 싸워 백번 이길수 있으나 자기를 모르고 적을 모르면 백번 싸워도 백번 다 질수 있다.》

복습문제

1. 적앞에 굴복하면 어떻게 되는가.
2. 적과 맞서 싸워 이기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8장. 사회주의헌법

제1절. 헌법의 본질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서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헌법은 국가주권을 쥔 계급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국가사회제도의 기본원칙,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원칙,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를 규제한 국가의 기본법입니다.》

헌법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국가의 기본법이다.

헌법이 국가의 기본법이라는것은 헌법이 나라의 여러 법들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법이라는 뜻이다.

국가의 법에는 헌법만이 아니라 교육법, 가족법, 사회주의재산관리법, 체육법, 로동법, 형법, 민법을 비롯한 수많은 법들이 있다. 그러나 헌법을 제외한 모든 법들은 사회생활의 일정한 분야만을 반영하고있다.

그러므로 헌법외에 다른 법들을 부문법이라고 한다.

헌법은 다른 법들을 만드는데서 기초로 된다. 다시말하여 모든 부문법들은 헌법에 기초하여 만들어지고 헌법에 맞게 만들어져야 법으로서 효력을 발생시킬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우리 국가의 기본법이다.

사회주의헌법은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승리와 성과를 법적으로 공고히 하며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완성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원칙과 과업을 밝힌 우리 식의 헌법이다.

사회주의헌법은 서문과 7개장 172개조문으로 구성되여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체계는 다음과 같다.

서문

제1장. 정치(제1조—제18조)

제2장. 경제(제19조—제38조)

제3장. 문화(제39조—제57조)

제4장. 국방(제58조—제61조)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제62조—제86조)
제6장. 국가기구(제87조—제168조)
제1절. 최고인민회의(제87조—제99조)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제100조—제105조)
제3절. 국방위원회(제106조—제111조)
제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제112조—제122조)
제5절. 내각(제123조—제136조)
제6절. 지방인민회의(제137조—제144조)
제7절. 지방인민위원회(제145조—제152조)
제8절. 검찰소와 재판소(제153조—제168조)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제169조—제17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서문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영원히 법화하고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을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명명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은 영원히 우리 공화국과 함께 계신다는 사상은 헌법서문의 근본핵을 이루고 있으며 이것은 사회주의헌법의 전반내용을 관통하는 기본정신으로 되고 있다.

서문에는 우리 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우리 공화국을 불패의 강국으로 일떠세우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만고불멸의 국가건설업적과 특출한 위인적풍모가 집약적으로 명문화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우리 민족의 건국시조는 단군이지만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는 위대한 수령님이시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떠나서 우리 공화국의 창건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세계에 빛을 뿌리는 오늘의 주체의 사회주의조국과 우리 민족의 높은 존엄과 영예, 긍지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화국의 창건과 그 강화발전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시였으며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훌륭한 토대를 닦는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은 **김일성**대원수님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우리 공화국을 **김일성**대원수님의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절세의 애국자, 사회주의조선의 수호자이시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시였으며 주체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고 순결하게 계승발전시키시여 조선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시였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공세속에서 선군정치로 **김일성**대원수님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은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은 공화국의 대외관계발전과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자주, 평화, 친선을 공화국정부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으로, 대외활동원칙으로 규제하시고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및 정치, 경제, 문화적련계를 맺고 그것을 확대발전시켜나가도록 하시였다.

또한 복잡한 국규제세의 흐름속에서 사회주의운동과 쁠럭불가담운동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세계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은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며 우리 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다.

이로부터 서문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며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며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것이라고 규제하였다.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사상과 령도업적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며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것은

우리 인민모두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이며 삶과 투쟁의 좌우명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혁명사상과 령도업적이 있고 그것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시는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령도자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는한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고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울수 있다는것을 굳게 확신하고있다.

참으로 사회주의헌법의 서문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을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을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우리 공화국을 영원토록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국가로 끝없이 빛내여나가려는 우리 당과 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를 그대로 반영하고있다.

제2절. 우리 공화국의 성격과 혁명전통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로 선포하였습니다.》

국가의 성격을 옳게 규제하는것은 헌법에서 선차적인 문제로 나선다. 그것은 어떤 성질과 특징을 가진 국가로 규제하는가에 따라 헌법의 전반내용이 그에 맞게 체계화될수 있기때문이다.

사회주의헌법 제1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고 규제되여있다.

우리 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국가이다.

우리 공화국이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국가로 되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전체 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에 의해 세워지고 그들의 리익을 진정으로 옹호하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인민의 유일한 합법적국가는 오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우리 공화국은 자주적인 국가이다.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인 동시에 독립국가의 본질적징표이다. 국가의 자주권은 그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신성한 권리이다. 국가가 자주권을 가져야 참다운 민족적독립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으며 다른 나라와 실제적인 평등한 관계를 가질수 있다.

우리 국가가 자주적인 국가로 되는것은 우리 공화국이 우리 나라의 력사적조건과 민족적특성에 맞게 우리 인민자신이 선택하여 세우고 관리운영하는 국가이며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 국가이기때문이다.

또한 우리 공화국이 나라의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보장하는 위력한 정치, 경제, 군사적지반에 기초하는 국가이기때문이다.

우리 공화국은 사회주의국가이다.

우리 공화국은 온갖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인민들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보장해주고있으며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조건을 마련하여주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우리 공화국은 제국주의자들의 집요한 고립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기치를 끝까지 고수하고있으며 이 땅우에 주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을 건설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사회주의헌법에는 우리 공화국정권의 빛나는 혁명전통이 규제되여있다.

혁명전통은 해당 국가의 성격을 규제짓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국가가 이어받는 혁명전통은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로동계급의 수령에 의하여 마련된다.

우리 국가가 이어받은 혁명전통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주체의 혁명전통이다.

우리 공화국이 이어받은 혁명전통에서 중요한것은 우선 주체적인 인민정권건설로선이다.

인민정권건설로선에는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고 광범한 인민대중의 통일전선에 의거하며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철저히 수행하기 위한 원칙과 방도가 과학적으로 밝혀져있으며 일제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고 민주주의정권을 세우기 위한 원칙과 방도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여있다. 주체적인 정권건설로선은 조선혁명과 주체시대 정권건설의 합법칙적요구를 반영하고있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로선이다.

우리 공화국이 이어받은 혁명전통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인민정권건설의 귀중한 경험이다.

인민정권건설의 귀중한 경험에는 유격근거지들에 인민혁명정부를

세우고 운영한 경험, 유격근거지에서 인민적시책을 실시한 경험, 혁명규률을 확립하고 혁명적인 사업방법과 인민적인 사업작풍을 철저히 확립한 경험 등 가장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정권건설경험들이 담겨져있다.

우리 공화국이 이어받은 혁명전통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국가건설의 혁명적골간을 튼튼히 꾸린것이다.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대중과 혈연적련계를 맺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울줄 아는 단련되고 세련된 수많은 혁명가들이 자라났으며 인민의 국가를 창건하기 위한 혁명적골간이 튼튼히 마련되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주체형의 혁명가들을 훌륭히 육성한것은 해방된 조국에서 안팎의 원쑤들의 온갖 방해책동을 성과적으로 짓부시고 짧은 기간에 참다운 인민의 국가를 세울수 있게 한 근본요인의 하나이다.

오늘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이 참다운 인민의 국가로, 가장 혁명적인 국가로 세계에 그 위용을 힘있게 과시하고있는것은 우리 국가가 이러한 혁명전통을 굳건히 이어받고있기때문이다.

제3절. 우리 공화국의 지도사상, 지도적지침과 공화국주권의 주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활동의 지도적지침입니다.》

지도사상, 지도적지침에 관한 문제는 사회주의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이다.

사회주의국가가 자기의 로동계급적이며 인민적인 성격을 철저히 고수하고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정치를 하자면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지도사상, 지도적지침을 헌법에 규제하여야 한다.

사회주의헌법 제3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제되여있다.

무엇보다도 우리 공화국의 지도사상, 지도적지침은 주체사상이다.

주체사상이 우리 공화국의 지도사상, 지도적지침으로 되는것은 우

선 주체사상이 사람중심의 세계관이기때문이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사회의 모든것이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는것을 밝혀주고있다.

우리 인민정권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인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모든 법령들과 결정들을 채택하고 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인민대중을 위하여 전적으로 복무하도록 하고있다.

주체사상이 우리 공화국의 지도사상, 지도적지침으로 되는것은 또한 주체사상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이기때문이다.

사람은 사회적예속과 자연의 구속, 낡은 사상과 문화의 구속에서 해방되여야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중요구성부분을 이룬다고 말할수 있다.

주체사상은 바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준다.

우리 공화국은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정치에서 자주의 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고있다.

정치적자주성은 자주독립국가의 제일생명이다. 우리 국가는 모든 로선과 정책을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과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세우고 그것을 우리자체의 힘으로 관철해나간다.

우리 공화국은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경제에서 자립의 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고있다.

경제적자립은 정치적독립과 자주성의 물질적기초이다. 부강하고 문명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려면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한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고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할수 있다. 우리 공화국은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철저히 구현하여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최신기술로 장비된 경제를 훌륭히 건설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우리 공화국은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국방에서 자위의 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고있다.

자기를 지키는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근로인

민대중의 자주적권리를 옹호하는 국가는 마땅히 자기를 보호하는 수단을 가져야 한다. 더우기 제국주의침략자들의 반사회주의책동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조건에서 사회주의국가는 자기의 주권을 옹호보위할수 있는 튼튼한 국방력을 가져야 한다.

우리 공화국은 국방에서 자위의 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인민군대를 현대적군사기술로 장비된 일당백의 무력으로 강화하였으며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시켰다. 그리하여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켜나가고있다.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은 사회주의국가를 가장 발전된 위력한 국가로 강화할수 있게 하는 로선이다.

다음으로 우리 공화국의 지도사상, 지도적지침은 선군사상이다.

오늘의 시대는 선군시대이다.

선군시대는 선군사상의 기치따라 전진하는 우리 혁명의 새로운 시대이며 주체혁명위업의 새로운 높은 발전단계이다.

선군시대의 기치인 선군사상은 군사를 중시하고 군사를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혁명군대를 주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갈데 대한 사상이다.

사회주의헌법에는 공화국주권의 주인에 대하여 규제되여있다.

국가의 주인으로 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국가주권을 누가 쥐였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된다.

지난날 우리 인민은 국가주권을 가지지 못한탓에 갖은 천대와 멸시를 받으면서 짐승과 같은 생활을 강요당하여왔다. 그러나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나라를 찾아주시고 우리 인민을 국가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사람으로서의 참다운 권리와 자유를 누리게 되였으며 보람차고 값높은 생활을 하게 되였다.

우리 공화국에서 주권의 담당자는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이다.

우리 나라에서 인민대중은 주권의 담당자, 주인이 된것으로 하여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주권기관을 직접 조직하고 관리운영한다.

우리 나라에서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실현한다.

우리 나라에서 인민회의는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인민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인민회의에서 채택되는 모든 법령들과 결정들에는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가 담겨지게 된다.

우리 공화국에서 근로인민은 자기의 진정한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하고 실현한다. 우리 나라에서 최고인민회의를 비롯한 각급 인민회의는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담은 법령들과 결정들을 채택하며 인민회의 상무기관을 통하여 자기가 규제한 법령들과 규제들이 철저히 지켜지고 집행되도록 통제한다.

우리 공화국이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삼고 근로인민대중이 공화국주권의 담당자로 되여있는 한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존함으로 불리우는 조국으로, 진정한 인민의 나라로 세계에 찬란히 솟아 빛을 뿌릴것이다.

제4절. 우리 공화국에서 로동생활원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은 사회와 집단의 강화발전을 위한 창조적활동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원천입니다.》

사람들은 창조적로동을 통하여 자연을 정복하고 생존에 필요한 물질문화적재부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사회를 개조발전시키고 자기자신을 보다 힘있는 존재로 키운다. 로동이 없이는 사람이 살아나갈수 없으며 인간사회가 존재할수도 발전할수도 없다. 특히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로동을 떠나서는 사회주의강성국가을 건설할수 없다.

사회주의헌법 제29조에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고 규제되여있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란 로동을 그 어떤 외부적인 강요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사회와 집단, 자기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온갖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하는것을 의미한다.

우리 나라에서 근로자들은 모두다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며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복리와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각적인 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로동은 모든 근로자들이 다 참가하는 집단적인 로동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근로자들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로동에 대한 권리와 로동에 참가할 의무를 지니고있다. 모든 근로자들은 자기의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국가로부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그리고 자기의 능력에 따라 사회적로동에 참가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로동은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 자신을 위한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 로동이다.

우리 나라에서 근로자들에 의하여 창조된 모든 물질문화적재부들은 전체 인민들과 근로자들자신의 소유로 되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들의 복리증진, 자기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리용된다.

사회주의헌법에서는 근로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8시간이라고 규제하고있다.

8시간로동제는 로동자들에게 충분한 휴식시간과 물질생활조건을 보장하면서도 그들의 창조적로동을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 최대한으로 동원할수 있게 한다.

8시간로동제는 원래 로동계급이 내세운 구호였다.

우리 나라에서 8시간로동제는 경애하는 수령님과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밝혀주신 8시간로동, 8시간학습, 8시간휴식의 원칙에 기초한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8시간로동제는 모든 일반부문의 로동에 적용되는 하루로동시간으로 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탄광, 광산에서 지하로동을 하는 로동자들과 금속공업부문의 용해공, 압연공들을 비롯한 어렵고 힘든 부문의 로동자들에게 7시간로동제를 적용하고있다. 한편 방사성물질을 다루는 부문과 같은 특수한 로동조건에서 일하는 로동자들과 13살아래의 어린이들을 3명이상 가진 녀성로동자들에게는 6시간로동제를 적용한다.

사회주의헌법은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기 위한 방도에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로동조직을 잘하여야 한다. 로동조직을 잘하여야 사소한 로력랑비도 없애고 480분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할수 있다. 로동조직을 잘하려면 성별, 체질, 나이, 기

술수준에 맞게 로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하며 로동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기 위해서는 또한 로동규률을 강화하여야 한다. 로동규률을 강화하는것은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극복하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로동에 자각적으로 참가하게 하며 480분로동시간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로동생산능률을 체계적으로 높일수 있게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16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은 금지되고 있다.

소년로동을 금지할데 대한 이 조문에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혁명과 건설의 참된 주인으로, 전면적으로 발전된 훌륭한 혁명가로 키우시려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크나큰 사랑이 담겨져있다.

학생청년들은 로동을 사랑하고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는 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 한몸바쳐나가야 한다.

제5절. 우리 공화국의 인민적교육시책과 인민적보건제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배우며 발전할수 있도록 온갖 조건을 보장하여주고있습니다.》

국가가 어떤 교육시책을 실시하는가에 따라 그 국가의 장래운명이 결정된다.

사회주의헌법에서는 우리 국가가 실시하고있는 인민적교육시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제하고있다.

우리 국가가 실시하는 인민적교육시책은 무엇보다도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키는것이다.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키는것은 후대들을 유능한 사회주의건설자로 키우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우리 국가가 실시하는 인민적교육시책은 다음으로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함께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내는것이다.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만으로는 늘어나는 기술인재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없다. 빨리 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기술인재양성사업을 강화하자면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함께 일하면서 공부하는 통신교육, 야간교육 등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 국가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다 고등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일하면서 공부하는 교육체계를 더욱 확대강화하여나가고있다.

우리 국가는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내기 위하여 기술교육과 사회과학교육, 기초과학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이고있다.

우리 국가가 실시하는 인민적교육시책은 다음으로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것이다.

배움의 권리와 자유는 단순히 의무교육을 선포하는것만으로는 보장되지 않는다. 무료교육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 의무교육은 의무교육이라고 말할수 없다. 그러므로 무료교육의 실시는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선진적인 사회주의교육제도를 세우고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우리 국가는 교육사업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원칙에서 가장 철저한 무료교육을 실시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유치원으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각급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모든 어린이들과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다 무료로 실시하고있다. 정규교육뿐아니라 온갖 형태의 사회교육도 무료로 하고있으며 간부들과 근로자들을 위한 교육사업도 모두 국가의 부담으로 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장학금제도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준비된 주체형의 혁명인재로 키우시려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따뜻한 사랑에 의하여 마련되였으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우월성의 발현으로 되고있다.

우리 국가가 실시하는 인민적교육시책은 다음으로 사회교육을 강화

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하도록 한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모든 근로자들은 국가의 인민적교육시책에 의하여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사회교육을 받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적으로 교육기자재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학교후원단체들의 역할을 높여 갖가지 현대적인 실험실습설비들과 과학실험기구들을 생산하여 학교들에 보내주고있으며 인민대학습당을 비롯한 현대적인 도서관들을 수많이 건설하여 각종 도서들을 충분히 보장하고있다.

우리 국가가 실시하는 인민적교육시책은 다음으로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주는것이다.

우리 나라에 마련된 어린이보육교양제도는 어린이를 키우는데서 사회주의적원칙을 구현한 가장 선진적인 어린이보육교양제도이다. 우리의 어린이보육교양제도는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보장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국가적 및 사회적혜택이 평등하게 차례지게 하고있다.

사회주의헌법 제56조에는《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규제되여있다.

전반적무상치료제는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하고있는 우리 국가의 인민적시책이며 모든 사회성원들에게 무료로 의료봉사를 하는 선진적인 시책이다.

우리 나라에서 실시되고있는 전반적무상치료제는 완전한 무상치료제이다.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 의료기관이 있으며 모든 공민들에게 진찰비, 왕진비, 외래치료비, 입원치료비, 수술비, 약값까지 모두 국가가 무상으로 보장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가 실시되고있다.

우리의 전체 인민들은 누구나 다 담당의사의 책임적이며 체계적인 방조밑에 일상적으로 건강보호를 받는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예방대책을 세

워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고있다.

예방의학제도는 사람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는 우리의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실시될수 있다.

학생청년들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하고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보건제도를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을 한시도 잊지 말고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훌륭히 준비하기 위하여 공부를 더 잘해야 한다.

제6절. 우리 공화국의 국방력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국주의와 직접 맞서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 조건에서 국방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습니다.》

국방력을 강화하는 문제는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이다. 국사중에서 제일 큰 국사는 나라를 지키는것이며 군사를 중시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국방력을 강화하는것은 오늘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로부터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사회주의헌법 제58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에 의거한다.》고 규제되여있다.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는 전인민적, 전국가적력량을 총동원하여 제국주의침략세력을 물리치기 위한 방위체계이다. 전선과 후방이 따로 없는 립체전, 기동전으로 벌어지는 현대전쟁에서 전체 인민과 온 나라의 힘에 의거하는 방위체계만이 그 어떤 군사적침공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할수 있고 전쟁에서 승리할수 있다.

우리 국가가 의거하는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는 정규무력과 민간무력 그리고 요새화된 방위시설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정규무력은 필요한 모든 군종과 병종을 다 갖추고 통일적인 규제과 규범에 의하여 움직이는 혁명군대로서 국가의 방위체계에서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민간무력은 생산을 떠나지 않는 근로자들과 청년들을 여러가지 형태의 군사조직에 망라한 무장력으로서 국가의 방위체계에서 주요한 위치에 있다.

무장력과 함께 요새화된 방위시설 역시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모든 군사행동이 반드시 일정한 군사시설과 진지에 의거하여 진행되는것만큼 전연과 후방이 따로없이 온 나라의 모든 지역에 철옹성같은 방위시설을 구축하여야 전국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자위적군사사상과 항일무장투쟁시기 유격근거지들에 수립되였던 전민방위체계의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여 세워졌다.

우리 나라의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는 혁명의 수뇌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체 인민의 일심단결과 자립적민족경제에 의거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의 무장력은 혁명의 수뇌부를 보위한다.

무장력이 혁명의 수뇌부를 보위하는것은 조국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혁명의 수뇌부보위에 우리 무장력의 첫째가는 사명과 임무가 있으며 혁명의 승리가 담보되여있다.

우리 공화국의 무장력은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한다.

무장력이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한다는것은 온갖 계급적원쑤들과 불순분자들의 침해로부터 인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위하며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무장으로 옹호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공화국무장력이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는것은 우리 나라에서 근로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무장력이 근로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로 조직되기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의 모든것이 그 주인인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한다. 때문에 무장력도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게 된다.

우리의 무장력은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는 성스러운 무장력이다.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은 근로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삶과 행복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혁명선렬들이 피로써 쟁취한 귀중한 재부이다. 외래침략자들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인민들은 또다시 원쑤들의 노예로 되며 피눈물나는 생활을 하게 된다.

제국주의침략세력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조건에서 영원한 평화란 있을수 없다. 특히 제국주의두목인 미제가 새 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미쳐날뛰고있는 조건에서 국방력을 강화해야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지킬수 있다.

우리 공화국은 당의 자위적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해나가고있다.

자위적군사로선은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한다.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근본요인은 무기나 전투기술기재에 있는것이 아니라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자각한 군대와 인민의 높은 정치적자각과 혁명적열의에 있다.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혁명군대와 인민은 최신무장을 갖춘 적과 싸워 능히 이길수 있다.

전군간부화는 일단 유사시에 모든 군인들이 한등급이상의 높은 직무를 담당수행할수 있게 하며 민간무력인 로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를 능숙하게 지휘할수 있게 한다.

전군현대화는 현대전에 맞게 군대의 군사기술장비를 원만히 갖추도록 함으로써 군대의 위력을 강화할수 있게 한다.

전민무장화는 전체 인민이 군사를 성실히 배우고 군사훈련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여 언제나 싸울수 있는 준비상태에 있게 한다.

전국요새화는 나라의 모든 지역에 철벽같은 방위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적들이 덤벼들면 일격에 쳐물리칠수 있도록 한다.

우리 공화국은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의 자위적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방력을 이 땅우에 마련하여놓았다.

우리 나라에서는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이 활짝 꽃펴나고있다.

관병일치는 혁명군대에서 지휘관과 병사, 상급과 하급이 참다운 혁명동지로 굳게 뭉쳐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혁명을 위하여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혁명적기풍이다.

혁명군대에서 지휘관이나 병사는 다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아들딸로서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손에 무장을 잡고 제국주의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를 반대하여 싸우는 혁명동지들이다. 그러므로 혁명군대의 지휘관과 병사대중사이에는 자그마한 간격도 없으며 오직 혁명적인 사랑과 동지적인 단결만이 있을뿐이다.

군민일치는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며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어깨겯고 싸워나가는 기풍이다.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혁명적기풍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되였다.

이 기풍은 오늘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있다.

군민일치는 인민군대의 힘의 원천이며 군대와 인민의 단합된 힘은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다.

전선과 후방이 따로없이 진행되는 현대전에서 군민일치는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적들은 우리에게 군민일치와 같은 위력한 무기가 있는것을 제일 무서워한다.

우리 공화국의 국방력은 우리 당의 위대한 선군정치에 의하여 불패의것으로 날을 따라 더욱 굳건히 다져지고있다.

第7절.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게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16살까지의 공민에게는 출생증을, 17살이상의 공민에게는 평양시민증 또는 공민증을 발급해준다.

사회주의헌법에는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가 명확히 규제되여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사회주의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이다. 따라서 사회주의제도가 공고발전되면 될수록 공민의 권리와 자유가 더욱 확대되는것은 필연적이다.

사회주의헌법 제65조에는《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고 규제되여있다.

평등한 권리는 사람들사이에 대립이 아니라 협조와 방조가 기본으로 되고 착취와 압박이 없으며 모든 공민들이 리해관계를 같이하는 사회주의근로자로 되여있는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철저히 보장된다.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을 받고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공민은 국가기관이나 개별적일군들의 옳지 못한 행위에 대하여 신소할수 있으며 국가기관이나 개별적일군들의 사업개선을 위해 해당 기관에 청원할수 있다.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이 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은 물론이고 전체 근로인민대중이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에 널리 참가할수 있으며 국가는 우수한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거나 과학적발명을 한 창작가, 발명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려준다.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공민은 안정된 생활과 문화적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수속을 거쳐 그 어느곳에서나 살수 있으며 그 어느곳에도 다녀올수 있다.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한몸다 바쳐 싸운 혁명가들과 그의 유가족들을 특별히 보호하고 돌보아주는것은 숭고한 도덕의리로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녀자는 남자와 차별없이 사회생활을 하며 남자와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권을 가지며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사회주의헌법에서는 공민들이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지키며 보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지켜야 한다.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

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며 누구도 마음대로 침해할수 없다.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제8절. 국가기구와 국장, 국기, 국가, 수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헌법은 국가기관체계도 새롭게 제정하였습니다.》

사회주의헌법에는 국가기구와 국장, 국기, 국가, 수도가 규제되여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다른 모든 국가기관들보다 최고의 위치에 있으며 최고의 권한을 가진 주권기관이다. 최고인민회의는 근로인민대중에 의하여 선거된 진정한 인민의 대표들인 대의원들로 구성된다.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년이다.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을 수정, 보충하며 부문법을 규제 또는 수정, 보충한다.

최고인민회의는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최고인민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명예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최고인민회의는 내각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하며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한다.

최고인민회의는 최고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하며 최고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명령을 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정치, 군사, 경제, 문화를 비롯한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국방위원회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국방부문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페기한다.

·특사권을 행사한다.

·나라의 비상상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이다.

국방위원회는 제1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국방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국방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내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국방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세운다.

·국가의 전반적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한다.

·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군사칭호를 규제하며 장령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가 휴회하는 기간에 최고인민회의의 사업을 수행하는 최고주권기관이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내각은 최고인민회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같은 국가의 최고주권기관들의 법령과 명령, 결정, 지시를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사업들을 조직하고 집행하는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관리기관이다.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지방인민회의는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들이며 지방주권기관이다.

지방인민회의는 해당 도(직할시), 시(구역), 군에서의 다른 모든 지방기관들보다 최고의 위치에 있으며 최고의 권한을 가진다.

지방인민회의는 해당 주민들의 선거에 의하여 선거된 인민의 대표들인 지방인민회의 대의원들로 구성되며 지방인민회의 임기는 4년이다.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지방인민회의가 휴회하는 기간에 해당 지방인민회의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인민위원회결정, 지시와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과 내각 위원회, 성의 결정, 지시를 집행하고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하는 지방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앞에 책임지며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복종한다.

검찰사업은 최고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최고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검사는 최고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검찰사업은 최고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최고검찰소에 복종한다.

재판은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최고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최고검찰소와 최고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사회주의헌법 제169조에는 국장이 규제되여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사회주의헌법 제170조에는 국기가 규제되여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폭이 있으며 그다음에 푸른 폭이 있다.

붉은 폭의 기발대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대 2이다.

사회주의헌법 제171조에는 국가가 규제되여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사회주의헌법 제172조에는 수도가 규제되여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사회주의도덕과 법(중학교 제4학년용)

2판

집 필 부교수 고수길, 김천일, 박사 부교수 김경숙, 장춘식

심 사 심의위원회

편 집 및 콤퓨터편성 김학연

장 정 류명심 교정

낸 곳 교육도서출판사

인쇄소 1판발행 주체94(2005)년 3월 11일

2판인쇄 주체101(2012)년 월 일 2판발행 주체101(2012)년 월 일

교-12- 부 값 원